

ISSN 1975-4922

# 2020 연차보고서

2021. 3



한국은행  
BANK OF KOREA

# BANK OF KOREA

## 2020 연차보고서

2021. 3

---

## 「한국은행법」

### 제102조(연차보고서의 공표)

- ①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중의 한국은행의 업무상태와 통화 및 정부의 외환에 관한 정책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금융경제 상태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



---

## 총재 서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과 이로 인한 충격이 지속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계경제는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와 교역감소로 유례 없는 수준으로 위축되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등으로 민간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고용사정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고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기준금리를 3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0.75% 포인트 인하하여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추고, 국채매입 및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체결 등을 통해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습

---

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신용시장 안정을 위해 회사채·CP 매입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게 및 기업의 레버리지 확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정부 등 관계기관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15년에 착수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 기반이 되는 제도적 여건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내부경영에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전개양상,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한국은행은 국내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및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도 계속 유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 운영여건 변화,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논의 등에 대응하여 현행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데에도 꾸준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2020년 중 우리나라 금융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은행의 업무와 경영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경제와 한국은행의 업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3월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이주열

##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이주열

위원 고승범

위원 임지원

위원 조운제

위원 서영경

위원 주상영

위원 이승헌





## 차례

---

<b>I. 한국은행 개요</b>	<b>1</b>
1. 연혁 및 설립목적	3
2. 조직	5

---

<b>II. 경제 동향</b>	<b>11</b>
1. 실물경제	13
2. 금융·외환시장	24

---

<b>III. 업무 현황</b>	<b>33</b>
1. 중기전략	35
2. 통화신용정책	36
3. 금융안정	45
4. 발권	53
5. 지급결제	58
6. 외환 및 국제협력	63
7. 조사통계	71
8. 국고 및 증권	78
9. 대외 커뮤니케이션	84

---

<b>IV. 경영 상황</b>	<b>91</b>
1. 조직 운영	93
2. 재무 현황	103

---

<b>부 록</b>	<b>117</b>
------------	------------

---

## 표 차례

---

표 I - 1.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6
<hr/>	
표 II - 1.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16
표 II - 2.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률	17
표 II - 3. 고용 관련 지표	18
표 II - 4. 임금 지표	19
표 II - 5. 주택가격 상승률	20
표 II - 6. 주요 품목별 수출	21
표 II - 7. 주요 품목별 수입	22
표 II - 8. 2020년 권역별 주요 지표	23
표 II - 9. 주요국 국채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24
표 II - 10. 주요 금융기관 수신	28
표 II - 11. 금융기관 대출	29

표 III-1.	2020년 중기전략 목표 및 계획	35
표 III-2.	한국은행 원화대출금	37
표 III-3.	한국은행 예수금	38
표 III-4.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조정 내용	39
표 III-5.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39
표 III-6.	SPV의 신용등급별 회사채·CP 매입 현황	40
표 III-7.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40
표 III-8.	한국은행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조치	44
표 III-9.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48
표 III-10.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공급 및 회수 현황	49
표 III-11.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51
표 III-12.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세부 내역	52
표 III-13.	화폐발행·환수 및 발행잔액	53
표 III-14.	화폐 제조규모	53
표 III-15.	오만원권 순발행액	57
표 III-16.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규모	59
표 III-17.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61
표 III-18.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대상 담보증권 범위	61
표 III-19.	외환당국 외국환 순거래 내역	63
표 III-20.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	64
표 III-21.	외화자산 구성 내역	65
표 III-22.	외화자산 운용 시 국내 금융기관 활용 현황	66
표 III-23.	ESG 관련 자산 투자 현황	67
표 III-24.	국제회의 주요 논의 내용	68
표 III-25.	역내 국제회의 주요 논의 내용	68
표 III-26.	지식교류 프로그램(KPP) 실적	69
표 III-27.	SEACEN 센터 온라인 공동연수 실적	69
표 III-28.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	70
표 III-29.	IMF에 대한 용자 현황	70
표 III-30.	한국은행 작성 국가승인통계 현황	76

표 III-31. 국고금 수납 및 지급	78
표 III-32. 국고대리점 현황 및 수납금액	79
표 III-33. 국고전산망 처리 실적	79
표 III-34.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79
표 III-35.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80
표 III-36. 한국은행 기금관리 업무의 주요 내용	81
표 III-37. 기금 조달(운용) 현황	82
표 III-38. 홈페이지(메인) 방문자 수	84
표 III-39.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85
표 III-40. 화폐박물관 관람자 수	86
표 III-41. 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	86
표 III-42. 현장 경제교육 실적	87

---

표 IV- 1. 연도별 직원 채용 규모	98
표 IV- 2. 한국은행 여성 관리자 인원	98
표 IV- 3. 「BOK 2030」 전략방향과 디지털혁신실의 업무 추진 방향 간 관계	101
표 IV- 4. 손익 현황	104
표 IV- 5. 대차대조표	105
표 IV- 6. 손익계산서	107
표 IV- 7. 자본변동표	109
표 IV-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09

## 그림 차례

그림 Ⅰ - 1. 최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	3
그림 Ⅰ - 2.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현장	4
그림 Ⅰ - 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명단	5
그림 Ⅰ - 4. 집행간부 및 감사 명단	7
그림 Ⅰ - 5. 조직 구성	9
<hr/>	
그림 Ⅱ - 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3
그림 Ⅱ - 2.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13
그림 Ⅱ - 3.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14
그림 Ⅱ - 4. 세계교역 신장률 추이	14
그림 Ⅱ - 5. GDP 성장률 및 지출항목별 기여도	15
그림 Ⅱ - 6. 소비 동향	15
그림 Ⅱ - 7. 고정투자 동향	16
그림 Ⅱ - 8. GDP 성장률 및 경제활동별 기여도	16
그림 Ⅱ - 9.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17
그림 Ⅱ - 10.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18
그림 Ⅱ - 11.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18
그림 Ⅱ - 12. 위기별 고용경로	18
그림 Ⅱ - 13. 종사상지위별 임금상승률	19
그림 Ⅱ - 14.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인플레이션율	20
그림 Ⅱ - 15. 경상수지	21
그림 Ⅱ - 16. 서비스수지	22
그림 Ⅱ - 17. 주요 선진국 주가 및 MSCI 신흥국 지수	25
그림 Ⅱ - 18.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25
그림 Ⅱ - 19. 주요 시장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	26
그림 Ⅱ - 20.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및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	26
그림 Ⅱ - 21. 은행 여수신금리	27
그림 Ⅱ - 22.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28
그림 Ⅱ - 23. 원/달러 및 원/엔 환율	29
그림 Ⅱ - 24. 원/달러 환율 변동폭	30
그림 Ⅱ - 25.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31

그림 III- 1. 물가안정목표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그림 III- 2. 기준금리	37
그림 III- 3.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 추이	39
그림 III- 4.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41
그림 III- 5. 금융안정지수(FSI)	45
그림 III- 6. 가계신용	46
그림 III- 7. 기업신용 및 재무건전성	46
그림 III- 8.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47
그림 III- 9. 금융기관 자본비율	47
그림 III-10.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 및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47
그림 III-11.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54
그림 III-12. 2020년 발행 기념주화	54
그림 III-13. 화폐사랑 UCC 공모전 수상자 시상	55
그림 III-14. 위조지폐 발견장수	55
그림 III-15. 화폐 폐기규모	55
그림 III-16.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포스터	56
그림 III-17. 은행권 주요 손상요인	57
그림 III-18. 한은금융망 결제금액	58
그림 III-19. 대정부 일시대출 평잔 및 누계액	80
그림 III-20.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	80
그림 III-21.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제공 규모	81
그림 III-22. 외국 공적기관의 국내채권 보유 규모	83
그림 III-23.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구조	83
그림 III-24. 「복코노미(BOKonomy)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85
그림 III-25. 한국은행 봉사단체 차량지원	86
그림 III-26. 「한국은행 70년사」	89
그림 III-27. TV 다큐멘터리 「혼돈시대의 중앙은행」	89
그림 III-28. 창립 70주년 기념 홈페이지	89
그림 III-29. 동영상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1편 「돈이란?」	90
그림 III-30. 모션그래픽 「로빈슨 크루소」	90
그림 III-31. 비대면 「동계 초등교사 직무연수」	90

---

그림 IV- 1.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구조	94
그림 IV- 2.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흐름도	94
그림 IV- 3. 「BOK 2030」 전략체계	96
그림 IV- 4. 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100
그림 IV- 5.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현장	100
그림 IV- 6. 디지털혁신실 조직도	102
그림 IV- 7. 자산 현황(주요 항목)	103
그림 IV- 8. 부채 및 자본 현황(주요 항목)	104



---

## 참고 차례

참고 III- 1. 한국은행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44
참고 III- 2.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유동성 공급	52
참고 III- 3.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발권업무 수행	57
참고 III- 4.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83
참고 III- 5.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89
참고 III- 6. 다양한 온라인 교육채널 확충	90
참고 IV- 1. 디지털혁신실 신설	101

---

# I

## 한국은행 개요

1. 연혁 및 설립목적	3
2. 조직	5



## 1. 연혁 및 설립목적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광복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혼란 속에서 통화 가치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국가 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1950년 5월 5일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6월 12일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정부가 자본금 15억 원을 전액 출자한 법인이었으나, 19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 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제정 당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62년에는 정부주도 성장정책을 원활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

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 추천위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외환정책 수립 및 외환관리 기능의 대부분이 정부로 이관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자유화 추진과 더불어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및 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1997년 개정 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었으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이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되고 위원들은 모두 상근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재정경제원 장관이 겸임하던 의장직을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전까지 담당했던 은행 감독 기능은 신설된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이관되었다. 2003년 개정 시에는 물가안정목표제를

그림 1 - 1. 최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 (1950년 6월 5일)



자료: 한국은행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및 감시기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 예산 범위는 종전의 경비예산에서 급여성 경비로 축소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불안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11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으며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점과 함께 금융안정도 책무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2012년 개정 시에는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위원의 임기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는 교차임기제<sup>1)</sup>가 도입되고 한국은행의 통계·경제조사 관련 자료요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도록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그림 1 - 2.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현장 (2020년 8월 27일)



자료: 한국은행

1) 법 개정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장이 최초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부칙에 명시)하고, 임기교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임(前任) 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만료 직후 개시되도록 하였다.

## 2. 조직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 본부부서, 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집행기관, 그리고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 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임명직 위원 5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인의 임명직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추천기관<sup>2)</sup>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전원 상근<sup>3)</sup>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한국은행 부총재(3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이며<sup>4)</sup> 연임할 수 있다.<sup>5)</sup>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림 1 - 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명단  
(2020년 12월 31일 현재)

	<p><b>이 주 열</b> (한국은행 총재, 2014년 4월 1일~)</p> <p>&lt;주요경력&gt;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p>
	<p><b>고 승 범</b> (한국은행 총재 추천, 2016년 4월 21일<sup>1)</sup>~)</p> <p>&lt;주요경력&gt;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p>
	<p><b>임 지 원</b>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2018년 5월 17일~)</p> <p>&lt;주요경력&gt; 제이피모건 수석부장 /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p>
	<p><b>조 윤 제</b>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2020년 4월 21일~)</p> <p>&lt;주요경력&gt;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대통령 경제보좌관 IMF·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p>
	<p><b>서 영 경</b>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2020년 4월 21일~)</p> <p>&lt;주요경력&gt;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금융시장부장</p>
	<p><b>주 상 영</b>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2020년 4월 21일~)</p> <p>&lt;주요경력&gt; 건국대학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p>
	<p><b>이 승 헌</b> (한국은행 부총재, 2020년 8월 21일~)</p> <p>&lt;주요경력&gt;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국제국장 한국은행 공보관</p>

주: 1)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되어 4년 임기(2016년 4월 21일~2020년 4월 20일)를 마친 후, 2020년 4월 21일 한국은행 총재 추천으로 연임됨(임기 3년)

자료: 한국은행

- 2)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한다.
- 3) 1997년 12월 31일 「한국은행법」 개정(1998년 4월 1일 시행) 시 통화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래 비상근이던 임명직 위원의 근무형태를 전원 상근으로 변경하였다.
- 4) 2020년 4월 임명직 위원 4인의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임명된 2인의 위원에는 일회성으로 3년의 임기가 적용된다. 이는 위원의 임기가 서로 교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5) 총재와 부총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결정, 한국은행권 발행, 여수신정책, 공개시장운영, 지급결제, 금융기관 검사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은 물론 예산 및 결산, 조직 및 기구, 보수기준 등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한다. 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진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중 정기회의 24회, 임시회의 4회 등 총 28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 주요 현안 토의 및 본회의 상정안건 사전심의 등을 위해 위원협의회를 87회 열었으며, 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심의 위원회를 16회 개최하였다. 2020년 중 회의 개최 횟수는 총 131회로 예년보다 많았는데, 이는 기준금리 조정, 새로운 금융지원책 마련 등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논의와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표 1-1.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연도	본회의	정기		위원 협의회	심의 위원회	계
		정기	임시			
2018	26	24	2	81	14	121
2019	25	24	1	78	16	119
2020	28	24	4	87	16	131

자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해 정기회의의 개최일자를 사전에 보도자료로 발표하고 있다. 연간 총 2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가운데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8회,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4회 개최한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사록으로 작성·보관하고 있다. 이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은 통화신용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의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 나. 집행간부 및 감사

한국은행은 집행간부로서 총재, 부총재 및 부총재보 5인을 두고 있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인사청문절차<sup>6)</sup>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부총재는 총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며, 한국은행의 대표로서 「한국은행법」 등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할 의무도 지닌다. 현 이주열 총재는 2014년 4월 1일 임명되었고 2018년 4월 1일 연임하게 되었다.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으로 총재와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함과 아울러 한국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총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재가 직무를 수행

6) 국회 인사청문절차는 제9차 「한국은행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동 법 시행(2012년 4월 22일) 후 최초로 임명된 이주열 총재부터 적용되었다.

할 수 없을 경우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감사 1인을 두고 있다.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다.

#### 다. 부서조직 및 소관업무

2020년 말 현재 한국은행은 본부에 17개 부서(13국 1실 3원)와 10개 국소속실, 1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20개 부와 146개 팀(6개 연구실 포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본부는 서울과 지방에 16개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7개 기획조사부와 54개 팀을 두고 있으며 해외에는 5개 국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직원수는 2,445명<sup>7)</sup>이다.

각 부서의 주요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기획협력국

기획협력국은 경영전략 수립 및 추진, 운영리스크 관리, 조직 및 인력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부서 간 업무 조정, 지역본부 및 국외사무소 업무활동 조정 및 종합,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관리, 법규 검토, 디지털 혁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1-4. 집행간부 및 감사 명단  
(2020년 12월 31일 현재)



총재  
이주열  
(2014년  
4월 1일~)



부총재  
이승헌  
(2020년  
8월 21일~)



부총재보  
유상대  
(2018년  
5월 15일~)



부총재보  
정규일  
(2018년  
5월 15일~)



부총재보  
박종석  
(2019년  
7월 25일~)



부총재보  
이환석  
(2020년  
3월 9일~)



부총재보  
배준석  
(2020년  
11월 24일~)



감사  
장호현  
(2018년  
9월 10일~)

자료: 한국은행

7)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부총재 포함), 집행간부 및 감사 등 13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국은 대내외 의견수렴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 조정·통합, 화폐박물관 운영 등 홍보활동, 정보자료 관리, 연차보고서 작성, 대국민 경제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전산정보국

전산정보국은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전산기기의 도입 및 관리 등 IT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 인사경영국

인사경영국은 인적자원 관리, 급여 및 복리후생 업무와 부동산 및 시설 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 조사국

조사국은 거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산업동향 분석 및 산업정책 관련 조사연구, 고용관련 분석 및 전망, 물가안정목표 설정 및 조사연구, 계량모형 개발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국은 국민소득, 통화금융, 국제수지, 물가, 자금순환표, 산업연관표, 기업경영분석 등 경제통계의 편제, 분석 및 개발과 함께 통계품질평가, ECOS(경제통계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금융안정국

금융안정국은 금융안정상황 분석·종합평가, 시스템리스크 측정·분석 및 모형 개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및 파급경로 분석, 은행 및 비은행 관련 조사연구, 금융제도 관련 조사연구,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금융기관 경영분석 및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통화정책국

통화정책국은 통화신용정책의 입안, 정책수단 기획 및 운용, 통화신용정책 여건 및 효과 분석, 통화신용정책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금융시장국

금융시장국은 통화신용정책의 집행, 통화·금리 분석 및 전망, 금융시장 및 기업금융 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및

감시, 지급결제제도 관련 조사연구, 전자금융관련 기획 및 조사, 금융정보화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여수신 및 국고, 증권, 기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발권국

발권국은 화폐의 발행과 유통·관리, 화폐 및 발권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발권업무 기계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국제국

국제국은 외환·국제금융에 관한 기획·조사·분석, 외환시장 및 환율 관련 업무, 보유외환 및 외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외국환 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 외환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검사, 외환전산망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은 국제협력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국제금융기구 및 중앙은행 등과의 교류 및 금융·지식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외자운용원

외자운용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 기획, 국외 운용 및 리스크 관리, 운용성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원은 통화금융, 금융제도, 국제금융 및 무역, 거시경제, 산업, 노동, 북한경제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와 대외 연구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감사실

감사실은 한국은행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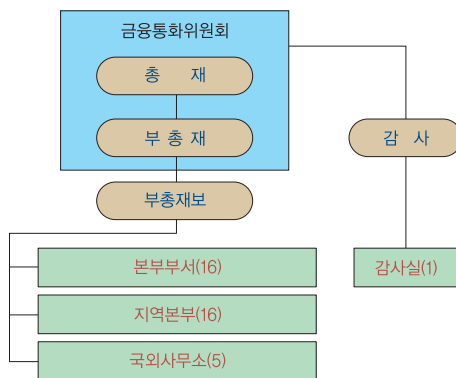
## 지역본부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와 함께 화폐 수급, 국고금 수납, 증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국외사무소

국외사무소는 주재국 및 인근 관심 국가의 금융경제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외화자산의 국외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1-5. 조직 구성



자료: 한국은행



---

#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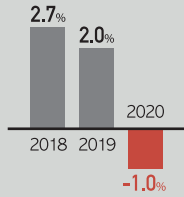
## 경제 동향

1. 실물경제	13
2. 금융·외환시장	24

# 2020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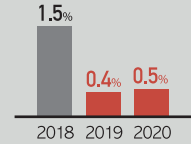
## 성장

**-1.0%**  
경제성장률(실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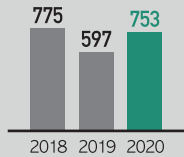
## 물가

**0.5%**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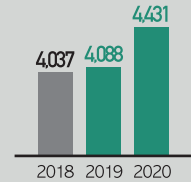
## 경상수지

**753**억 달러(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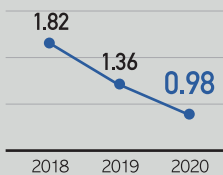
## 외환보유액(연말 기준)

**4,431**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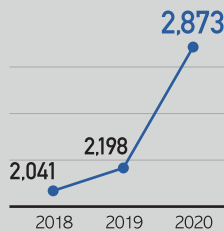
## 금리(연말 기준)

**0.98%**  
국고채(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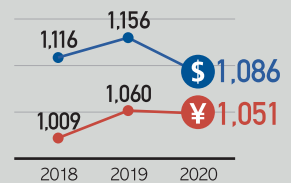
## 주가(연말 기준)

**2,873**  
KOSPI



## 환율(연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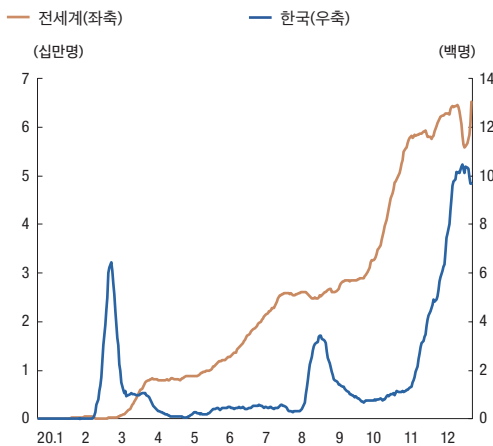
**\$ 1,086** 원/달러  
**¥ 1,051** 원/100엔



## 1. 실물경제

2020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대응한 각국의 방역조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연초 감염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되자 WHO는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증가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4월경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진정 조짐을 보이다가 5월부터 경제활동이 재개되자 재차 증가하였다.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겨울철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10월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2월 중 크게 확산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진정되었다. 이후 지역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되다가 11월을 지나면서 겨울철 대유행이 본격화되었다.

그림 II - 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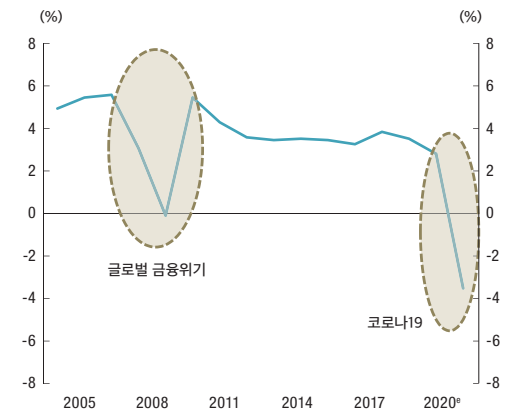
주: 1) 7일 이동평균 기준  
자료: Worldometer

## 가. 세계경제

### 세계경제 위축

2020년 중 세계경제는 연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유례없는 수준으로 위축되었다<sup>8)</sup>. 세계 GDP 감소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현저히 큰 4% 내외로 추정<sup>9)</sup>된다. 이는 해외여행 등 국가 간 물적·인적 교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조치,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II - 2. 세계경제 성장을 추이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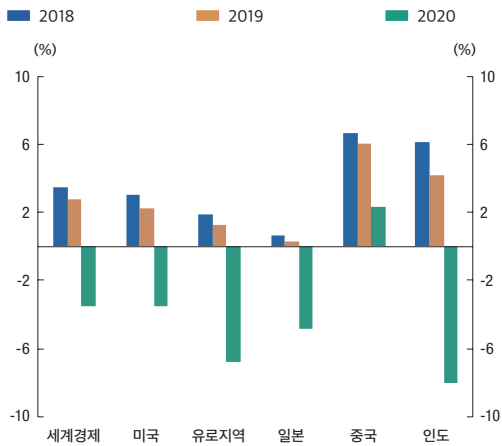
하반기 들어 코로나19 충격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재정 여력, 코로나19 확산양상, 주요 수출 품목 등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유로지역은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8) 2020년 중 경제 동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분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IMF 통계 입수가 가능한 1980년 이후 종전까지 세계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했던 해는 2009년(-0.1%)이 유일했다.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IMF는 -3.5%로, World Bank -3.7%로, OECD -3.4%로 추정하고 있다.

가 반등하다가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재차 위축되었다. 일본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소비 회복이 더더 개선흐름이 미약하였다. 신흥국 가운데 중국은 연초 코로나19 사태로 부진하였으나 이후 성공적인 방역과 생산활동 조기 정상화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인도는 강도 높은 봉쇄 조치로 경기 위축폭이 더욱 컸고, ASEAN 국가들의 경우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었으나 내수는 부진하였다.

그림 II - 3.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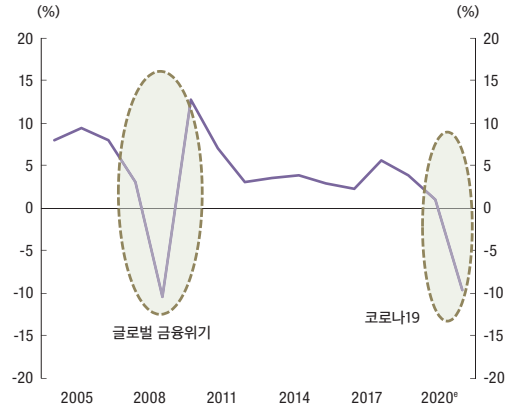


주: 1) 세계경제 및 인도의 2020년 성장률은 IMF(2021년 1월) 추정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IMF

## 세계교역 부진

2020년 세계교역 역시 크게 부진<sup>10)</sup>하였다. 상품교역은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된 5월 이후 선진국의 상품소비 개선에 힘입어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서비스교역은 출입국 통제 강화로 인적교류가 제한되며 부진이 이어졌다.

그림 II - 4. 세계교역 신장률 추이<sup>1)</sup>



주: 1)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기준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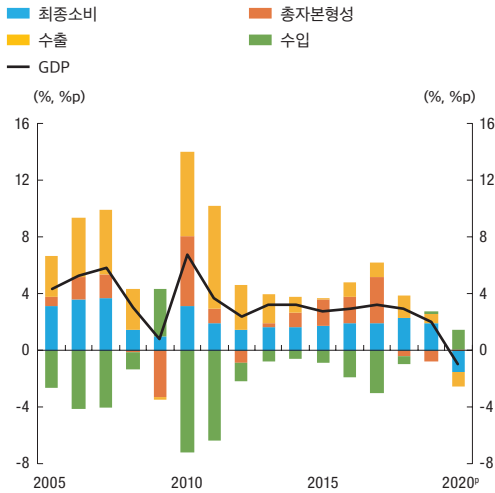
## 나. 국내경제

### (1) 경제성장

####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

2020년 중 국내총생산(GDP, 실질 기준)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와 수출이 부진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처음으로 감소(-1.0%)하였으며 2009년(0.8%)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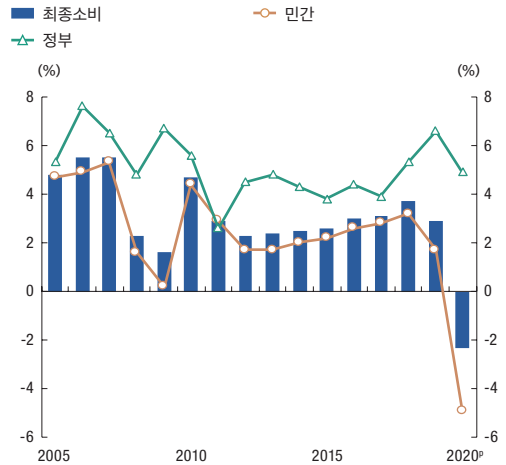
10) 1980년 이후 세계교역이 감소한 사례는 1982년(-1.6%)과 2009년(-10.4%)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이다. 2020년 중 감소폭은 2009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추정된다.(IMF -9.6%, World Bank -9.5%, OECD -10.3%)

그림 II - 5. GDP 성장률 및 지출항목별 기여도 (실질)<sup>1)</sup>

주: 1) 2019년, 2020년은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수요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정부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민간소비가 크게 부진하면서 2.3% 감소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소폭 증가(0.2%)하였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외부활동 자제 등의 영향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와 대면 서비스 소비가 크게 줄면서 4.9% 감소하였다.

그림 II - 6. 소비 동향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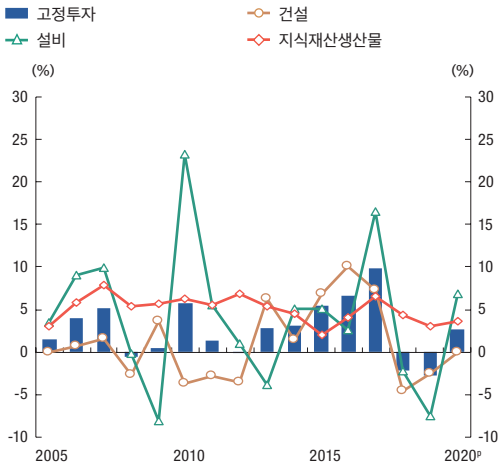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고정투자는 건설투자가 소폭 줄었으나 설비투자가 크게 늘면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크게 감소(-8.1%)하였던 설비투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요가 확대되고 신성장 부문 투자가 늘면서 IT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6.8%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조정흐름이 이어지면서 전년대비 0.1% 감소하였다. 다만 공사 차질 등 감염병 확산의 건설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연구개발투자 및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모두 늘면서 3.6% 증가하였다.



그림 II - 7. 고정투자 동향 (실질)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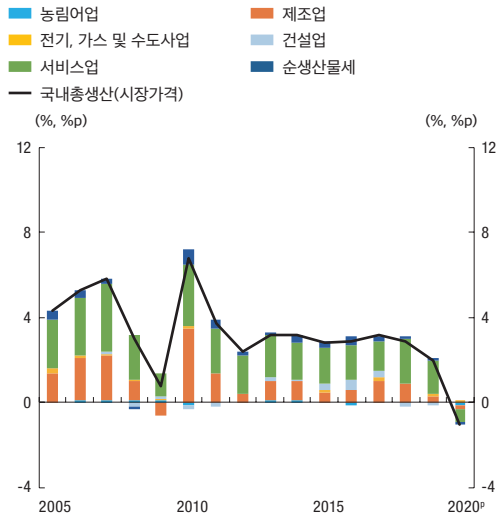
재화 및 서비스 수출(실질 기준)은 전년대비 2.5% 감소하였다. 재화 수출은 IT제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철강, 기계류, 석유제품 등 비IT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반도체는 비대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는 글로벌 수요 둔화 및 해외 공장 생산 차질로 완성차와 부품이 모두 감소하였다. 서비스 수출은 국경봉쇄 및 이동제한조치 시행으로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재화 및 서비스 수입(실질 기준)은 재화 수입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여행 및 운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수입이 큰 폭 줄면서 전년대비 3.8% 감소하였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감소**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코로나 19 충격으로 전년대비 감소 전환하였다. 건설업 생산은 2018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그림 II - 8. GDP 성장률 및 경제활동별 기여도 (실질)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은 IT부문의 견조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비IT부문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2.3%) 이후 처음으로 감소(-0.9%)하였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이외 제조업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부진하였다.

표 II - 1. 제조업 업종별 성장률

	1998	2008	2009	2018	2019 <sup>p</sup>	2020 <sup>p</sup>
제조업	-7.1	3.5	-2.3	3.3	1.3	-0.9
화학제품	0.2	0.3	3.1	2.5	-0.2	1.1
1차금속	-9.3	-8.0	-4.3	-3.8	-0.9	-4.2
금속제품	-12.0	-9.5	-9.9	-1.3	-2.5	-7.3
컴퓨터, 전자 및 광학	29.3	9.2	5.9	11.4	6.2	4.1
기계 및 장비	-35.4	6.6	-7.9	0.7	-3.8	1.0
운송장비	-26.1	10.5	-15.3	-2.3	4.2	-9.6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업은 1998년(-2.4%)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1.1%)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증가세를 이어갔던 서비스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업과 같은 대면서비스 부문이 크게 부진하면서 감소하였다.

표 II-2.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률

	1998	2008	2009	2018	2019 <sup>P</sup>	2020 <sup>P</sup>
서비스업	-2.4	3.9	2.0	3.8	2.9	-1.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9	1.6	-0.5	2.9	1.1	-5.7
운수업	-5.9	4.8	-4.5	3.7	0.4	-15.7
금융및보험업	-4.7	6.1	5.8	5.6	4.4	8.2
사업서비스	-8.8	5.8	1.6	3.8	2.7	-0.6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3.8	3.7	7.8	8.2	8.7	1.2

자료: 한국은행

건설업은 건물건설의 조정흐름이 이어지며 전년대비 0.9% 감소하였다. 농림어업은 3.4% 감소한 반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5.8% 증가하였다.

## (2) 고용 및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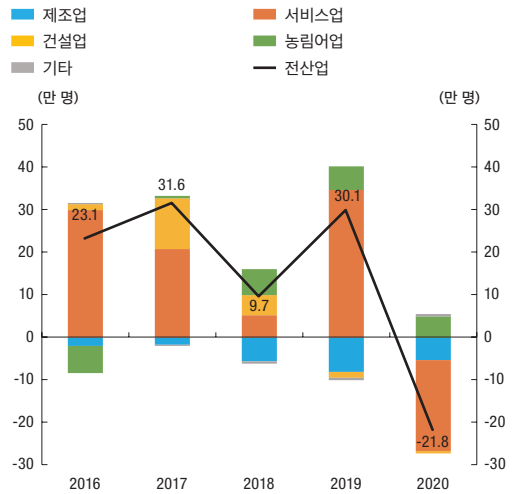
### 취업자수 큰 폭 감소

고용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영향으로 부진하였다. 취업자수 감소폭(-21.8만 명)은 1998년 외환위기(-127.6만 명)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제조업 고용은 대외여건

악화로 자동차, 조선 등 일부 업종의 업황 개선이 지연되면서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건설업 고용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II-9.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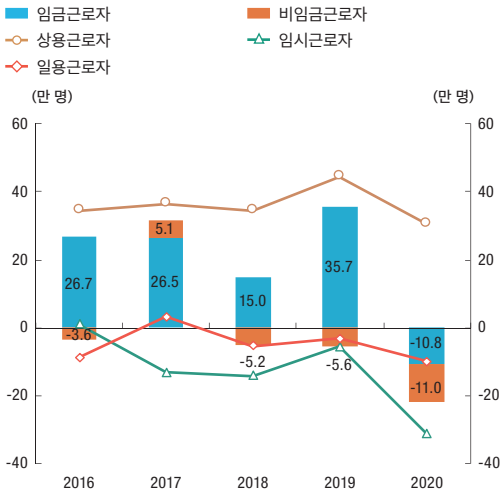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중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비임금 근로자의 고용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상용직 근로자 고용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연령별로는 30~59세 취업자수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15~29세 취업자수는 감소 전환한 반면, 60세 이상은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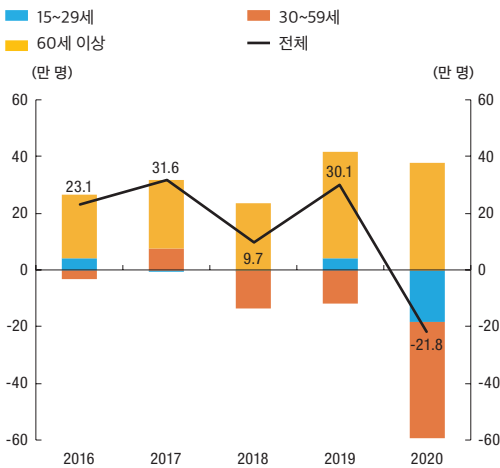
고용률은 취업자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 포인트 하락하였다. 전체 실업률은 4.0%로 전년 대비 0.2%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0%로 전년보다 0.1% 포인트 상승하였다.

그림 II- 10.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그림 II- 11.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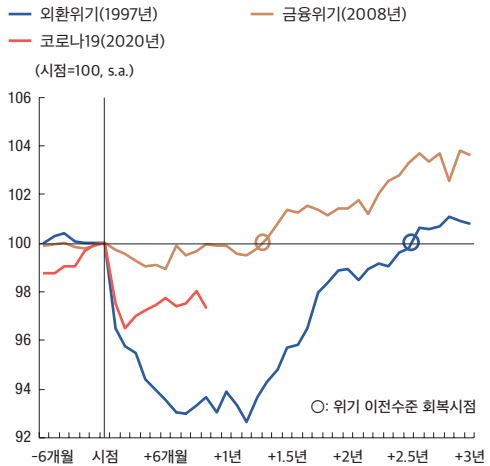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코로나19 확산 이후 취업자수(계절조정) 추이를 보면, 3~4월 중 큰 폭 감소한 뒤 5월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12월에는 감염병 재확산으로 취업자수가 다시 크게 감소하였다. 과거 경제위기 시에는 취업자수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외환위기의 경우 31개월, 금융

위기의 경우 16개월이 소요되었다. 금번 코로나 19 충격의 경우에도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어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 12. 위기별 고용경로<sup>1)</sup>



주: 1) 위기 발생시점은 외환위기 97년 12월, 금융위기 08년 11월, 코로나19 20년 2월

자료: 통계청

표 II- 3. 고용 관련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활동인구	2,742	2,775	2,790	2,819	2,801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0	1.2	0.5	1.0	-0.6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3.1	63.3	62.5
취업자수	2,641	2,672	2,682	2,712	2,690
취업자수증감	23.1	31.6	9.7	30.1	-21.8
실업률	3.7	3.7	3.8	3.8	4.0
(15~29세)	9.8	9.8	9.5	8.9	9.0
고용률	60.6	60.8	60.7	60.9	60.1
(15~64세)	66.1	66.6	66.6	66.8	65.9

자료: 통계청

## 임금 상승폭 크게 축소

명목임금은 1.1% 상승하여 2019년(3.4%)보다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인해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상용직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저임금 근로자 감소의 영향으로 높아졌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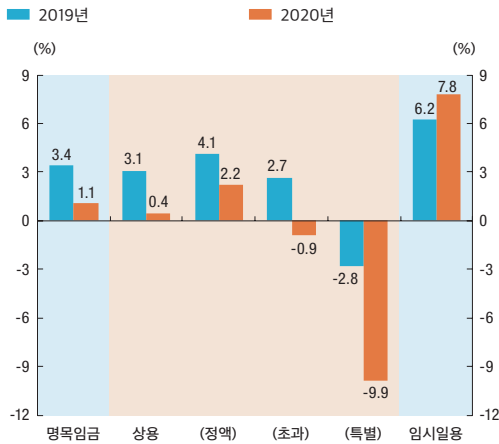
단위노동비용(비농림어업 기준)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표 II - 4. 임금 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명 목 임 금 <sup>1)</sup>	3.8	3.3	5.3	3.4	1.1
(실 질 임 금) <sup>2)</sup>	2.8	1.3	3.7	3.0	0.5
시 간 당 명 목 임 금 <sup>3)</sup>	5.1	5.2	6.8	3.9	2.6
노 동 생 산 성 <sup>4)</sup>	3.1	3.9	4.5	1.6	1.7
단 위 노 동 비 용 <sup>5)</sup>	2.0	1.3	2.2	2.2	0.9

주: 1) 비농림어업,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2)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3) 명목임금/근로시간  
 4) 비농림어업 실질부가가치/(취업자수×근로시간)  
 5) 시간당 명목임금/노동생산성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II - 13. 종사상지위별 임금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 (3) 물가

### 소비자물가 낮은 오름세 지속

2020년 중 소비자물가는 0.5% 상승하며 전년(0.4%)에 이어 0%대 중반의 낮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화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한 데다 정부정책 측면에서의 물가하방압력도 증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가격은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반기 중 크게 상승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내 육류 수요 증가 등으로 축산물가격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대비 6.7% 상승하였다. 공업제품의 경우 석유류가격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전년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5.7% → -7.3%), 석유류제외 공업제품가격은 0.8% 상승하며 전년(0.7%)과 비슷한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기·수도·가스요금은 하반기 들어 도시가스요금이 인하<sup>12)</sup>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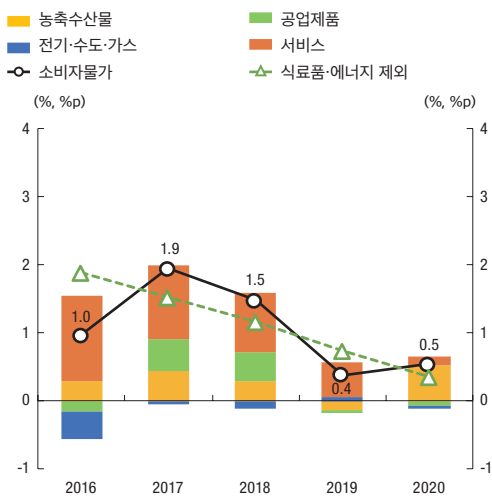
11) 코로나19 충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의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감소함에 따라 1인당 평균임금이 상승(구성효과)한 데 기인한 결과이다.

1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의 효과를 반영하여 2020년 7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11.2% 인하하였다.

전년대비 1.4% 하락하였다. 한편 서비스물가는 0.3% 상승하며 전년(0.9%)에 비해 오름세가 상당폭 둔화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집세가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고교무상교육 확대 시행<sup>13)</sup>,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으로 공공서비스물가 하락폭이 크게 확대된 데다(-0.5% → -1.9%) 개인서비스 물가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행·숙박·외식 등 대면서비스물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상당폭 둔화되었다(1.9% → 1.2%).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0.4% 상승하며 2019년(0.7%)에 비해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그림 II - 14.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인플레이션율



자료: 통계청

##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주택매매가격<sup>14)</sup>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연중 5.4% 상승하여 예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019년 하반기에 상승 전환<sup>15)</sup>된 이후 2020년 들어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비수도권은 2020년 상반기에 상승 전환<sup>16)</sup>된 이후 하반기 들어 오름세가 더욱 커졌다.

주택 전세 및 월세 가격도 하반기 들어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연중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표 II - 5. 주택가격 상승률 (전기말월대비)

	2019			2020		
	05~09 평균	10~14 평균	15~19 평균	연간	상반	하반
주택매매가격	5.7	1.6	1.3	-0.4	5.4	2.0
<수도권>	9.1	-1.0	2.4	0.5	6.5	3.1
<비수도권>	1.8	4.5	0.3	-1.1	4.3	1.0
주택전세가격	4.0	5.5	0.7	-1.3	4.6	1.1
주택월세가격	..	..	-0.6 <sup>1)</sup>	-0.8	1.1	0.2

주: 1) 16~19년 평균(시계열이 15년 6월부터 시작)

자료: 한국부동산원

## (4) 경상수지

### 경상수지 흑자 확대

경상수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흑자폭이 확대된 753억 달러 흑자<sup>17)</sup>를 기록하였다. 상품수지는 자동차, 철강 등 BIT

13) 2020년 4월 중 고교무상교육이 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데 이어, 9월 중에는 2021년 3월 시행 예정이었던 고교 1학년 대상 무상교육이 상당수 지역에서 조기에 시행되었다.

14) 한국부동산원 월간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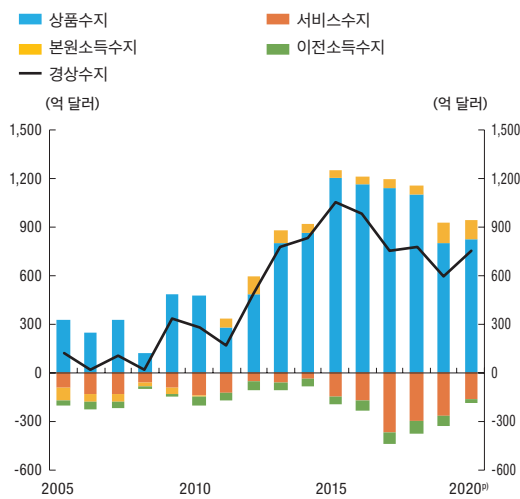
15)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2019년 상반기 중 1.0% 하락하였다가 하반기에는 1.4% 상승하였다.

16) 비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2019년 상반기 중 -0.9%, 하반기 -0.2%의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17) 2020년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331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였는데, 이는 수출 감소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보다 작은 데 주로 기인한다.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저유가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여 흑자폭은 소폭 확대되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폭 축소 및 운송수지 흑자 전환 등으로 적자규모가 축소되었다. 본원소득수지는 수입과 지급이 비슷한 규모로 감소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흑자폭을 기록하였다.

그림 II - 15.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 상품 수출 감소

수출(통관 기준)은 5,12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5.5% 감소하였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3.9%)를 크게 하회하였는데, 이는 주력 수출품목인 IT제품의 수출이 디지털 경제 확산, 비대면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IT제품 수출은 디스플레이패널이 국내생산 규모 감축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는 서버 및 모바일 수요를 중심으로, 컴퓨터는 재택근무 및 온라인교육 확산 등으로 증가

하였다. 비IT제품 수출의 경우 석유제품과 화공품은 유가 하락 등으로, 자동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생산차질 등으로, 철강과 기계류는 경기 부진에 따른 전방 산업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하면서 주요 품목이 모두 부진하였다.

표 II - 6. 주요 품목별 수출

(%)

	2019		2020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IT 제품	-19.7	<32.6>	3.8	<35.8>
반도체	-25.4	<17.8>	5.4	<19.9>
무선통신기기	-17.6	<2.6>	-6.4	<2.6>
디스플레이패널	-17.0	<3.8>	-12.2	<3.5>
컴퓨터	-14.7	<1.6>	46.0	<2.5>
비IT 제품	-5.0	<67.4>	-10.0	<64.2>
자동차	2.4	<12.0>	-14.1	<10.9>
석유제품	-12.0	<7.6>	-40.2	<4.8>
화공품	-8.9	<12.4>	-1.2	<13.0>
기계류	-2.4	<10.4>	-8.1	<10.1>
선박	-5.6	<3.6>	-2.0	<3.7>
총수출 <sup>1)</sup>	-10.4	[5,422]	-5.5	[5,125]

주: 1) [ ] 내는 수출금액(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 상품 수입 감소

수입(통관 기준)은 4,67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7.1% 감소하였다. 원자재 수입은 유가 하락 등으로 원유·석유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며, 소비자 수입도 의류 등 비내구소비재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장비·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다.

표 II - 7. 주요 품목별 수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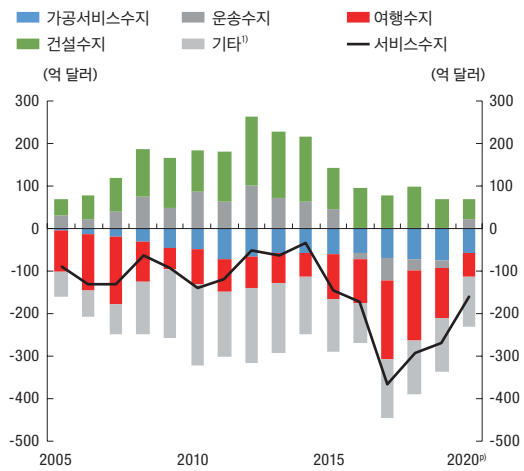
	2019		2020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원자재	-9.0	<50.5>	-18.8	<44.1>
자본재	-5.6	<32.8>	7.4	<37.9>
전기·전자기기	0.1	<20.0>	4.6	<22.5>
기계류·정밀기기	-16.2	<10.1>	14.2	<12.4>
(반도체제조장비)	-44.6	<2.1>	62.8	<3.7>
소비재	3.6	<16.8>	-0.4	<18.0>
총수입 <sup>1)</sup>	-6.0	[5,033]	-7.1	[4,676]

주: 1) [ ] 내는 수입금액(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서비스수지는 162억 달러 적자로 2019년보다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여행수지는 코로나19로 수입과 지급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지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가공서비스수지도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며 운송수지는 하반기 이후 컨테이너선 운임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흑자로 전환하였다.

그림 II - 16. 서비스수지



주: 1) 기타사업서비스수지,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등 여타 서비스수지 항목의 합계  
 자료: 한국은행

(5) 지역경제동향

권역별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에서 반도체 및 의약품 호조에 힘입어 증가한 반면, 다른 권역에서는 철강, 석유화학·정제 및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스포츠·여가, 운수·창고 및 숙박·음식 등이 부진하면서 모든 권역에서 감소하였다.

수요동향<sup>18)</sup>을 살펴보면 소매판매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소비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호남권, 충청권에서만 증가하였고 관광객 수가 급감한 제주권을 비롯하여 다른 권역에서는 감소하였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제조업 업황 악화 등으로 상반기에 큰 폭 하락한 후 개선되었으나 모든 권역에서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었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축착공면적이 수도권에서 상업용 건물 착공이 늘어난 데 힘입어 증가하였

18) 지역별 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동향을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 BSI, 건축착공면적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고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및 대경권에서는 주거용을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제주권에서는 큰 폭 감소하였다.

수출은 대부분의 권역에서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및 생산 차질로 인해 감소하였다. 특히 동남권과 호남권에서 석유화학·정제 등이 부진하면서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충청권 등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수가 대부분의 권역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농림수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호남권에서 2019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다른 권역에서는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큰 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 교육·통신 관련 정부정책에 따른 관련 서비스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모든 권역에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완화적인 금융여건 하에서 주택 수급 우려,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상승하였으며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개발호재가 더해져 큰 상승폭을 나타내었다. 반면 제주권에서는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 주택전세 가격은 제주권을 제외한 전 권역에서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다.

표 II - 8. 2020년 권역별<sup>1)</sup> 주요 지표<sup>P)</sup>

	수도	동남	충청	호남	대경	강원	제주
<b>생산</b>							
제조업생산지수 <sup>2)</sup>	6.9	-7.2	-3.3	-2.7	-7.8	-5.0	-5.2
서비스업생산지수 <sup>2)</sup>	-0.5	-3.2	-3.0	-1.6	-3.6	-4.9	-10.4
<b>수요</b>							
소매판매액지수 <sup>2)</sup>	-4.3	-1.3	0.8	1.7	-1.2	-0.7	-26.9
설비투자 BSI <sup>3)</sup>	90	83	87	86	75	87	91
건축착공면적 <sup>2)</sup>	18.2	7.2	16.1	3.4	9.7	0.0	-19.5
수출 <sup>4)</sup>	-2.6	-15.9	3.2	-11.1	-4.1	-3.1	3.9
<b>고용</b>							
취업자수 증가 <sup>5)</sup>	-9.9	-6.6	1.1	0.3	-4.7	-1.7	-0.4
실업률	4.2	4.1	3.6	2.8	4.0	3.9	2.5
<b>물가</b>							
CPI <sup>6)</sup>	0.6	0.4	0.5	0.6	0.2	0.6	0.4
주택매매가격 <sup>7)</sup>	6.5	4.8	8.3	2.3	3.4	2.0	-2.1
주택전세가격 <sup>7)</sup>	5.6	4.3	8.0	1.3	2.1	2.2	-1.6

주: 1)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설비투자 BSI는 서울 제외),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기준

2) 전년대비 증가율

3) 기준치=100

4) 통관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5) 전년대비 증가(만 명)

6) 전년대비 상승률

7) 전년말월대비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한국감정원



## 2. 금융·외환시장

영향으로 반락하여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 가. 국제금융시장

#### 장기금리 큰 폭 하락

2020년 중 미국 장기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이에 대응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및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조치<sup>19)</sup> 등의 영향으로 3월 중 대폭 하락하였다.<sup>20)</sup> 4~7월 중에는 경제활동 재개 등의 상승요인과 미·중 갈등<sup>21)</sup>,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하락요인이 교차하면서 등락하였다가 이후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 미 의회의 추가 경기부양책<sup>22)</sup> 및 코로나19 백신 기대<sup>23)</sup>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독일 장기금리는 미국 장기금리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등락하였다가 이후에는 유럽 지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강화,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강화 등으로 하락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신홍국의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가산금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3월 중 대폭 상승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코로나19 백신 기대 등의

표 II - 9. 주요국 국채금리 및 리스크 프리미엄

(기말 기준, %, bp)

	2019		2020		
	3월	6월	9월	12월	
국채금리(10년물)					
(미국)	1.92	0.67	0.66	0.68	0.91
(독일)	-0.19	-0.47	-0.45	-0.52	-0.57
리스크 프리미엄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sup>1)</sup>	195	394	290	271	222
(신홍국 CDS 프리미엄) <sup>2)</sup>	173	347	195	230	150
(신홍국 가산금리) <sup>3)</sup>	298	543	441	412	338

주: 1) 10년 만기 회사채(Baa등급) 수익률 기준

2) 18개 신홍국의 CDS 프리미엄을 가중 평균

3) JP Morgan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기준

자료: Bloomberg, JP Morgan, Markit

#### 글로벌 주가 큰 폭 하락 후 상승 전환

미국 주가지수(다우지수)는 2020년 1~2월 중 양호한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 발표 내용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sup>24)</sup>하였다가 3월 들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주요국의 이동제한조치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급락하였다. 이후 미 정부와 연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였으며 특히 11월 이후에는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해소, 추가 경기부양책 의회 통과, 코로나19 백신 승인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

19) 미 연준은 두 번의 비정례 FOMC 회의(3월 3일, 3월 15일)를 통해 정책금리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동일한 수준인 0.00~0.25%까지 인하하였다. 또한 국채 및 MBS 매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CP, MMF, 회사채, ABS 등에 대한 자산매입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출프로그램 등도 신설하였다.(3월 23일)

20) 다만 3월 10~19일 중에는 국제금융시장에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됨에 따라 미 달러화 유동성 확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시적으로 국채금리가 큰 폭(+60bp) 상승하였다.

21) 미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중국 책임 언급 및 신규 관세 부과 시사(4월 30일), 미 정부의 중국 화웨이사에 대한 규제 강화(5월 15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6월 30일), 미 의회의 중국 홍콩보안법 제정 관련 대중 제재 법안 통과(7월 2일) 등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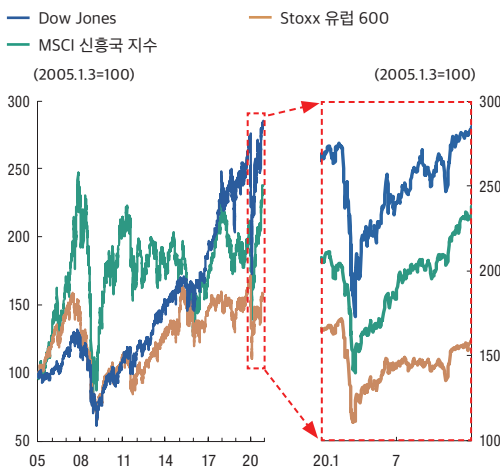
22) 미 의회는 3월 23일 약 2.2조 달러, 12월 21일 약 0.9조 달러 등 총 5차례의 경기부양책을 2020년 중 승인하였다.

23) 미 FDA는 Pfizer사(12월 11일), Moderna사(12월 18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하였다.

24) 미 다우지수는 2월 12일 29,551을 기록하였다.

치를 연이어 경신하였다<sup>25)</sup>. 유럽 주가(Stoxx 유럽 600)는 미 주가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유럽 주요국의 이동제한 조치 강화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전년 말 대비 4.0% 하락하였다. 신흥국 주가(MSCI 신흥국 지수)도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변화에 주로 영향받으면서 선진국 주가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였으나 10월 이후로는 글로벌 교역 개선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019년 말 대비 15.8% 상승하였다.

그림 II - 17. 주요 선진국 주가 및 MSCI 신흥국 지수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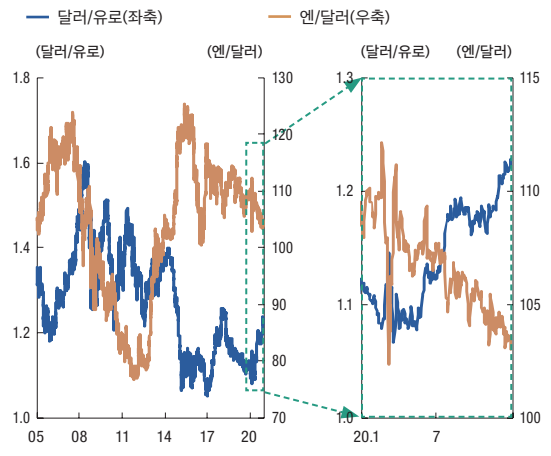
### 미 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 대비 약세

미 달러화는 2월 중순까지 양호한 미 경제지표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다가 이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등의 약세요인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의 강세요인이 엇갈리면서 급등락하였다. 5

월 이후로는 연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의 영향 등으로 약세로 전환되었으며,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경향이 지속되면서 약세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미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도 3월 중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주로 영향 받으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그림 II - 18.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 나. 국내금융시장

### (1) 금리

#### 국내 장기금리 하락

2020년 중 국고채(3년) 금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2019년 말 1.36% → 2020년 말 0.98%, -38bp). 기간별로 보면 3월 중 코로나19의 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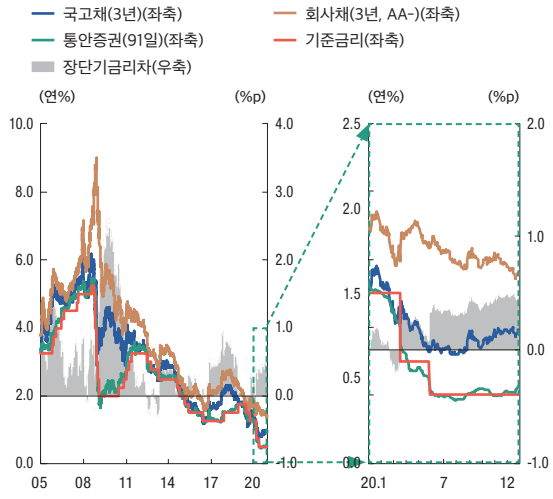
25) 미 다우지수는 2020년 말 30,606을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로 마감하였으며, 전년 대비 7.2% 상승하였다.(S&P500지수 및 NASDAQ지수도 전년 대비 각각 16.3%, 43.6% 상승하여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월, 5월 각각 -50bp, -25bp) 및 국고채 단순매입,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하향 안정되면서 8월 초순 사상 최저치(8월 5일 0.795%)를 기록하였다. 8월 중순 이후에는 미 경기부양 확대 기대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국내 4차 추경 및 2021년도 정부예산안 발표에 따른 국고채 수급불균형 우려 등으로 상당폭 반등하였다.

통화안정증권(91일) 금리는 3~5월 중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받아 큰 폭 하락한 후 대체로 기준금리 수준(0.50%)에서 등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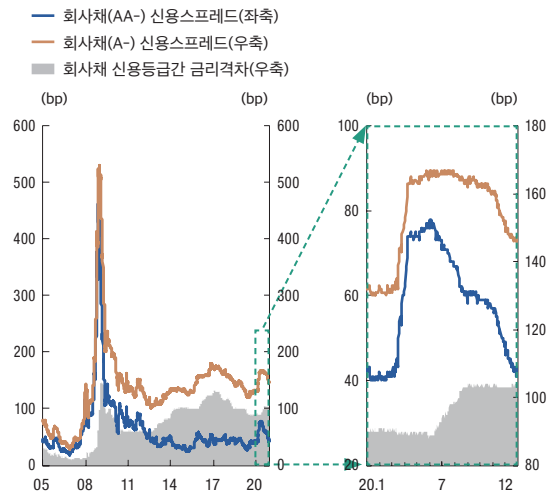
회사채(3년) 금리는 연간 기준으로는 하락하였으나 시기별로는 코로나19 및 정책대응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국고채 금리 대비)를 보면 3월 중 코로나19 충격으로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큰 폭으로 확대<sup>26)</sup>되었다. 그러나 7월 이후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대책 등에 힘입어 축소세로 전환되었으며 11월 이후에는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 시작, 국내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통한 비우량물 지원 지속 등으로 우량물(AA-) 뿐만 아니라 비우량물(A-)도 빠르게 축소되었다. 2020년 말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우량물(41bp)이 2019년 말 수준(42bp)으로 축소되었으며, 비우량물(146bp)의 경우 코로나19 충격 직후의 최고 수준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2019년 말 수준(132bp)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 II - 19. 주요 시장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sup>1)</sup>



주: 1) 국고채(3년) 금리 - 기준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그림 II - 20. 회사채 신용스프레드<sup>1)</sup> 및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sup>2)</sup>



주: 1) 국고채(3년) 금리 대비  
 2) 회사채(3년, A-) 금리 - 회사채(3년, AA-) 금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26)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되었던 데 비하면 금번 확대폭은 매우 제한적인 편이다.

## 은행 여수신금리 하락

은행 여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2020년 12월 여신금리는 2.74%로 2019년 12월(3.22%)에 비해 0.48% 포인트 하락하였다. 여신종별로 보면 기업대출금리는 2020년 12월 중 2.73%로 0.63% 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금리는 2.79%로 하락폭이 0.19% 포인트에 그쳤다.<sup>27)</sup> 2020년 12월 수신금리는 0.90%로 2019년 12월(1.6%)에 비해 0.70% 포인트 하락하였다. 여신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여수신금리차는 확대되었다.

그림 II - 21. 은행 여수신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 (2) 주가

### 코스피 급락 후 큰 폭 상승

코스피는 국내외 코로나19 전개양상에 주로 영향 받으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기간별로 보면 연초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2월 중순 들어 코로나19 확산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직전 고점 대비 35.0%<sup>28)</sup> 급락하여 글로벌 금융위기<sup>29)</sup>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3월 하순 이후에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로 큰 폭 반등하였다. 특히 11월 이후 미 정치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 백신공급 진전 및 주요 기업실적 개선 전망 강화 등으로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져 코로나 이전 최고치를 경신하며 2019년 말 대비 30.8% 상승한 2,873으로 마감하였다.

코스닥도 코로나19 사태에 크게 영향받아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며 2019년 말 대비 44.6% 상승한 980으로 마감하였다.

27) 이는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지표금리인 장기 은행채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데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노력이 더해진 데 주로 기인한다.

28) 2020년 2월 14일 2,244에서 3월 19일 1,458을 기록하여 1개월 만에 35.0% 하락하였다.

29)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5개월에 걸쳐 50.3%(2008년 5월 16일 1,889에서 10월 24일 939) 하락하였다.

그림 II- 22. 코스피 및 코스닥지수



자료: 코스콤

### (3) 금융기관 여수신

#### 은행 수신 큰 폭 확대

은행 수신은 2019년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예비자금 확보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전년대비 3배가량 확대되었다. 반면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하락, 예대율 및 LCR 규제 완화에 따른 은행의 정기예금 유치 유인 축소 등에 기인하여 감소로 전환하였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MMF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직접투자 증가, 신용증권에 대한 시장 경계감 확대 등으로 감소로 전환하였다. 또한 기타펀드는 2019년 중 일부 사모펀드 손실 및 환매중단 사태,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으로 증가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신용협동기구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대체로 2019년과 비슷한 증가 규모를

나타내었다.

표 II- 10. 주요 금융기관 수신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조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은행 수신 <sup>1)</sup>	80.8	79.5	91.6	106.3	188.4
수시입출식	60.2	34.0	10.9	65.9	189.3
정기예금	19.4	28.8	72.2	48.3	-14.4
시장성수신 <sup>2)</sup>	3.9	17.7	7.8	-14.6	14.6
자산운용회사	47.6	27.9	53.8	98.6	42.2
MMF	10.9	-7.0	-7.7	15.2	21.0
주식형펀드	-7.7	4.2	7.3	2.5	-10.0
채권형펀드	18.7	-8.6	6.4	15.7	-0.4
기타펀드 <sup>3)</sup>	29.6	45.3	48.3	68.0	33.4
상호저축은행	6.6	6.9	8.6	6.1	13.2
신용협동기구 <sup>4)</sup>	35.3	44.6	39.7	60.7	50.1

주: 1) 은행·중앙정부·비거주자 예금 제외 기준

2) CD, RP, 표지어음, 은행채

3)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

4)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큰 폭 확대

2020년 중 기업대출은 2019년보다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은행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 증대 및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중소기업대출도 정부 및 은행의 금융지원 등에 힘입어 큰 폭 증가하였다. 비은행 기업대출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큰 폭 확대되었다. 예금은행과 기타금융기관 등은 증가 규모가 2019년보다 크게 확대되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증가로 전환하였다.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주택자금수요에 생활자금 및 주식

투자 관련 자금수요가 더해지면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기타대출도 생활·사업자금용 대출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기타금융기관 등도 주택거래 및 주식투자 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표 II - 11. 금융기관 대출 (기간 중 증감액 기준)

(조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업대출	43.1	72.2	81.8	90.2	169.6
은행					
대기업	-9.9	-3.7	6.9	-1.8	20.9
중소기업	33.8	44.0	39.8	49.4	90.0
비은행 <sup>1)</sup>	19.3	31.8	35.1	42.5	58.8
가계대출 <sup>2)</sup>	131.9	100.0	76.8	57.9	125.6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40.8	21.6	30.1	39.7	49.9
(기타대출)	12.9	21.6	22.4	14.9	32.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sup>3)</sup>	42.6	22.6	6.8	-4.5	7.6
(주택담보대출)	14.2	10.8	-3.9	-10.4	-4.0
(기타대출)	28.4	11.8	10.7	6.0	11.6
기타금융기관 등 <sup>4)</sup>	35.5	34.1	17.5	7.8	35.9

주: 1)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기준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탁, 우체국예금

4) 보험회사,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4) 외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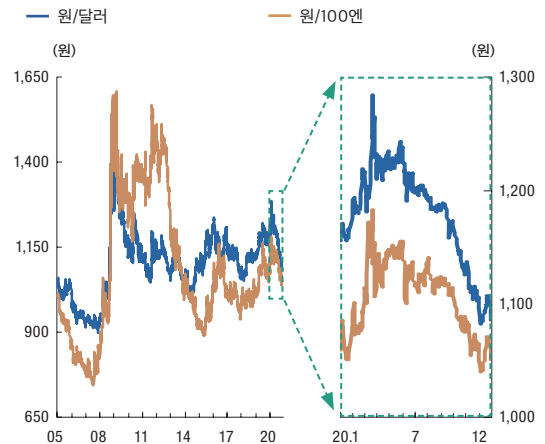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 급등 후 하락세 지속

원/달러 환율은 3월 들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심화, 미 달러화 수요 급증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285.7원<sup>30)</sup>까지 상승하였다가 미 연준과의 통

화스왑계약 체결 및 동 자금을 활용한 외화유동성 공급, 주요국의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빠르게 하락하였다. 이후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6월 중에는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완화, 9~10월 중에는 양호한 국내 경제지표, 중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에 따른 위안화 강세, 11월 이후에는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해소, 추가 경기부양책 및 코로나19 백신 기대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2020년 말 원/달러 환율은 1,086.3원으로 2019년 말 대비 6.1% 하락하였다.

한편 원/엔 환율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백신 개발 기대, 미·중 갈등 관련 소식, 미 추가 경기부양책 논의 및 대선 전개 양상 등에 따른 투자심리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원/달러 환율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2020년 말 원/엔 환율(100엔당)은 1,051.1원(하나은행 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으로 2019년 말(1,059.6원) 대비 0.8% 하락하였다.

그림 II - 23. 원/달러 및 원/엔 환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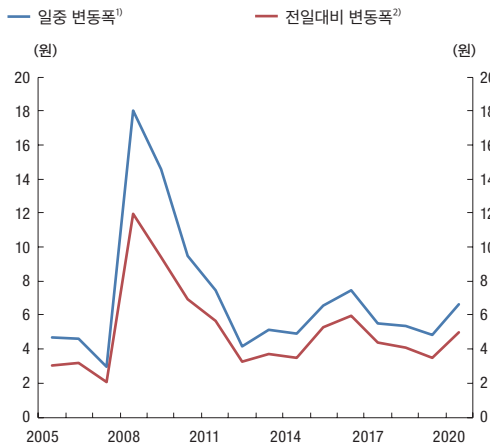
주: 1) 원/달러는 서울외환시장 종가, 원/100엔은 하나은행 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하나은행

30) 2009년 7월 14일 1,293.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0년 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및 전일대비 변동폭은 3월 중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함에 따라<sup>31)</sup> 각각 일평균 6.6원 및 5.0원으로 2019년(각각 4.9원 및 3.5원) 대비 확대되었다.

그림 II - 24. 원/달러 환율 변동폭



주: 1) 일중 변동폭(당일 최고가 - 당일 최저가)의 평균  
2) 전일대비 변동폭(당일 증가 - 전일 증가) 절대값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큰 폭 하락 후 상승

외환스왑레이트<sup>32)</sup>(3개월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험회피심리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증권사 등의 단기 외화자금 수요가 급증<sup>33)</sup>함에 따라 3월 중 큰 폭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sup>34)</sup>를 기록하였다. 이후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실시, 내외금리차 플러스 전환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sup>35)</sup> 2020년 말에는 2019년 말 대비 0.88% 포인트 상승한 -0.04%를 기록하였다.

통화스왑금리<sup>36)</sup>(3년물)는 국고채 등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위험회피심리 강화, 스왑레이트 급락 등으로 3월 중 큰 폭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하반기에는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국고채 금리 반등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2020년 말에는 2019년 말 대비 0.41% 포인트 하락한 0.31%를 기록하였다.

31)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은 2020년 3월 19일 49.9원으로 유럽 재정위기 이후(2011년 10월 4일 100.7원) 최고치를, 전일대비 변동폭은 2020년 3월 19일 40.0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년 4월 30일 58.7) 최고치를 각각 기록하였다.

32) 외환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가 현재의 계약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이다. 외환스왑레이트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이다.

33) 글로벌 주가 급락에 따라 해외주가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ELS) 발행 증권사들의 해외선물 증거금 납입(마진콜) 목적의 외화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34) 2020년 3월 24일 -2.98%를 기록하며 2008년 12월 24일(-3.38%)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35) 다만 12월 중에는 연말요인 등으로 외환스왑레이트가 일시적으로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36) 통화스왑은 양측 거래 당사자 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한다는 점에서 외환스왑과 유사하지만 만기가 주로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 동안 이자를 교환한다는 점, 최초 교환 시 및 만기 시 교환 원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이 다르다. 통화스왑금리는 리보 금리와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를 말한다.

그림 II - 25. 외환스왑레이트 및 통화스왑금리



자료: 한국은행, 한국자금융개(주), 한국 톨렛프레본 외국환중개(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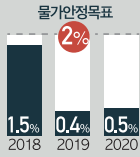
# Ⅲ

## 업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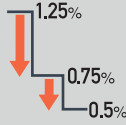
1. 중기전략	35
2. 통화신용정책	36
3. 금융안정	45
4. 발권	53
5. 지급결제	58
6. 외환 및 국제협력	63
7. 조사통계	71
8. 국고 및 증권	78
9. 대외 커뮤니케이션	84

# 2020 한국은행

## 통화신용정책 수행



물가안정목표 운용상황 점검  
(6월 · 12월)



기준금리 인하  
(3월 ·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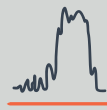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 유동성 공급

전액공급방식 RP 매입,  
비은행 RP 매입 등



### 국채 · 회사채 · CP 시장 안정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도입(10조 원)  
국고채 매입(11조 원), 회사채 · CP 매입규모 대출 등

## 금융안정 책무 수행



### 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금융안정점검회의 개최



### 외환시장 안정

한미 통화스왑 체결(600억 달러)  
경쟁입찰을 통한 외화 대출(198.7억 달러) 등



### 비상대응체제 가동

긴급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등 개최

## 조사연구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다양한 조사연구 수행



### 대국민 비대면 소통 활성화

소셜미디어 활성화  
디지털 화폐 박물관 개설 등



BIS 이사국 활동 등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 적극 참여

화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연구 교류

# 1. 중기전략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설립 목적을 완수하고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중앙은행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 수행 목표와 우선순위 등을 부여한 3년 시계의 중기전략을 매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동 전략과 연계하여 해당 연도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중기전략은 주요 업무 분야별로 9개의 전략목표와 35개의 전략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각 절에는 각 업무 분야별로 전략계획과 연계된 주요 사업 내용과 성과 등이 기술되어 있다.

표 III - 1. 2020년 중기전략 목표 및 계획

<b>1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b>	최적 통화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효과 분석 고도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통화정책 운영체제 및 정책수단의 유효성 제고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b>2 금융안정을 위한 효과적 정책 수행</b>	금융안정상황 점검 및 정책대안 제시 기능 강화 금융안정 분석·연구 및 대외협력 강화 글로벌 금융규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b>3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도모</b>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도모 및 충격대응능력 제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현안 분석 강화 금융안전망 확충
<b>4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b>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도모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및 정책기능 강화
<b>5 경제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및 통계 확충</b>	경제분석 및 예측의 정도 제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 새로운국제 통계기준의 안정적인 이행과 정착 경제전망 및 분석에 유용한 통계의 개발 및 확충 대국민 통계 서비스 제고 대내외 연구교류 강화
<b>6 외화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b>	외화자산의 안정적 운용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투자전략 도모 외화자산 운용역량 강화
<b>7 화폐의 원활한 공급 및 신뢰 제고</b>	화폐수급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화폐 공급 및 관리 체계 구축 위·변조방지장치 조사연구 및 위폐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화폐·발권제도 및 화폐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b>8 대국민소통및국제협력강화</b>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경제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국제회의체,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의 정책협력·교류 강화
<b>9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 운영</b>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리스크 관리 내실화 및 위기대응역량 강화 직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제고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력운용 체계 강화 보수·복지 제도의 합리적 정비 근무인프라의 개선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유의 활성화 IT서비스 확충 및 고도화

자료: 한국은행

## 2. 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 체계 하에서도 정책결정은 물가상황 외에 경제성장,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여수신제도,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등 금리 이외 정책수단도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2020년 중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출 지원제도와 시장안정 조치를 도입하였다.

### 가. 물가안정목표

한국은행은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로 설정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에는 목표수준을 종전(2016~18년)과 동일하게 2%로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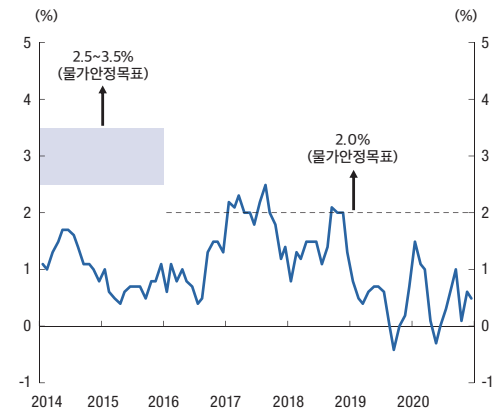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2020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낮은 오름세를 보여 2019년에 이어 물가안정목

표를 상당폭 하회하였다.

한국은행은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연 4회 발간, 국회 요구 시 총재의 국회 출석 및 답변 등을 통해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상황 전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한편 2020년에는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sup>37)</sup>하였으며, 그 결과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을 다음 점검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III-1. 물가안정목표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나.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2020년 중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확대하였다.<sup>38)</sup>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37)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2018년 12월) 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3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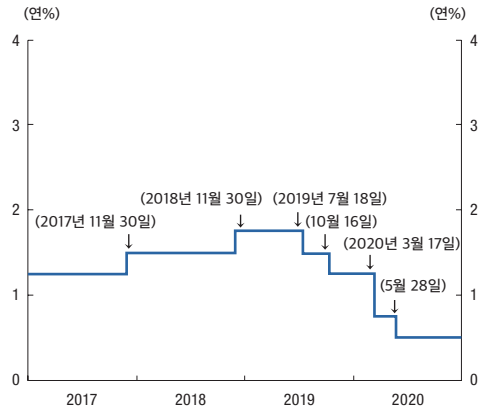
확산에 따른 급격한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75% 포인트 인하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였다.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3월에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인하하였다. 정책효과 면에서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등을 고려할 때 정례회의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임시회의를 통해 즉각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어 5월에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하하였다.

하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 및 그간 취해진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의 파급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으로 대체로 원활히 파급되었으며 금융상황 개선을 통해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악화 간 부정적 피드백을 방지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으로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득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에서도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풀림이 심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

그림 III- 2.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 다. 여수신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수신업무를 수행한다. 2020년 중 운용한 여수신업무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으며, 수신업무로는 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및 통화안정계정예치금 등이 있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원화대출금은 2020년 말 34조 2,723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8조 7,039억 원 증가하였다.

표 III- 2. 한국은행 원화대출금<sup>1)</sup> (기말 기준)

	잔액		증감액
	2019	2020	
금융중개지원대출	155,684	325,123	169,439
회사채·CP 매입기구 (SPV <sup>2)</sup> )에 대한 대출	-	17,600	17,600
합계	155,684	342,723	187,039

주: 1) 대정부대출금 제외

2)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자료: 한국은행

예수금은 2020년 말 156조 5,959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3조 503억 원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원화예수금이 12조 7,942억 원 증가하고 외화예수금이 10조 2,561억 원 증가하였다.

표 III - 3. 한국은행 예수금 (기말 기준)

	잔액		증감액
	2019	2020	
원화예수금	742,548	870,490	127,942
금융기관	697,229	833,391	136,162
비거주자 <sup>1)</sup>	45,319	37,099	-8,220
외화예수금	592,908	695,469	102,561
합계	1,335,456	1,565,959	230,503

주: 1) IMF 등 외국기관의 원화예금  
자료: 한국은행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강화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2020년 중세 차례에 걸쳐 기존 2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18조 원 증액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월 9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5조 원 증액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 한도를 활용하여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1조 원 증액하였다. 3월 19일부터

는 피해범위 확산에 대응하여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sup>39)</sup>하는 한편 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sup>40)</sup>하였다. 이후에도 피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5월 18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5조 원 추가 증액하였다.

10월 5일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 원을 신규 지원<sup>41)</sup>하는 한편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운용 한도를 10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3조 원 증액하고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sup>42)</sup>하였다. 아울러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설비투자 지원<sup>43)</sup> 규모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2조 원 확대하고 운용기한을 1년 연장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유인 제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 등을 위해 3월 17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하였다.

한도 증액을 반영한 2020년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43.0조 원이며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2.5조 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3.0조 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5.5조 원,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5.9조 원, 한도유보분 16.1조 원이다.

39) 종전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행업, 여가업 및 운수업에서 서비스업 전체(일부 사행성 업종 등 제외)로 확대하였다.

40) 은행의 자영업자 및 저신용(6~10등급)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대한 한국은행 지원 비율을 50%에서 75~100%로 상향하였다.

41)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2021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의 100%를 지원한다.

42) 이에 따라 운용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이 종전 2020년 9월 말에서 2021년 3월 말까지로 변경되었다.

43) 2019년 10월 1일부터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3조 원 규모로 1년 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III- 4.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조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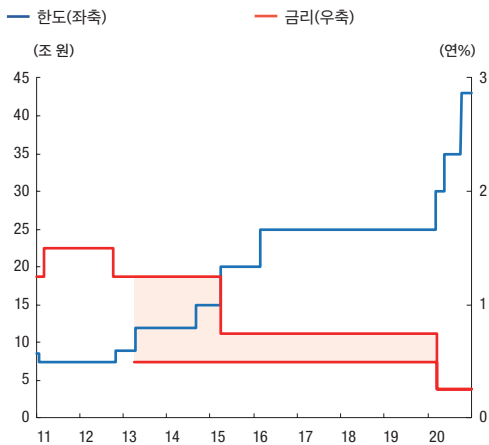
(조 원, 연%)

프로그램	한도		금리 <sup>1)</sup>	
	조정전	조정후		
무역금융지원	2.5	2.5	0.25	
신성장·일자리지원	10.0	13.0	0.25	
중소기업대출안정화 <sup>2)</sup>	6.5	5.5	0.25	
지방중소기업지원	5.9	5.9	0.25	
한도 유보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	13.0	0.25
	소상공인 지원	-	3.0	0.25
	기타	0.1	0.1	0.25
합 계	25.0	43.0	-	

주: 1) 2020년 말 기준

2) 기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기취급 잔액 등을 포함하여 지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 3.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특별대출 등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도모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및 기업 등의 자금조달 애로에 대응하여 대출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하고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설립하고 동 SPV에 대출을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 제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sup>44)</sup>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표 III- 5.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출 적격담보증권	비고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추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3개 특수은행채 <sup>1)</sup> 일반 은행채(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 채권 포함), 9개 공공기관 <sup>2)</sup> 발행채권	- 2021년 3월 31일까지 유효

주: 1)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sup>45)</sup>하여 5월 4일부터 시행<sup>46)</sup>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업의 신용증권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과 협력하여 7월 14일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설립<sup>47)</sup>하고 7월 23일 SPV에 1.78조 원 규모

44) 단,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은 4월 14일부터 적격담보증권에 추가되었다.

45) 대출금리는 통화안정증권 182일물 금리에 85bp를 가산한 금리이며 대출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의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 대출한도는 10조 원이다.

46) 동 제도의 운용기한은 종전 2020년 8월 3일에서 3개월 단위로 2차례 연장(2020년 11월 3일 → 2021년 2월 3일)되었다.

47) 한국은행의 선순위대출 8조 원, 산업은행(정부)의 출자 1조 원, 산업은행 후순위 대출 1조 원을 통해 10조 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필요시 최대 20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로 대출을 실시하였다. SPV는 한국은행 대출금과 산업은행의 출자 및 후순위 대출 1.22조 원 등 총 3조 원 규모<sup>48)</sup>로 대출 재원을 조성하여 7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채·CP를 매입하였으며 2020년 말 현재 매입 규모는 2.5조 원 수준이다.

표 III - 6. SPV의 신용등급별 회사채·CP 매입 현황<sup>1)2)</sup>

(억 원, %)

신용등급 <sup>3)</sup>	금액	비중
AA(A1)	5,400	21.9
A(A2)	13,551	54.8
BBB(A3)	5,760	23.3
합계	24,711	100.0

주: 1) 2020년 12월 말 기준

2) 액면금액 기준

3) ( ) 내는 CP 신용등급

자료: 한국은행

## 라.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콜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 다양한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액공급방식 RP매입,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유동성 공급경로를 확충하였다.

### 신축적인 유동성조절 및 제도개선

2020년 중 유동성조절 필요규모(평잔 기준)

는 180조 6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6조 6천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화폐발행 증가 등으로 지준공급이 감소한 데다 수시입출식 예금이 증가하면서 지준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한국은행은 이에 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RP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는 지준 수급 변동 등 단기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그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하였다.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평잔 기준) 및 RP(순)매각규모(RP 매각에서 매입을 차감한 순액, 평잔 기준)는 유동성조절 필요규모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각각 5조 원, 2조 5천억 원 축소되었다. RP(순)매각규모 감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3월 중에 실시한 비정례 RP매입과 4~7월 중 실시된 전액공급방식 RP매입 등으로 RP매입이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통화안정계정 예치규모(평잔 기준)는 9천억 원 증가하였다.

표 III - 7.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잔 기준)

(조 원)

	2019	2020				
	연간	I	II	III	IV	
유동성조절필요규모	187.2	180.6	180.0	179.6	181.9	180.8
통화안정증권	168.1	163.1	161.6	164.0	166.4	160.3
RP(순)매각잔액	10.5	8.0	11.6	2.2	6.2	11.7
RP매각	10.6	13.0	12.1	14.5	13.1	12.2
RP매입	0.1	5.0	0.5	12.3	6.8	0.5
통화안정계정	8.7	9.5	6.7	13.4	9.3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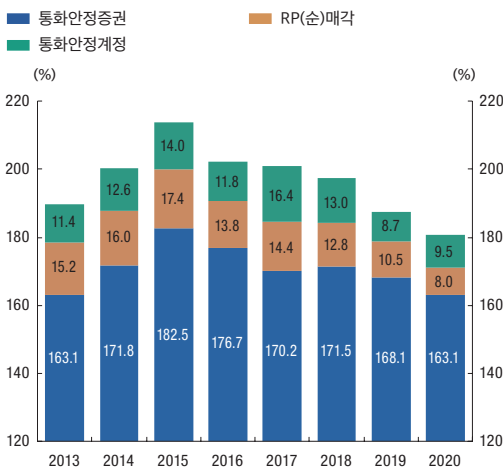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48) SPV의 재원 조달은 4차례에 걸쳐 capital call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1차로 3조 원이 조달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개시장운영 수단에서 통화안정증권과 통화안정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중 89.8%, 4.6%에서 2020년 중 90.3%, 5.3%로 각각 확대된 반면 RP(순)매각 비중은 2019년 중 5.6%에서 2020년 중 4.4%로 축소되었다.

한편 10월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을 계기로 공개시장운영 입찰 참가기관들에게 입찰마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입찰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아울러 12월에는 유동성조절 필요규모의 추세적 감소 전망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신속적이고 효율적인 공개시장운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분기별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의결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다.

그림 III- 4.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잔 기준)



주: 1)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763억 원(2014년 발행, 2015년 상환)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487억 원(2015년 발행, 2016년 상환) 제외

자료: 한국은행

##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도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2020년 3월 중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비은행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확대 공급할 필요가 커졌다. 특히 한국은행은 3월 하순에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의 자금수요 급증, 분기말 자금수급 불일치 등으로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비정례 RP매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총 3조 5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sup>49)</sup>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 및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전액공급방식의 정례 RP매입」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매주 1회 91일물 RP매입 입찰을 통해 고정금리로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 전액을 한도 제약 없이 지원하는 제도인데 4월부터 7월까지<sup>50)</sup> 총 19조 4천 3백억 원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 확대조치로 인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사정이 개선되고 장단기 시장금리도 안정세를 회복하였다.

## 유동성 공급경로 확충

한국은행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확대하였다.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RP매매 대상기관이 아닌 증권사 중 7개 통화안정증권매매 대상기

49) 주로 증권사 및 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3월 19일 1조 원, 3월 24일 2.5조 원의 RP매입을 실시하였다.

50) 최초 도입시에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전액공급방식 RP매입의 만기도래분이 일시 상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료시점을 7월 말까지 연장하였다.

관 및 4개 국고채 전문딜러를 대상기관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RP매매 대상기관은 기존의 22개에서 33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되었다<sup>51)</sup>.

또한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확충할 목적으로 4월에는 1년 간 한시적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으로 한정되어 있던 RP매매 대상증권에 3개 특수은행채<sup>52)</sup>, 일반은행채<sup>53)</sup> 및 9개 공공기관<sup>54)</sup> 발행 특수채를 추가하였다. 또한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는 기존의 국채, 정부보증채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 및 3개 특수은행채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조치는 전액공급방식 RP매입 등을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금융불안 재발 시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채 등 무위험 채권 외에 은행채 등 신용증권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 국고채 단순매입 실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국고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RP매각 대상증권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였다. 3월부터 8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6조 원 규모의 단

순매입을 실시한 데 이어 9월에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급 관련 국고채 발행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 및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9월부터 연말까지 총 5조 원 내외의 국고채를 유통시장을 통해 매입할 계획임을 시장에 사전 공표하는 것이었다. 동 계획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5조 원 규모로 국고채를 단순매입함으로써 2020년 중 국고채 누적 매입 규모는 총 11조 원에 달하였다.

##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통화정책 운영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2019년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례적(연 2회)으로 점검하기로 함에 따라, 6월과 12월 두 차례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물가 상황, 전망 및 리스크 요인, 향후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매 분기 발행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코로나19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영상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안정 책무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제고하는 방향<sup>55)</sup>으로 최근의 정책수행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통화신용

51) 해당조치는 매년 8월 공개시장대상기관이 신규로 선정되기 때문에 일단 7월 말까지 유효하였다. 7월 말 발표된 신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유효)에서도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기관은 전년(2019년 7월 말 선정 기준)의 22개 기관에서 1개 국내은행 및 4개 비은행금융기관이 추가되어 총 27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52)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53) 농업금융채권 및 수산금융채권 포함

54)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저축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55)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정책수행을 반영하여 금융안정 관련 문구를 수정하였다.

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수정하였다.

정책 및 업무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외 커뮤니케이션 패널을 확충하였다. 2019년 50명 수준에 머물던 패널 수를 2020년 11월까지 200명으로 점차 확대하였으며 기존의 학계, 연구소, 금융기관 전문가에 기업 및 산업계, 언론계 인사를 추가 하는 등 패널 구성을 다각화하였다. 확충된 대외커뮤니케이션 패널을 통해 통화정책방향 결정, 주요 보고서, 정책 및 업무 운영 등에 대한 외부의견을 시의성 있게 수렴하여 정책 수립과 업무개선에 반영하였다.

금융통화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던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나 지역기업 간담회 등의 활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되었지만, 대학생, 기업체 임직원,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 참고 III-1.

### 한국은행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

안 및 실물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기존 금리를 인하하고 피해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단기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실시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분석하고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글로벌 협력 및 대외소통을 강화하였다.

표 III - 8. 한국은행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조치

(2020년 말 기준)

구분	대응조치	주요 내용	
통화 신용 정책	기준금리인하	■ 1.25% → 0.50%(0.75%p)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등	■ 한도 확대 : 25조 원 → 43조 원(+18조 원) ■ 대출금리 인하 : 0.5%~0.75% → 0.25%	
	유동성 공급	전액공급방식 RP 매입	■ 공급실적 총 19.43조 원(7월 말 종료)
		비은행 대상 RP 매입	■ 공급실적 : 총 3.5조 원(3월 19일 1.0조원, 3월 24일 2.5조 원)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하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및 증권 확대	■ RP매매 대상기관 확대(7월 말 종료) ■ 단순매매 및 RP매매 대상 증권 확대
	국채 및 회사채·CP 시장 안정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도입	■ 총 한도 : 10조 원(운용기한 : 2021년 2월 3일) ■ 대출 담보 : 일반기업 발행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AA-이상) 회사채
		회사채·CP 매입기구를 통한 신용시장 지원	■ 규모 : 10조 원(시장상황에 따라 20조 원까지 확대) ■ SPV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금액 : 1.78 조원
		국고채 단순매입	■ 매입실적 : 총 11조 원(3월·4월·7월·8월 각 1.5조 원, 9월 2.0조 원, 10월·11월 각 1.5조원)
	거시건전성 분석 평가	■ 가계·기업의 여신 및 유동성 상황 점검 ■ 코로나19 금융지원의 효과 및 리스크 점검	
금융 안정	외환시장 안정	통화스왑 체결 및 갱신	■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만기 : 2021년 9월말) ■ 중국(약 590억 달러) 및 호주(81억 달러) 중앙은행 등과의 통화스왑 확대 및 연장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 총 198.72억 달러 공급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 국내은행(40% → 50%) 및 외은지점(200% → 250%)
		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감	■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에 대해 3개월(2020년 4~6월) 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기간 제외 등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 금융회사의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 자금을 공급 ■ 대상 채권 : 미 국채(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으로 확대)	
발권	화폐 수요 변화 대응	■ 오만원권 발주량 확대	
	화폐를 통한 감염 차단	■ 최소 2주간 금고내 보관 후 정사	
지급 결제	금융기관 담보여력 확충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용 인하(70% → 50%)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확대	
외환 및 국제협력	외화자산 유동성 및 안정성 제고	■ 외화자산의 안정성 및 유동성 점검 ■ 외화자산 운용의 연속성 확보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 적극 참여	■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14회), IMF·세계은행 회의(2회) 참여 ■ 정부와 공동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정례 4회 + 특별 3회),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1회) 등 참여	
조사 통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분석	■ 세계교역, 생산, 소비, 수출, 고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을 분석	
	화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연구 교류 지속	■ Annual Meeting of the CERA, FMA Annual Meeting 참여, 한·일 공동 리서치 워크숍 개최 등	
대외 커뮤니케 이션	비대면 소통 확대	■ 홈페이지 코로나19 정책대응 게시판 신설, 소셜미디어 활성화, 기자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등 ■ 디지털 화폐박물관 개설	

자료: 한국은행

### 3. 금융안정

#### 가. 거시건전성 분석·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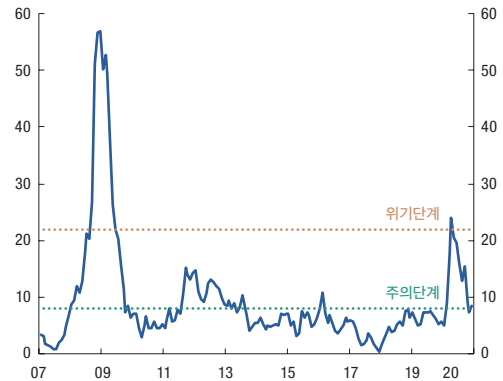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대응하여 가계 및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재무건전성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동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과 복원력을 점검하였다.

#### 금융안정상황 점검<sup>56)</sup>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3월 들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신용경계감이 확산되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을 회복하였다.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계 및 기업 모두 차입을 크게 늘리면서 민간신용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 및 실적 부진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저하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sup>57)</sup>(FSI, Financial

Stability Index)는 4월 위기 단계에 일시 진입하였다가 하락세를 지속하여 2020년 12월 말 현재 주의단계 임계치(8.0)를 소폭 상회하고 있다.

그림 III- 5. 금융안정지수(F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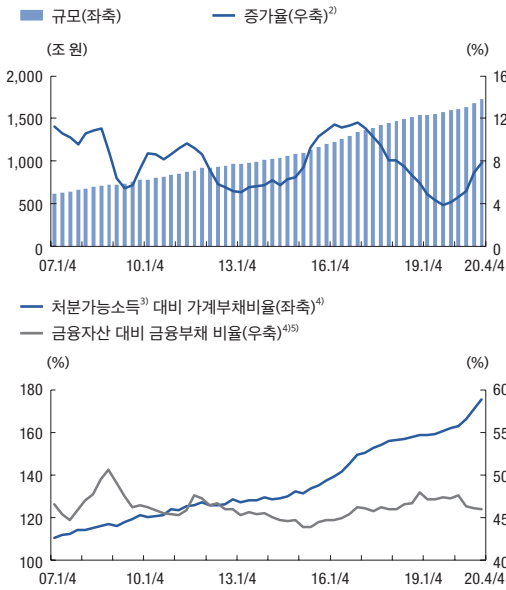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 신용/명목GDP 비율은 2020년말 215.5%(추정치)로 전년동기대비 18.4% 포인트 상승하는 등 큰 폭 증가하였다. 민간신용의 증가율이 가계 및 기업부문 모두 크게 확대된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명목GDP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되었다. 가계신용은 주택거래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경기부진 지속 등으로 소득증가율이 정체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증대되었다. 다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하락하는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56)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상황을 매분기 점검하는 금융안정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회의의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당일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6월 및 12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심의·의결한 당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57)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6개 부문(은행, 금융시장, 대외, 실물경제, 가계, 기업)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로, 금융안정 상황을 정상, 주의, 위기 단계로 구분하며 주의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위기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낸다.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는 '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8과 22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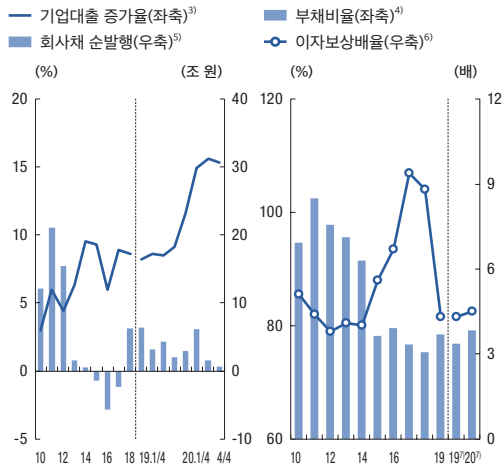
그림 III- 6. 가계신용<sup>1)</sup>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분기 자료는 추정치  
 4) 20년 4/4분기는 추정치  
 5) 자금순환통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기업신용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 조치, 기업들의 자금확보 노력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하되었다.

그림 III- 7. 기업신용<sup>1)</sup> 및 재무건전성<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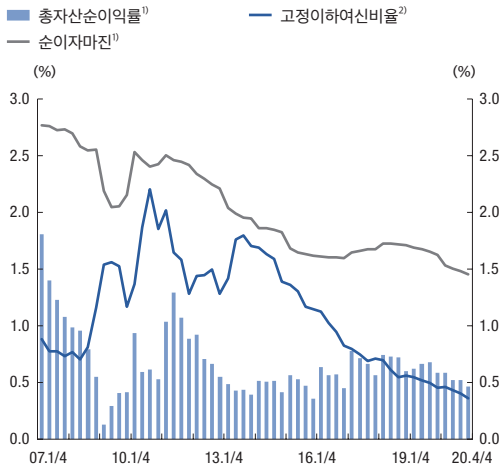


주: 1) 예금은행(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기업(금융 및 보험업 제외)대출 기준  
 2) 사업보고서 공시 상장기업, 일부 비상장기업 등 총 2,248개 기업 대상  
 3) 전년동기대비 기준  
 4) 부채/자기자본, 기말기준  
 5) 분기 중 기준(19년 이후)  
 6) 영업이익/이자비용  
 7) 각년도 3/4분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KIS-Value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의 경영상황은 자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수익성도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소폭 저하되었으나, 자산건전성이 개선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자산 성장세가 지속된 가운데 대부분의 업권에서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경영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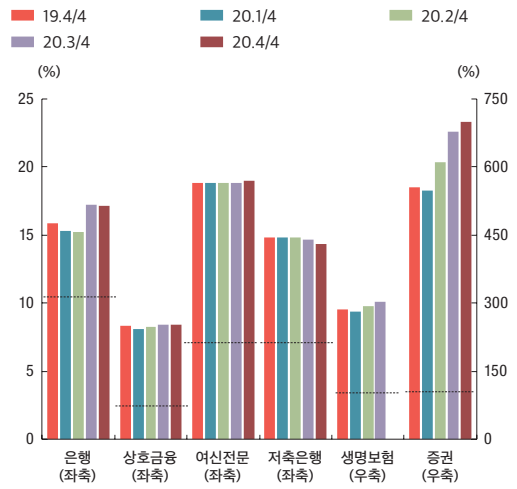
그림 III- 8.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2) 기말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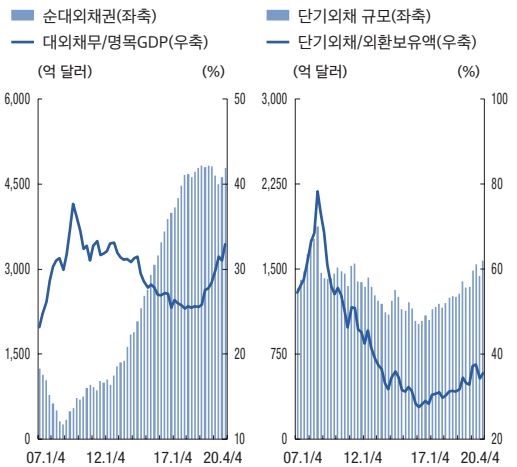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일반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바젤Ⅲ 개편안 조기 도입 등으로 상승한 가운데 유동성 대응능력도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권에서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금융불균형이 조정되는 예외적인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금융업권별 평균 자본비율이 모든 업권에서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충격에 취약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의 부실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외지급능력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시 저하되었으나 외환보유액이 큰 폭 증가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그림 III- 9. 금융기관<sup>1)</sup> 자본비율<sup>2)3)</sup>



주: 1) 은행은 일반은행 기준, 20년 4/4분기는 잠정치  
2) 은행 총자본비율(10.5%, D-SIB은 11.5%), 상호금융조합 순자본비율(감독기준 2%, 새마을금고는 4%, 농협은 5%), 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7%, 신용카드회사는 8%), 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7%,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은 8%),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100%), 증권회사 순자본비율(100%)  
3) 점선은 감독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그림 III- 10.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sup>1)</sup> 및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sup>1)</sup>



주: 1) 분기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앞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 등 국내외 불안요인에 유의하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간의 레버리지가 높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차별적인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가계 및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과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변화에 따른 자산가격의 조정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증대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 공동검사 수행 및 국내외 금융안정 현안 논의 참여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스템 내 누적된 잠재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가계 및 기업 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급증한 가계 및 기업 여신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관리 실태와 경영건전성을 점검하였으며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에 의한 가계부채 누증 위험, 부동산 관련 대출부실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겪은 가계, 기업의 유동성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시된 대규모 금융지원의 효과와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였다. 한편 한국신용정보원과 업무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전 금융권 기업대출 미시데이터 DB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상시감시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III-9.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회)

	2016	2017	2018	2019	2020 <sup>1)</sup>
부문검사	3	4	3	4	-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	3	2	2	2	2

주: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1~9월중 공동검사를 중단

자료: 한국은행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은행감독 실무그룹 회원기관으로서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 회원국 은행감독국장 회의 등에 참여하여 역내 금융안정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sup>58)</sup>(Supervisory College)에 참석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은행의 글로벌 경영전략 변화 및 성과,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논의하고 이를 국내은행 공동검사업무 수행에 활용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관계기관 간 「거시경제금융회의<sup>59)</sup>」, 「가계부채관리협의체」 등에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등이 국내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정보공유 및 정책협력을 위해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먼저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회원기관으로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고 정책대응 상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핀테크, 암호자산,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금융

58)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본점 소재국과 진출국 금융당국자들이 참가하는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이다.

59)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2012년 7월에 신설되어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다.

안정 리스크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후 관련 금융리스크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 간 논의체인 녹색금융네트워크(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sup>60)</sup> 산하 연구그룹에도 참여하였다.

이 밖에도 FSB 산하 아시아 지역자문그룹과 동남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 은행감독실 무그룹의 회원기관으로서 역내 금융안정 현안을 논의하였다.

## 나. 외환시장 안정조치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 및 기업 등에 외화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는 한편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 공급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중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 확대로 미 달러화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스왑자금을 활용하여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총 6회에 걸쳐 은행을 대상으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98.72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였다. 3월 하순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 유동성 사정이 개선된 데다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이미

공급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자금은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전액 회수되었다.

표 III - 10.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공급 및 회수 현황

(억 달러)

회차	공급	회수
3. 31일(1회차)	79.20 (84일물)	79.20 (6. 25일)
	8.00 (7일물)	8.00 (4. 9일)
4. 7일(2회차)	41.40 (84일물)	41.40 (7. 2일)
	2.75 (8일물)	2.75 (4.17일)
4.14일(3회차)	20.15 (83일물)	20.15 (7. 9일)
	0.10 (6일물)	0.10 (4.23일)
4.21일(4회차)	21.19 (84일물)	21.19 (7.16일)
4.27일(5회차)	12.64 (85일물)	12.64 (7.23일)
5. 6일(6회차)	13.29 (83일물)	13.29 (7.30일)
합계	198.72	198.72

자료: 한국은행

###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와 함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3월 중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상향 조정<sup>61)</sup>하고 외화LCR<sup>62)</sup>을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하향 조정(80% → 70%)함으로써 은행 등 금융기관이 외화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도 한시적으로 경감<sup>63)</sup>하였다.

60)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 관행 공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설립된 자발적 논의체로서 한국은행은 2019년 11월 가입하였으며 2020년 12월 말 현재 83개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가 참여 중이다.

61) 국내은행은 40%에서 5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62) 2017년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은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이며, 향후 30일 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63) 2020년 2/4분기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였으며, 2020년 중 정수 예정인 부담금(2019년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방법을 조정하였다. 즉 2회에 걸쳐 5:5의 비율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분할납부 비율을 1:9로 조정하고 2회차 부담금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였다.

##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와 함께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를 2020년 9월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 국채를 일정 기간 동안 환매조건부로 매입함으로써 미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은행의 외화자금 중개 기능 저하 시에 시행되어 자금수급 불안이 외환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중국, 호주 등과 통화스왑 연장계약 체결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sup>64)</sup>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국내 외환시장에 공급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화유동성 부족 상황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0월에는 중국인민

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을 연장하며 규모와 기간을 모두 확대<sup>65)</sup>하였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시기에도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장치를 강화하고 만기 관련 불확실성을 축소하였다. 아울러 2월에는 호주중앙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연장하며 스왑 규모를 20%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2월) 및 인도네시아(3월)와의 통화스왑계약을 순차적으로 만기 연장하는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스왑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였다.

###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한국은행은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ASEAN+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의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정 협정문이 6월 23일 발효되는 데 기여하였다. 협정문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금지원 기간 확대, 신용공여조건 체계 구축, IMF와의 협력 메커니즘 제고 등이다. 또한 CMIM의 실행력(operational readiness) 제고를 위한 모의훈련<sup>66)</sup>에 참여하여 역내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다.

64) 계약 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 두 차례(7월, 12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9월까지로 만기를 연장하였다.

65) 계약 규모는 기존 3,600억 위안/64조 원에서 4,000억 위안/70조 원으로, 계약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66) CMIM 자금인출 모의훈련은 2020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금번 제11차 모의훈련은 위기예방 목적(precautionary line)의 실거래 테스트로서 2개국 중앙은행이 통화스왑 자금을 요청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ASEAN+3 회원국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실시되었다.

표 III- 11.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구분	체결 국가	규모 (미 달러 <sup>1)</sup> 기준)	최근 체결· 연장일	만 기
자국 통화 스왑	미국	600억 달러	2020년 12월	2021년 9월
	캐나다	사전한도 없음	2017년 11월	없음
	스위스	100억 프랑/11.2조 원 (약 106억 달러 상당)	2018년 2월	2021년 3월
	중국	4,000억 위안/70조 원 (약 590억 달러 상당)	2020년 10월	2025년 10월
	인도네시아	115조 루피아/10.7조 원 (약 100억 달러 상당)	2020년 3월	2023년 3월
	호주	120억 호주달러/9.6조 원 (약 81억 달러 상당)	2020년 2월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150억 링깃/5조 원 (약 47억 달러 상당)	2020년 2월	2023년 2월
	UAE	200억 디르함/6.1조 원 (약 54억 달러 상당)	2019년 4월	2022년 4월
미달 러화 스왑	CMIM	384억 달러 <sup>2)</sup>	2014년 7월	—

주: 1) 최초 또는 규모 확대 체결 시 환율 기준

2) CMIM 총 재원은 2,400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수혜 및 분담 규모는 각각 384억 달러(16%)

자료: 한국은행

## 참고 III-2.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유동성 공급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외환시장은 3월 들어 긴장이 높아졌다. 특히 3월 10일 이후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인 미국 국채시장에서 교란이 발생하는 등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스왑레이트가 급락하는 등 혼란이 초래되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한 주요국 중앙은행들 간의 정책공조의 일환으로 2020년 3월 미 연준<sup>67)</sup>과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통화스왑 규모는 미 연준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결한 계약의 두 배 수준인 600억 달러로 큰 폭 확대되었다. 통화스왑계약 체결 발표만으로도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sup>68)</sup>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하였다.

곧이어 한국은행은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실시하여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4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98.72억 달러를 공급하였으며 평균 낙찰금리(84일물)는 1회차 0.9080%에서 6회차 0.2941%를 기록하는 등 회차를 거듭함에 따

라 크게 하락하였다. 통화스왑 자금 공급 후에는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이 개선<sup>69)</sup>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글로벌 달러화시장과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행과 미 연준은 달러 자금시장 경색 재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화스왑계약 만기를 두 차례(7월, 12월) 6개월 연장<sup>70)</sup>하였다.

표 III- 12.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세부 내역

(억 달러, %)

입찰일	대상거래	입찰금액	낙찰금액	낙찰금리 <sup>1)</sup>
3.31	84일물	100	79.20	0.9080
	7일물	20	8.00	0.5173
4. 7	84일물	70	41.40	0.5323
	8일물	15	2.75	0.4819
4.14	83일물	35	20.15	0.3567
	6일물	5	0.10	0.3300
4.21	84일물	35	21.19	0.3386
	6일물	5	0.00	-
4.27	85일물	40	12.64	0.3348
5. 6	83일물	40	13.29	0.2941
합계	-	365	198.72	-

주: 1) 가중평균 낙찰금리

자료: 한국은행

67) 2020년 3월 19일 미 연준은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 경색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을 포함한 9개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발표하였다. 계약 규모는 각각 600억 달러(한국, 호주, 싱가포르, 스웨덴, 브라질, 멕시코) 및 300억 달러(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이며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68)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발표한 다음날인 3월 20일 코스피는 7.4%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3.1% 하락하였다.

69) 외환스왑레이트(3개월물)는 3월 -141bp에서 5월 -32bp로 109bp 상승하였다.

70) 통화스왑 규모 및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며 계약 기간만 각각 2021년 3월 31일,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다.

## 4. 발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화(은행권 및 주화) 발행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국민들의 높은 화폐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 「한국의 주화」 세트 및 4종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를 국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발행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위조지폐 유통방지 홍보,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선정·포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 깨끗한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손상된 화폐를 꾸준히 회수하여 폐기하였으며 금융기관,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원활히 협력하여 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

### 가. 화폐 발행

#### 화폐수요에 대응

2020년 중 한국은행은 36조 4,995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고 14조 6,415억 원의 화폐를 환수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화폐 발행잔액은 2019년 말보다 큰 폭 증가(17.4%)한 147조 5,569억 원에 달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오만원권과 만원권의 발행잔액이 2019년 말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오천원권과 주화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III - 13. 화폐발행·환수 및 발행잔액<sup>1)</sup>

(억 원)

	2020			2020년 말 발행 잔액
	발행 (A)	환수 (B)	순발행 (A-B)	
은행권 <sup>2)</sup>	364,725	145,932	218,793	1,450,610 (17.8)
오만원권	252,155	60,998	191,157	1,245,101 (18.1)
만원권	107,345	79,815	27,530	174,878 (18.7)
오천원권	2,302	2,323	-20	14,140 (-0.1)
천원권	2,923	2,797	126	16,311 (0.8)
주 화 <sup>2)</sup>	270	483	-213	24,958 (-0.8)
합 계	364,995	146,415	218,580	1,475,569 (17.4)

주: 1) ( ) 내는 2019년 말 대비 증감률(%)

2) 오백원권 이하 은행권, 오원화 이하 주화, 기념화폐 포함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한 화폐는 7억 7,041만 장으로 2019년 말 대비 7.0% 증가하였다. 은행권은 오만원권을 중심으로 43.2% 증가한 반면, 주화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49.9% 감소하였다. 이들 제조화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조 4,676억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192.5%에 달하였다.

표 III - 14. 화폐 제조규모<sup>1)</sup>

	장 수(100만 장)		금액(억 원)	
	2019	2020	2019	2020
은행권 <sup>2)</sup>	440.0	630.0	59,600	174,600
	(-32.3)	(43.2)	(-58.9)	(193.0)
주 화 <sup>2)</sup>	280.3	140.4	112	76
	(91.7)	(-49.9)	(-66.9)	(-32.1)
합 계	720.3	770.4	59,712	174,676
	(-9.5)	(7.0)	(-58.9)	(192.5)

주: 1)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 기념화폐 제외

자료: 한국은행



##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세트 및 국립공원 기념주화 4종 발행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사적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의 주화」 세트를 발행하였다. 동 주화세트는 도안, 소재, 지름, 무게가 기존 현용주화와 동일하나 특수한 가공처리 기법을 통해 도안의 선명도를 크게 향상시킨 고품질 주화 세트로서 한국은행 창립 이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발행되었다.

그림 Ⅲ- 11.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4종(월악산, 계룡산, 한라산, 태안해안)을 9월 24일에 발행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는 2023년까지 시리즈로 발행될 예정이다.

그림 Ⅲ- 12. 2020년 발행 기념주화

화종	도안		소재·규격
	(앞면)	(뒷면)	
한국의 국립공원 (월악산)			·은 99.9% ·지름 40mm ·무게 31.1g
한국의 국립공원 (계룡산)			
한국의 국립공원 (한라산)			
한국의 국립공원 (태안해안)			

자료: 한국은행

## 나. 화폐 유통

### 위조지폐 유통방지 등 홍보 강화

한국은행은 위조지폐의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동영상 매체를 활용한 광고, 대중교통(버스 및 KTX TV, 지하철 등)을 이용한 광고, UCC 공모전,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화폐사랑 UCC 공모전」(7회차)도 계속 개최하여 86편의 응모작 가운데 8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 밖에 화폐위조범 검거 등에 기여한 2개 경찰서에 대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포상을 실시하였다.

2020년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272장으로 2019년(292장)보다 20장 감소하여 관련 통계를 공표(1998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상거래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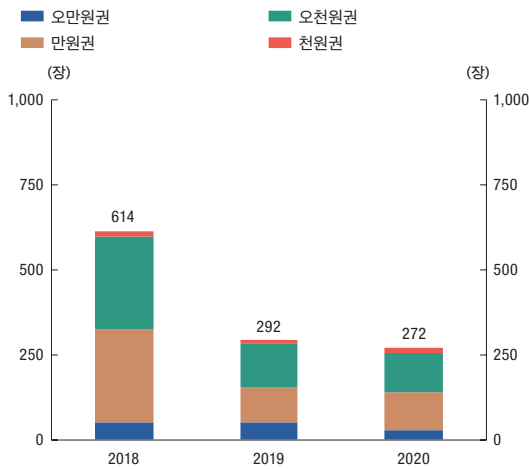
적의 화폐 사용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기관 및 국민들의 위폐식별능력 향상 등을 위한 각종 홍보노력이 계속 강화되어 온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III- 13 화폐사랑 UCC 공모전 수상자 시상  
(2020년 11월 5일)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 14. 위조지폐 발견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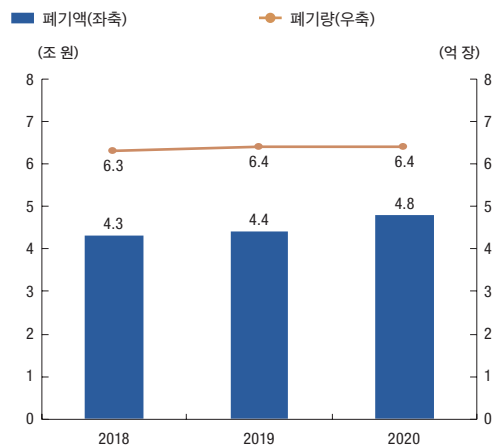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유통화폐 청결도 개선 노력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환수한 화폐 중 훼손, 오염 등으로 재발행하기 부적합한 화폐를 폐기하여 유통화폐의 청결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다. 2020년 중 폐기한 손상화폐는 4조 7,644억 원으로 장수 기준으로 6억 4,256만 장에 달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은행권이 4조 7,614억 원(6억 848만 장), 주화가 30억 2,599만 원(3,408만 개)이었다. 한편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106억 9,461만 원으로 2019년(73억 9,745만 원) 대비 32억 9,716만 원 증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돈 깨끗이 쓰기」 동영상 배포 등 PC와 모바일,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화폐사용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였다.

그림 III- 15. 화폐 폐기규모



자료: 한국은행



##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한국은행은 상거래시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홍보 활동을 2020년 처음으로 전개하였다. 최근 들어 일부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현금 수취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 금융·사회적 취약계층의 소비활동 배제나 금융소외와 같은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현금 없는 사회 진전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현금사용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다. 대외 협력

한국은행은 관세청,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위조지폐의 발견 동향 및 특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계속하였다. 2020년 11월에는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국가정보원, 시중은행 등의 위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폐전문가그룹에 공식적으로 참가하여 대국민 위조지폐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위조지폐를 검찰로부터 인수하여 위조지폐의 제작 방법과 수준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림 III-16.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포스터



자료: 한국은행

## 참고 III-3.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벌권 업무 수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확대되면서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의 오만원권 수요가 큰 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오만원권 영업자금 부족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화폐 수요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오만원권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화폐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오만원권의 발주량을 늘리고 한국조폐공사로부터의 신권 납품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표 III-15. 오만원권 순발행액

(조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발행액	22.8	25.6	25.0	26.7	25.2
환수액	11.4	14.8	16.9	16.1	6.1
순발행액	11.5	10.8	8.1	10.7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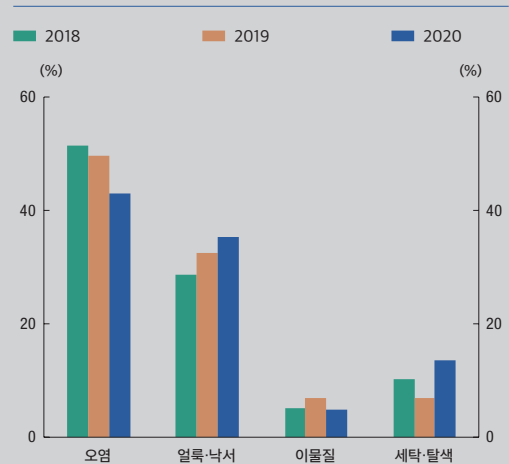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화폐 유통과정에서 화폐를 매개로 한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한 화폐의 경우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감안하여 최소 2주 간 금고 내에서 보관한 후 정사<sup>71)</sup>를 실시하였고 정사 처리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오염화폐의 폐기를 적극 유도하였다.

또한 화폐 교환 업무가 손상·오염 화폐의 신속한 대체는 물론 국민들의 생업 유지 등에 적지 않은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국민 화폐 교환 서비스를 적극 수행하였다. 2020년 화폐 교환 창구를 통한 교환 횟수는 약 33만 건으로 2019년 대비 약 4만 건 감소하였으나, 세차장 등 국민들의 영업활동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량주화<sup>72)</sup>의 경우에는 3,600만 개를 교환하여 2019년(2,350만 개) 대비 교환 물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화폐사용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예로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일부 국민들이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으로 화폐 소독을 시도함에 따라 화재·탈색으로 인한 화폐 손상이 전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등 부적절한 화폐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III-17 은행권 주요 손상요인



자료: 한국은행

71) 한국은행은 장수 및 액면확인, 위·변조 화폐의 추출, 사용 가능한 화폐와 손상된 화폐의 구분 등 유통화폐의 청결도 제고 및 위조 지폐 유통방지를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납한 화폐 및 화폐교환, 국고수납으로 환수된 화폐를 대상으로 정사를 실시한다.

72) 대량주화란 화종별로 500원화 2,000개, 100원화 2,500개, 50원화 2,500개 또는 10원화 5,000개 이상의 주화를 말한다.

## 5. 지급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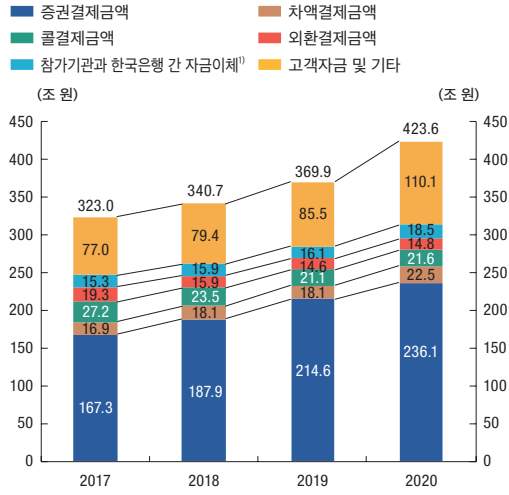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중에 일시적으로 결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sup>73)</sup> 및 개선하는 한편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제공 비율 인하 및 담보범위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 가. 한은금융망 운영

#### 원화자금 결제금액 증가세 지속

2020년 중 한은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일평균 423.6조 원으로 2019년에 비해 14.5% 증가하였다. 결제자금 종류별로는 증권자금 결제금액이 기관간 RP 등을 중심으로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차액자금 결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2019년에 비해 큰 폭 증가하였다. 콜자금 및 외환자금 결제금액은 2019년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그림 III - 18. 한은금융망 결제금액 (일평균)



주: 1) 국공채 등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자료: 한국은행

####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 지연 및 교착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참가기관에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을 공급하였다. 2020년 일시결제부족자금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4,862억 원으로 2019년보다 14.3%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일중당좌대출<sup>74)</sup> 일평균 지원금액은 6,0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6% 증가하였으며, 일중RP<sup>75)</sup> 일평균 지원금액은 2조 8,832억 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다.

73)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의미한다.

74) 은행들의 일시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당일 상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대출이다.

75)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81조의2(일시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따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한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를 201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표 III- 16.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규모 (일평균)

(10억 원, %)

	2018	2019	2020	증감률 <sup>2)</sup>
일중당좌대출 <sup>1)</sup>	328.5	432.1	603.0	+39.6
일중RP	2,147.9	2,618.1	2,883.2	+10.1
계	2,476.4	3,050.2	3,486.2	+14.3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2) 2019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은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sup>76)</sup>에 관한 원칙<sup>77)</sup>(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sup>78)</sup>에 따라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20년 중에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요결제시스템인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및 2019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오픈뱅킹공동망과 관련하여 결제불이행 대비 대응체계, 참여기준 등의 제도 정비, 운영리스크 관리 등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

장치를 일부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결제부문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개 국내은행과 1개<sup>79)</sup>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국내은행은 일중 유동성 관리 등 지급결제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무지속계획상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목표복구시간을 지정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운영기관(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에 즉시 보고하는 절차를 IT 장애대응 내부지침 등에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자금이체업무 수행 현황 및 결제유동성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본점 폐쇄 가능성 등에 대비한 업무지속계획의 수립·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전산시스템 운영 등 운영리스크 관리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76) 경제주체들의 일상적인 지급이나 금융상품 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CCP), 중앙예탁기관(CSD), 증권결제시스템 및 거래정보저장소(TR)로 구성된다.

7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2012년 4월에 제정·발표한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이다.

78) CPMI-IOSCO는 PFMI를 보완하기 위해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2016년 6월)», 「FMI 손실복구지침 (2017년 7월)», 「CCP 복원력 추가지침 (2017년 7월)」 등 국제기준을 추가 제정하였다.

79) 2020년 중 한국은행은 연간 3회 정도 실시하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회 실시하는 대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이들 회사의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였다.

##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

한국은행은 2015년에 착수한 차세대 한은 금융망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 10월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한은금융망은 1994년 최초 가동 이후 오랜기간 동안 혼합형 결제, 서버접속방식, 증권대금동시결제, 일중 RP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국은행은 유동성절감 결제방식 개선, 결제계좌 정비 및 일중당좌대출 공급경로 확대, 증권대금동시결제 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으로 참가기관의 자금이체 편의성이 제고되고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다양화, 코로나19 등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소액결제시스템 및 한은금융망 참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참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참가기관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정책을 마련하였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개방성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희망기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직접참가를 허용하고, 여타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참가하도록 참가방식을 명확히<sup>80)</sup> 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재해 발생 시에도 결제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대체근무장소 등에 추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참가제도를 개선하여 한은금융망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대응조치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4월 지급결제 부문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금융기관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순이체한도의 70%에서 50%로 인하하였다. 또한 국제기준(PFMI)<sup>81)</sup>에 맞춰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매년 10% 포인트씩 인상하려던 당초의 인상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하였다. 동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규모가 총 10.1조 원 정도 줄어들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었다.

80) ①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보유, ②지급준비금 예치 및 한국은행의 결제유동성 공급 대상, ③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대상, ④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능력 보유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은 차액결제에 직접참가하고, 여타 기관은 대행은행을 통해 차액결제에 간접참가 하도록 하였다.

81)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Principle 4: Credit risk: An FMI should effectively measure, monitor, and manage its credit exposures to participants and those arising from its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processes. An FMI should maintain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to cover its credit exposure to each participant fully with a high degree of confidence.

표 III- 17.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						
		기존	2020.4	2020.8	2021.8	2022.8	2023.8	2024.8
변경전	70		70	80	90	100	100	100
변경후			50	50	70	80	90	100

자료: 한국은행

이와 함께,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에 농업금융채, 수산금융채, 일반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한시적(2020년 5월 25일~2021년 3월 31일)으로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조달 부담을 완화하였다.

표 III- 18.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대상 담보증권 범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주금공 MBS, 산금채, 중금채, 수출입금융채,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li> </ul>	(좌 동)	상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은행채권,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sup>1)</sup></li> </ul>	2020년 5월 25일~2021년 3월 31일

주: 1)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료: 한국은행

### 지급결제 혁신 관련 연구 강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암호자산, 분산원장기술 등 지급결제 혁신과 관련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였다.

CBDC와 관련해서는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CBDC 연구 및 기술 전담조직을 금융결제국 내에 신

설하고 CBDC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특히 가상의 제한된 환경에서 CBDC 및 관련 시스템의 주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계획을 2020년 4월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CBDC 설계 요건 정의 및 구현기술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컨설팅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중에는 가상환경에서의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와 이에 따른 「한국은행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2020년 6월)하였으며 외부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증권대금동시결제를 분산원장기술로 구현하는 모의테스트를 2020년 4월 중 완료하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과 관련한 규제 현황 및 방향 등을 검토하였으며,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4년간 수행해 온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산하 지급결제회의(WGPMI, Working Group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의 의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울러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회원으로서 글로벌 주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CBDC 파일럿 프로그램 수행경과,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시행 등을 국외에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보고서 집필진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와 아시아 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2020년 11월에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유럽중앙은행(ECB) 및 헝가리중앙은행의 전문가들과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국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였다.



## 6. 외환 및 국제협력

### 가. 외국환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시장안정화 내역 공개 등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불합리한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

####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한 외환시장 안정 노력

2020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미·중 갈등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동 요인들이 원/달러 환율 등 국내 외환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동성 확대 시에는 적시에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2020년 3월 중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제금융시장 및 국내 외환부문의 불안이 심화되었던 시기에는 국외사무소와 연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각국의 정책대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등<sup>82)</sup>을 개최하여 국내 외환부문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앞서 마련된 외환부문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외환건전성제도 조정 등의

조치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내 외환부문의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였다.

한편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및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외환부문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한편,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실시 등 시장안정화 조치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였다.

####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시행

한국은행은 2018년 5월 정부와 함께 마련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시장안정화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sup>83)</sup> 2020년에는 2019년 4/4분기부터 2020년 3/4분기까지의 분기별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였다.

표 III - 19. 외환당국 외환 순거래 내역

(억 달러)

1단계(반기별)		2단계(분기별)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19년 3분기	19년 4분기	20년 1분기	20년 2분기	20년 3분기
-1.87	-38.00	-28.70	0.00	-58.51	-3.45	0.00

자료: 한국은행

82)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미 연준 FOMC 회의 영향, 이란의 대미 보복공격 영향 등을 주제로 6회),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주요국 주가 및 유가 급락, 미 대선 결과 등을 주제로 3회) 등을 개최하였다.

83)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는 반기별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2단계로 2019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 외환거래분야 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2020년 중 정부와 함께 대국민 외환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외환분야 규제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및 외환거래 감독기관 회의 등에 참여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환전 및 송금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sup>84)</sup>,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 면제제도 도입<sup>85)</sup>, 외환서비스 공급 확대<sup>86)</sup>, 거래절차 간소화 및 감독효율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나. 외화자산 운용업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대외지급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을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원칙 하에 운용하고 있다.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외환보유액의 유동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 흐름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외환보유액 규모 및 구성

2020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31억 달러로

2019년 말에 비해 343억 달러 증가하였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외환(유가증권, 예치금 등)이 4,301억 달러로 2019년 말 대비 322억 달러 증가한 가운데 SDR과 IMF 포지션은 각각 34억 달러와 48억 달러 수준이었다. 금은 48억 달러로 2019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I - 20.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 (기말 기준)

(백만 달러)

	2018	2019(A)	2020(B)	증감(B-A)
외환보유액	403,694	408,816	443,098	34,282
외환	393,332	397,876	430,117	32,241
SDR	3,427	3,352	3,371	18
IMF	2,140	2,793	4,815	2,022
금	4,795	4,795	4,795	0

자료: 한국은행

## 외화자산 구분 운용

한국은행은 운용목적에 따라 외화자산을 현금성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하고 이중 투자자산은 운용방식에 따라 직접투자자산과 위탁자산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다.

현금성자산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외화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및 일시적인 외화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매각 시의 거래비용이 적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국채, 예치금 등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직접투자자산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 수익 획득이 가능하도록 정부채, 정부기

84)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상법상 회사와의 위·수탁계약을 허용하여 고객이 항공사, 면세점, 편의점, 택배업체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소액 해외송금의 경우 인근 금융기관(우체국 등),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85)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규제에 공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규제확인 신청 후 30일 이내에 회신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규제 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 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86) 비은행 금융기관(증권사, 카드사 등)의 송금·환전 관련 외환거래업무 수행범위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분할·합병 시 외환업 등록요건 예비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채 등 주요 국제통화로 발행된 장·단기 채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한편 자금 유출입 등으로 현금성자산의 규모가 상당폭 변동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자산과의 자금이관을 통해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위탁자산은 외부 전문성 활용, 투자방식의 다변화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운용하고 있으며, 투자대상에는 채권과 함께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2020년 말 한국은행 외화자산 중 현금성자산은 5.1%, 직접투자자산은 73.9%, 위탁자산은 2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 - 21. 외화자산<sup>1)</sup> 구성 내역 (기말 기준)

	2018	2019(A)	2020(B)	증감(B-A)	(%, %p)
<b>1. 자산별</b>					
현금성자산	5.3	4.6	5.1	0.5	
투자자산					
직접투자자산	76.4	74.6	73.9	-0.7	
위탁자산	18.3	20.8	21.0	0.2	
<b>2. 통화별</b>					
미달러화	69.8	69.1	67.7	-1.4	
기타통화	30.2	30.9	32.3	1.4	
<b>3. 상품별</b>					
예치금	5.0	5.0	7.1	2.1	
유가증권					
정부채	42.9	44.6	44.5	-0.1	
정부기관채	18.0	15.8	14.4	-1.4	
회사채	13.7	13.4	13.6	0.2	
자산유동화채	12.8	12.5	11.5	-1.0	
주식	7.6	8.7	8.9	0.2	
계	100.0	100.0	100.0	-	

주: 1) <표 III - 20>의 외환 중 한국은행 외화자산  
자료: 한국은행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화자산 유동성 및 안전성 제고 노력

2020년 상반기 중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주가 및 금리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sup>87)</sup>되었으나,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등 완화적 통화정책과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빠르게 반등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었던 3월 중 보유채권 매각 등을 통해 국내 외화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시장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유동성 자산인 국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유동성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외화자산을 운용하였다.

하반기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당초 운용계획에 맞추어 외화자산 운용을 정상화하였다.

한편 외화자산 구성에 있어서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현금성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투자자산의 비중은 축소하였다. 투자자산 내에서는 주요국 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확대되었다.

통화별로는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하반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미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미달러화의 비중을 전년에 비해 축소하였다.

상품별로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예치금 비중을 확대하고, 정부기관채 및 자산유동화채 비중은 축소하였다. 또한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된 가운데 글로벌 투자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회사채 및 주식 비중을 소폭 확대하였다.

87) 미국 S&P500지수의 경우 2~3월 중 34% 급락한 이후 연말까지 68% 상승하여 연중 15% 상승을 기록하였다.

## 외화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외화자산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팬데믹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외화자산의 안전성 및 유동성 수준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위기 상황별 비상대응계획을 정비하고 전산·결제시스템 등의 재해복구 훈련을 실시하였다.

조직운영 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외사무소 운용데스크의 업무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본점 내 야간데스크를 운영하고, 거래, 결제, IT시스템 등 핵심인력에 대해 재택 및 분산근무를 실시하는 등 외화자산 운용과 관련한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외에 외화자산 운용에 따른 각종 리스크 한도 및 지표 관리의 전산화, 자금결제 프로세스의 개선 등을 통해 외화자산 리스크관리의 효율성 및 시의성을 제고하였다.

## 국내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 발전 지원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 거래기관 및 위탁운용사로 국내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중 외화자산의 직접운용 과정에서 5개 국내 증권사와 외화채권을 거래하였으며, 3개 국내 자산운용사에 중국(4.4억 달러) 및 선진국 주식(6.0억 달러) 일부를 위탁운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운용 실적 등 운용역량 축적 상황을 보아가며 국내 금융기관을 꾸준히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I - 22. 외화자산 운용 시 국내 금융기관 활용 현황

유형	상품	대상기관 <sup>1)</sup>	규모	개시시기
외화채권의 매매거래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증권사 (5)	107억달러 <sup>2)</sup>	2018년 1월
주식의 위탁운용	중국 주식	자산운용사 (3)	4.4억달러 <sup>3)</sup>	2012년 6월
	선진국 주식	자산운용사 (2)	6.0억달러 <sup>3)</sup>	2019년 4월

주: 1) ( ) 내는 거래기관 수

2) 2020년 중 거래금액 기준

3) 위탁원금 기준

자료: 한국은행

## ESG자산 투자 확대

한편 한국은행은 투자대상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초점을 두는 ESG 투자<sup>88)</sup>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위탁운용을 통해 ESG 관련 주식에 10.8억 달러 투자하고 있으며, 그린본드 등 ESG 관련 채권에도 43.8억 달러 투자하고 있다. 향후에도 글로벌 ESG 투자 확대 추세, 외환보유액의 공적 책임성 강화, 투자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 투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88) 투자 의사결정 시 사회책임투자 및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요인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투자를 말한다.

표 III- 23. ESG 관련 자산 투자 현황

(억 달러)

운용	상품	규모 <sup>1)</sup>
직접	채권	34.9
위탁	주식	10.8
	채권	8.9
합계		54.5

주: 1) 시가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외화자산 운용분야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 외화자산 운용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였다.

2020년 중에는 현재 외화자산 통화구성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주요 국제기구들(World Bank, IMF, BIS)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자문 결과 현행 외화자산 통화구성 결정방식이 대체로 글로벌 최적관행(best practice)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뉴욕연준, 호주재무관리청(AoFM) 등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전세계 외환보유액 운용의 최근 흐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베트남 중앙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경험을 전수하였다.

### 다.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글로벌 협력채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및 주요국의 정책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상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협력·교류 활동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이어나갔다.

BIS 이사국 활동을 포함하여 G20, IMF와 같은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 회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금융계와의 정책공조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제 공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ASEAN+3,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 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등 역내 협의체의 활동 및 논의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

한국은행은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정책공조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데 기여하였다.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14회) 및 IMF·세계은행 회의(2회)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 방안 등 금융경제 현안과 중장기 정책과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이 국제금융계 차원의 정책공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BIS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BIS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BIS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 등의 결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요국의 경제·금융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책공조·조율을 강화할 수 있었다.

정부와 공동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4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5회)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특별회의(3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과 세계경제 회복, 저소득국 부채상환유예 방안 및 향후 부채 대응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금융규제·감독, 금융포용,

스태이블 코인 등 금융부문 이슈, 양질의 인프라 투자원칙, 디지털화에 따른 국제조세 과제 등의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표 III - 24.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20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 (1월 바젤, 3·4·5·6·7·9·11월 화상회의)	세계 금융경제 현안, 비은행 금융 중개, 국가간 지급서비스, 빅데이터와 중앙은행, BIS의 중장기 전략 등
IMF·세계은행 회의 (4·10월 화상회의)	세계경제 전망, 세계 금융안정 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과제, IMF·WB의 회원국 지원 방안 등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2월 리야드, 4·7·10월 화상회의, 3·11월 특별 화상회의)	코로나19 대응과 세계경제 회복, 부채상환유예 방안 및 향후 부채 대응 체계, 국가간 지급 서비스 개선, 금융규제 및 감독, 금융포용, 스태이블 코인, 양질의 인프라 투자, 국제조세 등

자료: 한국은행

## 역내 금융협력관계 강화

한국은행은 ASEAN+3, EMEAP, SEACEN 등 아태지역 국제기구·협의체에서의 금융경제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역내 회원국 간 금융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ASEAN+3에서는 정부와 공동으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sup>89)</sup>(1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2회) 및 실무회의(3회)에 참석하여 IMF 비연계자금 비중 확대, 역내통화 활용 제도화 등을 반영한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개정 협정문을 승인하여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EMEAP 총재회의(2회), 특별 컨퍼런스콜(2회) 및 총재/금융감독기관장 회의(1회)와 SEACEN 총재회의(1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의 영향 및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디지털화, CBDC 등 최신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SEACEN의 EXCO(Executive Committee) 자문위원회<sup>90)</sup> 위원으로서 SEACEN 센터의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표 III - 25. 역내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20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제23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9월 화상회의)	역내 및 세계 금융경제 동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 등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9월 화상회의)	각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 3국간 역내 금융협력 방안 등
제25차 EMEAP 총재회의 I (8월 화상회의)	코로나19와 중앙은행의 과제 등
제25차 EMEAP 총재회의 II 및 제9차 EMEAP 총재/금융감독기관장 회의 (11월 화상회의)	경제 전망 및 코로나19의 장기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은행 부문의 역할 등
제56차 SEACEN 총재회의 (12월 화상회의)	중국의 CBDC 프로젝트 현황 등

자료: 한국은행

##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 대해 한국은행 정책경험 공유 강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외환정책 및 외환보유액 관리 등 중앙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경험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금융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앙은행

89)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5월에서 9월로 연기되어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는 매년 ASEAN 10개국 중 1개국과 한·중·일 3개국 중 1개국을 순차적으로 공동의장국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일본과 베트남이 공동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2021년에는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담당한다.

90) SEACEN 센터 소장의 조직 및 급여체계 개편 업무를 지원하고 신규 인력 채용 자문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현재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태국과 스리랑카 중앙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졌다.

지식교류 프로그램(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sup>91)</sup>은 사전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수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교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중앙은행 간 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내실있는 정책자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몽골(2017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을 지식교류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등 그동안 동남아시아에 치중되었던 사업을 북방국가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개최한 국제행사인 「2020 북방포럼」(10월 30일)에서 6개 북방국가<sup>92)</sup>와 「중앙은행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표 III- 26. 지식교류 프로그램(KPP) 실적 (2020년 중)

협력대상국	사업과제
베트남	외환보유액 관리 관련 법적 체계 및 투자 프로세스 강화
캄보디아	통화정책 및 외환정책 운영
몽골	공급교란 및 외부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 전략
네팔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금융안정
스리랑카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정책수단 및 데이터 수집
우즈베키스탄	자본시장 자유화 및 외환정책

자료: 한국은행

또한 SEACEN 센터와의 공동연수(11월)를 회원국 중앙은행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표 III- 27. SEACEN 센터 온라인 공동연수 실적 (2020년 중)

주제	참가 인원
Monetary and Macroeconomics Policy in the time of COVID-19 (11월 16~20일)	14개국 41명

자료: 한국은행

###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확대

한국은행은 2020년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또는 협의체에 출자금 2억 6,178만 달러, 출연금 2,914만 달러 등 총 2억 9,092만 달러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제18차 재원보충에 따른 출자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가입 관련 출자,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African Development Fund) 재원보충 등에 따라 출자·출연금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한 출자·출연 규모는 총 172억 달러에 이른다.

한편 2020년 말 한국은행의 IMF에 대한 용자 규모는 9억 6,997만 SDR이다. 이 가운데 신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에 따른 용자 규모는 1억 4,335만 SDR,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PRGT,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차입약정<sup>93)</sup>에 따른 용자 규모는 8억 2,662만 SDR이다. 2020년 중 총 용자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5,251만 SDR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차입협정에

91) 한국은행의 업무 관련 지식, 정책수행 경험, 한국의 금융시스템·인프라 발전 경험 등을 개발도상국 등의 중앙은행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사업을 말한다.

92)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벨라루스

93) IMF가 저소득국가에 대한 양허성 용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 국가와 체결하는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체결하였으며 2013년 처음 용자를 실시하였다.



따른 용자가 4,505만 SDR 감소한 반면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 차입약정에 따른 용자가 5억 9,756만 SDR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III- 28.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

(백만 달러)

	2019년 말 (A)	2020년 말 (B)	증감 (B-A)
출 자 금	15,916	16,178	262
IMF	11,861	11,861	0
IBRD	287	311	24
IDA	1,982	2,136	154
ADB	293	293	0
AfDB·AfDF	504	539	35
AIIB	748	748	0
CABEI	0	34	34
기타	241	256	15
출 연 금	976	1,005	29
IMF	72	78	6
IBRD	34	34	0
ADB·ADF	648	671	23
IDB·MIF	161	161	0
IIC	40	40	0
기타	21	21	0
출자·출연금 합계	16,892	17,183	291

자료: 한국은행

표 III- 29. IMF에 대한 용자 현황

(백만 SDR)

	2019년 말 (A)	2020년 중		2020년 말 (D=A+B-C)	증감 (D-A)
		용자(B)	상환(C)		
NAB	188	0	45	143	-45
PRGT	229	600	2	827	+598
합계	417	600	47	970	+553

자료: 한국은행

## 7. 조사통계

### 가. 조사연구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국제경제, 성장, 물가, 고용 등 국내외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의 경제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1) 본부의 조사연구

#####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2020년 중 경제 현안 관련 조사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이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과거 전염병 발생 사례, 주요국 간 교역관계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를 점검하였으며<sup>94)</sup>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서비스교역 위축,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 세계교역에 나타난 주요 변화도 살펴보았다.<sup>95)</sup>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하였다. 먼저 코로나

19는 내수 및 교역 둔화, 제조업 생산 차질 등을 통해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96)</sup> 또한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대면활동의 부진 지속, 고용 및 소득여건의 개선 지연 등으로 인해 소비 회복이 제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sup>97)</sup> 한편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요변화, 반도체 경기 등을 점검하여 수출여건의 변화를 평가하였다.<sup>98)</sup>

코로나19 확산은 고용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부문 현안도 비중있게 분석하였다. 우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취약성은 저소득, 저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취업자수 감소도 대부분 취약부문 일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99)</sup> 또한 최근 일시 휴직자수가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향후 고용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sup>100)</sup>

물가 측면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은 대면서비스 품목과 같은 수요민감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sup>101)</sup> 주요 선진국에서도 봉쇄조치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대체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감염병 확산과 더불어 국제유가 하락, 무상교육 확대 등도 소비자물가의 오름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이후 예상되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금번 위기 이후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등 글로벌 차원

94) 코로나19 확산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경제전망보고서, 2020년 2월)

95) 최근 세계교역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전망(국제경제리뷰, 2020년 12월)

96) 코로나19 확산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년 3월)

97)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제약요인 점검(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년 9월)

98)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이후 수출여건 점검 및 전망 평가(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0년 6월)

99)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BOK 이슈노트, 2020년 8월)

100) 일시휴직자 현황 및 평가(BOK 이슈노트, 2020년 9월)

101) 코로나19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BOK 이슈노트, 2020년 11월)



에서의 경제구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02)</sup> 또한 향후 국가간·계층간 성장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으며<sup>103)</sup> 가계저축률이 높아진 상태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04)</sup> 아울러 금변 위기가 혼인·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고령화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sup>105)</sup>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인구고령화 등 가계의 소비성향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sup>106)</sup> 또한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비중 확대 등 글로벌 분업체제 참여구조 변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둔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07)</sup>

아울러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

진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통화정책의 내생성, 불확실성 확대 등 최근의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한 거시계량모형 BOK20을 개발하여 모형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경제연구원 조사연구 강화

경제연구원에서는 중장기 조사연구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영향<sup>108)</sup>,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구조 변화<sup>109)</sup>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분석에 연구역량을 집중 투입하였다.

금융·외환시장 리스크 요인<sup>110)</sup>, 부동산<sup>111)</sup>, 통화정책<sup>112)</sup>, 산업정책<sup>113)</sup>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디지털화폐<sup>114)</sup> 등 새로운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결과도 발표하

102)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단행본, 2020년 6월)

103)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성장불균형 평가(BOK 이슈노트, 2020년 12월)

104)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가계저축률 상승 고착화(level-up) 가능성(조사통계월보, 2020년 11월)

10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BOK 이슈노트, 2020년 12월)

106) 최근 소비성향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조사통계월보, 2020년 2월)

107) 우리나라 글로벌 분업체제 참여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조사통계월보, 2020년 12월)

108)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0년 7월), 코로나19 팬데믹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0년 8월),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BOK 이슈노트, 2020년 9월)

10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0년 6월)

110) 우리나라 외환시장 오퍼레이션의 행태 및 환율변동성 완화 효과(BOK 경제연구, 2020년 2월), Network-Based Measures of Systemic Risk in Korea(BOK 경제연구, 2020년 3월), Cross-border Trade Credit and Trade Flows during Financial Crises(BOK 경제연구, 2020년 6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금융제약 점검(조사통계월보, 2020년 10월), Credit Market Frictions and Coessentiality of Money and Credit(BOK 경제연구, 2020년 11월), 자본유입과 물가상승률 간의 동태적 상관관계 분석: 아시아의 8개국 소규모 개방경제를 중심으로(BOK 경제연구, 2020년 12월)

111) House Prices and Household Consumption in Korea(BOK 경제연구, 2020년 5월), Consumption Dynamics and a Home Purchase(BOK 경제연구, 2020년 12월)

112)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BOK 경제연구, 2020년 1월), The Excess Sensitivity of Long-term Interest rates and Central Bank Credibility(BOK 경제연구, 2020년 12월)

113)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성 간 관계분석: 사업체 자료 이용(BOK 경제연구, 2020년 9월),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기업의 내수전환 결정요인 분석(BOK 경제연구, 2020년 9월)

114)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Tax Evasion, Inflation Tax, and Central Bank Independence(BOK 경제연구, 2020년 12월)

였다. 또한 노동생산성<sup>115)</sup> 및 성장<sup>116)</sup>,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sup>117)</sup> 등 당면한 구조적 이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중장기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전망 모형<sup>118)</sup> 및 최신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sup>119)</sup> 등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도 꾸준히 발표하는 한편 북한경제<sup>120)</sup>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속하였다.

###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및 교류 지속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및 교류와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연구 역량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 글로벌 차원에서 본격화되기 전에 「2020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취소를 결정하였으며, 「2021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미개최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였다.

반면 화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연구 강화 노력은 꾸준히 이어 나갔다. 9월에는 「2020 Annual Meeting of the CEBRA」, 10월에는 「2020

FMA Annual Meeting」 Kafa 세션을 한미재무학회와 공동 주최하였다. 이를 통해 최신 경제이론에 대한 수준 높은 강연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내외 연구기관과 교류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12월에는 「한·일 중앙은행 공동 리서치 워크숍<sup>121)</sup>」을 개최하여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 서로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양국 중앙은행의 연구 성과와 지식을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석학들과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거시건전성 등에 관한 공동연구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 부서 간 협업연구 강화

새로운 금융경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업무 수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외부연구용역 및 부서간 협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연중 총 4차례의 「연구위원회<sup>122)</sup>」를 개최하여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연구업무를 조율하였으며, 외부연구용역,

115) 2001년 이후 한국의 노동생산성 성장과 인적자본: 교육의 질적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BOK 경제연구, 2020년 4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 둔화 요인 분석(BOK 이슈노트, 2020년 6월),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BOK 이슈노트, 2020년 7월)

116) 산업구조조정이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BOK 경제연구, 2020년 6월),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을 하락과 원인(BOK 경제연구, 2021년 1월)

117)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전·후방 참여 효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BOK 경제연구, 2020년 5월)

118) 상태공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월별 GDP 추정: 깃스표본추출 접근(BOK 경제연구, 2020년 1월), Common Factor Augmented Forecasting Models for the US Dollar-Korean Won Exchange Rate(BOK 경제연구, 2020년 2월), Vulnerable Growth: A Revisit(BOK 경제연구, 2020년 10월)

119) Macroeconomic and Financial Market Analyses and Predictions through Deep Learning(BOK 경제연구, 2020년 9월)

120)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BOK 경제연구, 2020년 1월), 북한 「경제연구」로 분석한 경제정책 주제 변화: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BOK 경제연구, 2020년 2월), 북한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대중수입을 중심으로(BOK 경제연구, 2020년 3월), 북한 비공식금융 실태조사 및 분석 평가(BOK 경제연구, 2020년 7월), 북한의 장기 경제 성장률 추정: 1956~1989년(BOK 경제연구, 2020년 7월), 북한의 자본소득 추정 및 시사점(BOK 경제연구, 2020년 11월)

121) 2017년부터 일본은행 금융연구소와의 공동 리서치 워크숍을 매년 번갈아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122) 위원장(부총재), 부위원장(경제연구원 담당 부총재보), 12인의 운영위원(주요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외 공동연구 및 부서 간 협업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연구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정책여건 하에서 시급한 정책현안 연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위기 상황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조사연구 자료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부서 간 협업 연구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 (2)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지역본부는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금융안정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역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경제 관련 각종 통계 편제, 주요 현안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유관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과제 발굴이나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응정책 등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제공·발표하였다.

###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

지역본부는 지역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매

분기 작성하여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아울러 전국적 관심도가 높은 7대 주력 제조업(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디스플레이·조선·휴대폰)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산업의 동향을 본부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하였으며, 지역경제 관련 여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보고서」내 현장리포트에 수록하는 등 지역산업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기업경영분석 등 지역경제의 동향 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정기적으로 편제하여 제공하였다.

###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지역본부는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지역 내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지역경제 혁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자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진단자료, 온라인쇼핑 성장, 지역상품권 도입 등 지역경제 현안 분석자료,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 운용성과 점검자료, 지역 내 소비구조, 인구변동 등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심층분석자료 등을 작성<sup>123)</sup>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경북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전략, 경기지역 대기업-

123) 2020년 중 총 79건의 자체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4건은 지역본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중소기업 연계성 분석 및 균형발전 방안, 위치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정주·방문 인구 추정 및 경제적 영향 분석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sup>124)</sup>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 지역사회와의 연구교류 강화

지역본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비대면 소통 수단 등을 활용하여 지역 유관기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의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한편 원격근무·교육 확산으로 언택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경제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지역본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발전 방안,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sup>125)</sup>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방안, 지역 내 생산·분배 간 불일치 요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한 지역경제포럼을 개최<sup>126)</sup>하여 지역사회와 관련 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및 소통 강화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동향 관련 정책 참고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주관 회의 등에 적기에 제공하여 대응방안 수립에 기여하였다.

한편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나 지역의 행정·경제중심지로서 조사연구·모니터링·교류협력 등을 특별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sup>127)</sup>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3) 국외사무소의 조사연구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동향분석<sup>128)</sup>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주재국 중앙은행·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금융경제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현지정보<sup>129)</sup>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브렉시트 협상, 미 대선 등 금융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각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환경 변화와 생산·소비·고용 등의 반응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본부에 제공하였으며,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면밀히 파악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대면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웹 세미나 개최 및 참여,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유지·확충하였고 주요 이슈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124) 2020년 중 총 21건의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였다.

125) 2020년 중 총 5회의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26) 2020년 중 총 20회의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127) 2020년 말 현재 12개 지역본부가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128) 2020년 중 총 109개의 조사연구 및 동향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129) 2020년 중 총 538개의 현지정보를 작성하였다.

## 나. 통계

한국은행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화·유동성, 예금·대출 금리, 가계신용 등 전통적 통화금융통계 외에도 국민소득(GDP),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자금순환표 및 국제수지표 등 5대 국민계정통계와 함께 국제투자대조표,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BSI) 및 소비자동향(CSI) 조사 등 18종의 국가승인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초자료 수집, 편제 인력 관리 등에서 애로가 커졌으나 작성통계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공표도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또한 통계 수요 및 작성 환경에 대응하여 뉴스 기사, 신용카드 및 스캐너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통계편제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이를 이용한 속보성 있는 경기지표 개발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국제기구, 학계, 정부 등과의 통계협력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대국민 통계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전면 재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III- 30. 한국은행 작성 국가승인통계 현황

부 문	종 류
국민계정	국민소득, 국제수지표,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민대차대조표 <sup>1)</sup> , 국제투자대조표, 대외채권·채무
통화금융	통화금융통계
가계부문, 미시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sup>2)</sup>
물가지수	생산자물가(PPI), 수출입물가(EPI, IPI)
기업통계	기업경영분석
경제심리	기업경기조사(BSI), 소비자동향조사(CSI), 경제심리지수(ESI)
금융안정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
지급결제	지급결제통계
기 타	전국민금융이해력조사 <sup>3)</sup>

주: 1) 통계청과 공동

2) 통계청·금융감독원과 공동

3) 금융감독원과 공동

자료: 한국은행

### 통계 개선 및 확충

한국은행은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기술의 발전 등 최근 경제현상을 통계에 충실히 반영하고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존 통계를 세분화하거나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통계이용자의 편의와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은 법인 및 비법인 등 기업형태별 세부 자료를 확충하였으며 중견기업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새로 편제함으로써 기업대출 및 중견기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수요에 부응하였다. 그리고 국제수지 및 국외투자통계 개편에 맞춰 2009년 이후 자금순환표의 국외부문을 소급편제하여 국민계정통계 간 정합성을 높였다.

아울러 G20, IMF 등이 주도하는 DGI-2<sup>130)</sup>의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분기 제도

130) Data Gaps Initiative: 2009년 G20 회의(런던)에서 시작된 국제 통계 개발·개선 사업으로 IMF와 FSB 주도 하에 주요 국제기구(BIS, ECB 등) 및 G20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사업(CDS, 구조화사업, 비은행금융기관 대외익스포지)을 완료(DGI-1)한 후, 2016년부터 2단계 사업(파생상품, 대외직접투자, 통계공유 등)을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DGI-2).

부문별 생산 및 소득 계정, 상세채권통계(Securities Statistics), 상세자금순환표(From-whom-to-whom Tables), 해외증권투자통계(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의 작성 준비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 밖에 기업경기조사(BSI)의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하여 표본개편을 실시하였다. 2018년 법인세 신고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개편하였으며, 시험조사를 거쳐 8월부터 새로운 표본에 의한 통계 편제결과를 공표하였다.

### 국내외 통계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모임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 하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 통계협력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통계를 연구하고 최신 이론과 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해 「한국은행 통계포럼」을 개최(11월)하였다. 동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딥러닝을 활용한 음성분류모형, 경제뉴스를 이용한 경제심리지수 작성 등에 관한 연구기법, 사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언어지능기술의 최신 동향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외부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

한편 통계청과의 통계협력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내 통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도모하였으며,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 중앙은행 등이 개최한 국제회의 등에 참가하여 새로운 국제통계기준의 안정적인 이행 및 정착 방안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였다.

### 통계서비스 향상

한국은행은 대학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제통계지표 해설 강좌」를 연 42회 개최하여 경제통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였다. 동 강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온라인 등 적절한 강의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실시하였다.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운영하면서 국제통계를 확충하고 웹페이지 표준 전환, 자동검증 기능 도입을 통한 데이터 정도 제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통계 이용자조사 결과를 가능한 반영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한편 통계 작성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용자 친화적인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경계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을 2020년 4월에 착수하여 2022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8. 국고 및 증권

### 가. 국고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국고금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고,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시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거래를 정부 회계제도<sup>131)</sup>에 맞추어 처리하고 정부와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국고금 수급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국고금 수납 및 지급 현황

국고금 수납업무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sup>132)</sup>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고대리점은 일반 납부자들이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하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정부의 운용 국고금, 국고채권발행자금 등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고 있다. 2020년 중 국고대리점 등을 통해 수납된 국고금은 448조 원이며 한국은행에 직접 수납된 국고금은 1,637조 원이다.

한편 대부분의 국고금 지급업무는 국고전산망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 지출관의 국고금 이체

요청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권자 계좌로 국고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국고여유자금, 국고채권상환자금 등을 정부예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2020년 중 채권자 계좌를 통한 국고금 지급규모는 853조 원이며, 그 외 국고여유자금 운용 등 지급규모는 1,219조 원이다.

표 III- 31. 국고금 수납 및 지급

	2018	2019(A)	2020(B)	증감(B-A)
(조 원)				
<b>총수납</b>				
국고대리점 등 수납	438	444	448	5
정부예금 수납 <sup>1)</sup>	1,391	1,551	1,637	87
<b>총지급</b>				
채권자 계좌 지급	667	725	853	128
정부예금 지급 <sup>1)</sup>	1,141	1,258	1,219	-39

주: 1) 국고여유자금 회수 및 운용,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국고계정 간 대체 포함  
자료: 한국은행

#### 국고대리점 현황

한국은행은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유형에 따라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한다.<sup>133)</sup> 2020년 말 국고대리점은 1만 6,998개로 165개 감소하였으며, 국고대리점을 통한 수납금액은 427조 원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131) 우리나라는 정부 회계제도를 「국가재정법」에 의해 수입·지출을 현금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현금주의와 「국가회계법」에 의해 경제적 거래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로 정리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한국은행은 현금주의에 따른 처리만 수행하고 있다.

132) 2008년부터 국고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을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133) 국고수납대리점이란 은행 영업점을, 국고금수납점이란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원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영업점을 말한다.

표 III- 32. 국고대리점 현황<sup>1)</sup> 및 수납금액

(개, 조 원)

		2019(A)	2020(B)	증감(B-A)
개수	수납대리점	6,849(22)	6,572(22)	-277
	수납점	10,314(6)	10,426(6)	112
	계	17,163(22)	16,998(22)	-165
수납 금액	수납대리점	410	408	-2
	수납점	17	19	2
	계	427	427	0

주: 1) ( ) 내는 대상기관 수  
자료: 한국은행

### 국고전산망 운영

한국은행은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고금 지급을 실시간 전자이체 처리하여 재정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국고금 수납, 국세 환급 등 대량의 자료는 지정된 시간에 일괄 처리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국고전산망을 통한 국고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장애 시 이메일 등 대체매체 혹은 재해복구센터<sup>134)</sup>를 이용하여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2020년 중 국고전산망을 이용한 일평균 처리 규모는 41만 9천 건, 19.7조 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2.6%, 8.4%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sup>135)</sup>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134) 주전산센터가 마비되는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를 위한 백업 전산시스템이다.

135) 2020년 중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건수는 486만 건으로 전년(473만 건)대비 증가하였다.

표 III- 33. 국고전산망 처리 실적 (일평균)

(천 건, 조 원, %)

		2019	2020	증감률
건수	실시간 전자이체	44.5	49.6	11.5
	일괄 처리	364.0	369.7	1.6
	(국고금 수납)	313.1	312.9	-0.1
	(국세 환급)	51.0	56.8	11.5
	계	408.5	419.3	2.6
금액	실시간 전자이체	16.1	17.6	9.3
	일괄 처리	2.1	2.1	1.6
	(국고금 수납)	1.8	1.8	0.1
	(국세 환급)	0.3	0.3	10.4
	계	18.2	19.7	8.4

자료: 한국은행

###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및 현황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2020년 한도는 40조 원으로 2019년과 동일하였다.

표 III- 34.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십억 원)

	2019(A)	2020(B)	증감(B-A)
통합계정	30,000	3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	8,000	-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	2,000	-
계	40,000	4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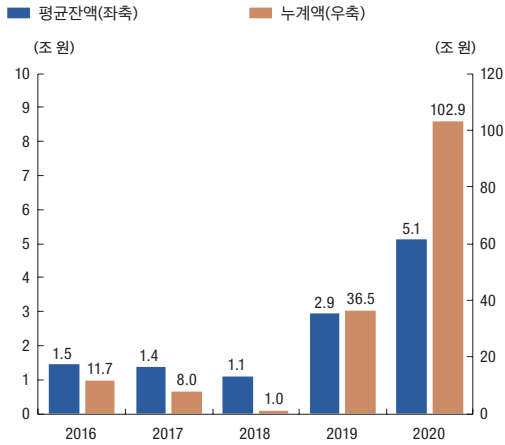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20년 중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규모는 평잔 기준 5.1조 원으로 2019년 대비 2.2조 원 증가하였으며 누계액 기준으로도 36.5조 원에서 102.9조 원으로 66.4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지출규모가 증가한 가



운데 세입·세출 간 시점의 불일치, 세입여건 변화 등으로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한 대출 수요가 증가한 데 기인하였다.

그림 III- 19. 대정부 일시대출 평잔 및 누계액



자료: 한국은행

## 나. 증권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위탁에 따라 국고채권 및 재정증권의 발행·상환·등록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0년 중 국고채권<sup>136)</sup>은 경쟁입찰 등을 통해 174.5조 원이 발행되고 59.2조 원이 상환되었다. 그 결과 2020년 말 국고채권 발행잔액은 726.8조 원을 기록하였다. 재정증권<sup>137)</sup>은 경쟁입찰을 통해 연중 45.3조 원이 발행되었으며, 연내에 전액 만기 상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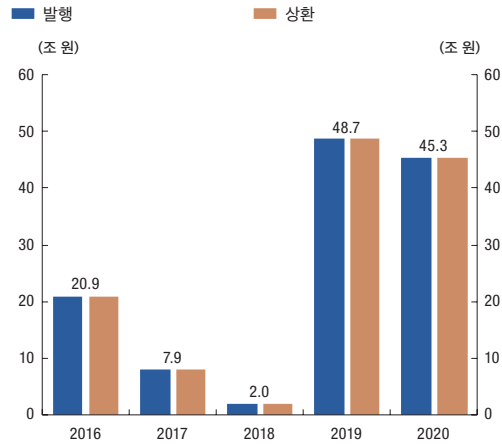
표 III- 35.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조 원)

	2019년 말 잔액	2020년 중		2020년 말 잔액
		발행	상환	
국고채권	611.5	174.5	59.2	726.8
3년	47.4	35.1	19.8	62.7
5년	99.3	34.0	24.2	109.1
10년	217.6	45.9	14.1	249.4
20년	124.8	13.0	1.1	136.7
30년	115.8	42.3	0.0	158.1
50년	6.6	4.2	0.0	10.8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 20.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sup>138)</sup>과 마찬가지로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의 국내 채권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5개 외국 중앙은행 및 1개 국제금융기구와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136) 정부가 중장기 재정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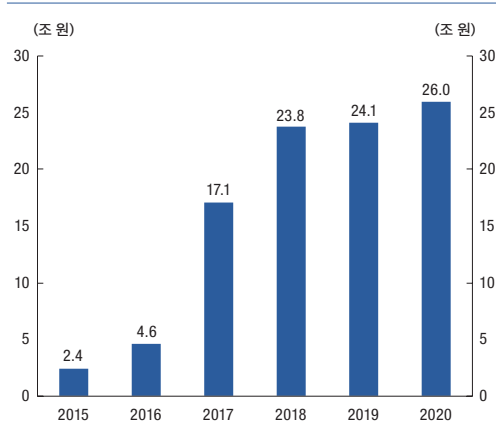
137) 정부가 회계연도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정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 국채이다.

138) 현재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NY),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중국인민은행(PBOC), 호주 중앙은행(RBA), 프랑스 중앙은행(BDF), 독일 중앙은행(DBB), 캐나다 중앙은행(BOC),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등이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이 투자 중인 26.0조 원 규모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보관 및 결제, 원리금 수령, 거래내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은행 간 협의<sup>139)</sup>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sup>140)</sup>

그림 III- 21.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제공 규모  
(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 다. 기금관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위탁을 받아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운용·관리 업무<sup>141)</sup>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은 국고채권 발행, 예탁금의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연중 268.1조 원을 조달하여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일반회계 및 외국환평형기금 예탁 등으로 운용하였

다. 용자계정은 용자금의 원리금 회수 등으로 0.5조 원을 조달하여 국책사업에 대한 용자 등으로 운용하였다. 차관계정은 대외 원리금상환이 종료되어 전대차관 회수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등으로 연중 10.2조 원을 조달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

표 III- 36. 한국은행 기금관리 업무의 주요 내용

기금명	설치목적 및 주요 업무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계정: 국고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일반회계 예탁,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li> <li>• 용자계정: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어</li> <li>• 차관계정: 국제협력기금, 외국 정부·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하는 차관자금을 관리</li> </ul>
공적자금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2003년에 설치 2003~2006년 중 부담한 총 49조 원의 채무를 2027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저축 장려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6년에 설치 매년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

자료: 한국은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연중 정부 출연금 339억 원 및 한국은행 출연금 339억 원 등으로 677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sup>142)</sup> 2020년 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6만 7천 가구이다.

139)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BIS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40)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 4>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1) 수입금의 징수, 지출금의 지급 및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말한다.

142) 저축만기 시 저축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은 연 0.9~1.5%(저소득 가입자는 연 3.0~4.8%) 수준이다.

한편 기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RP, MMDA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표 III- 37. 기금 조달(운용) 현황

(십억 원)

	2019(A)	2020(B)	증감(B-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178,418	268,085	89,667
용자계정	602	470	-132
차관계정	100	219	119
공적자금상환기금	8,458	10,223	1,765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71	68	-3

자료: 한국은행



## 9. 대외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중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셜미디어, 온라인 화폐박물관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중앙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민들의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 가. 국민과의 소통 확대

한국은행은 조사연구자료의 발간·배포, 각종 회의·행사 개최,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 화폐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조사통계월보」, 「BOK 경제연구」, 「해외경제포커스」 등 총 412건의 간행물과 보도자료 및 보도참고자료 366건을 생산·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의 주요업무와 더불어 코로나19, 미 대선 등 최신 이슈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책 및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를 듣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대상 평판조사<sup>143)</sup>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차보고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 주요 보고서와 기준금리 조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수립과 업무수행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통화정책 워크숍<sup>144)</sup>」을 개최하여 코로나19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학계와 교환하고 한국은행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한층 높였다.<sup>145)</sup>

한편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먼저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정책대응 게시판을 신설하여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은행 역사 등을 담은 기념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디지털 화폐박물관을 개설하는 등 통합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대폭 확충하였다. 또한 대량주화 교환신청 시스템, 화폐박물관 개인관람 예약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한국은행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표 III - 38. 홈페이지(메인) 방문자 수 (기간 중)

프로그램	2018 <sup>1)</sup>	2019	2020
홈페이지 방문자 수	2,861	4,336	6,069

주: 1) 2018년 5월 16일 이후 통합 홈페이지 가동

자료: 한국은행

143) 여론조사 전문가관을 통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역할 충실성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긍정 평가 비중이 2019년에 비해 확대되었다.(일반국민 2019년 38.1%→2020년 46.2%, 전문가 68.0%→72.7%)

144)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전국 23개 대학에서 총 28명의 교수가 참석하였다.

145) 다만 기존에 개최해오던 「통화정책 경시대회」와 「청소년 경제 알기 UCC 동영상 공모전」은 다수 간 대면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최하지 않았다.



자료: 한국은행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한국은행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알기 쉬운 위조지폐」, 「한국경제의 발전과 한국은행」등의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여 한국은행의 업무와 역사 등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댓글 이벤트로 수집한 한국은행 입행에 대한 궁금증을 직원들이 답변하는 유튜브 영상인 「입행이 궁금해」를 제작하여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복코노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등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책자 및 보고서를 대담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수요자 친화적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정기적으로 게시하면서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통화정책방향 및

보도자료 기자간담회의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커뮤니케이션 운영 방식을 모색하여 지원하였다.

표 III - 39.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sup>1)</sup>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개설 시점	2013년 7월	2014년 8월	2014년 8월	2014년 10월
수록 콘텐츠 수(개)	901	1,720	1,555	1,273
구독자 수(명)	24,900	15,090	1,957	9,939

주: 1) 2020년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상설전시와 더불어 화폐기획전 「열차타고 떠나는 유라시아 화폐여행」과 갤러리기획전 「墨香(묵향)」을 개최하여 화폐와 예술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였다. 또한 주말강좌·어린이 박물관교실 운영 등을 통



해 전시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 및 편의 증진에도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휴관과 제한적 운영을 반복한 결과 2020년 중 화폐박물관 관람객 수는 3만 1천명으로 전년 27만 7천명보다 24만 6천명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화폐박물관의 대국민 서비스 위축을 보완하고자 2020년 5월부터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도 지속해나가고 있다.

표 III- 40. 화폐박물관<sup>1)</sup> 관람자 수 (기간 중)

(천 명)

	2018	2019	2020
관람자 수	264	277	31

주: 1) 지역본부 화폐전시실 포함  
자료: 한국은행

이 밖에도 외환거래심사, 화폐발행, 통화정책 등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문의와 민원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III- 41. 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sup>1)</sup> (기간 중)

(건)

	2018	2019	2020
접수건수	1,234	1,385	1,420
처리건수	1,234	1,385	1,420

주: 1) 민원사무처리부 사후 등록 등으로 변동 가능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한국은행 직원들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비대면 성금지원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였다. 대면 봉사활동을 자제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도시락 급식 등에 필요한 성금을 지원하고 노후차량 교체 등 수요가 긴요한 복지단체에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림 III - 25. 한국은행 봉사단체 차량지원 (2020년 11월 12일)



자료: 한국은행

## 나. 대국민 경제교육 활동 강화

한국은행은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 및 한국은행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경제교육을 수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 온라인 연수 등 디지털 기반 교육을 크게 확충하였다.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경제 분야를 다루는 「한은금융강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대학 정규 과정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경영경제특강」 및 「기술경제세미나」를, 국민대학교에 「거시금융정책」을 각각 개설·운영하였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3월부터는 화상으로 전환하여 강의를 지속하였다.

청소년 대상 교육으로 「경제교육봉사단」<sup>146)</sup>을 활용한 「청소년 경제강좌」 및 「교사직무연수」를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sup>147)</sup> 차원에서 실업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경제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체제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현장 경제교육 실적을 보면, 코로나19로 현장 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2020년 중 경제교육 실적은 예년 대비 크게 낮은 모습을 보이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양질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실시간 화상 강의를 실시하는 등 경제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sup>148)</sup>

표 III - 42. 현장 경제교육 실적<sup>1)</sup>

	(회, 명)		
	2018	2019	2020 <sup>2)</sup>
청소년교육	749 (33,659)	773 (29,615)	45 (2,123)
일반교육	587 (34,261)	710 (45,755)	139 (5,986)
합계	1,336 (67,920)	1,483 (75,370)	184 (8,109)

주: 1) ( ) 내는 교육인원수

2) 화상강의 포함

자료: 한국은행

책자, 동영상 등 매체를 통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제교육 책자를 개정하고 동영상 19편, 모션그래픽 2편을 각각 제작하였다.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일반인용)」 책자를 일반인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였다. 해당 단원과 연관되는 최근 이슈를 읽을거리에 수록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예시, 그래프 등을 추가하였다. 중앙은행 경제교육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 통화정책 단원의 내용도 보강하였다. 아울러 학습자의 수요가 미디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책자의 주요 내용 10편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 직원이 경제교육실 교수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사직무연수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국민 경제교육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대내외 협력 활동을 강화하였다. 최근 경제교육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은행의 경제교육 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OECD

146) 대학생 중에서 적임자 선발을 통해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의 경제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

147)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금융소외계층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회계층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148)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 - 6> 「다양한 온라인 교육채널 확충」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sup>149)</sup>를 중심으로 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밖에 국내 경제교육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도 강화하였다.

---

149) 금융경제와 관련하여 국가 간 정보 교환 및 국제표준(모범사례)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8년 5월에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특별기구이다.

## 참고 III-5.

###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은행의 역사와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은행 70년사」를 발간하여 지난 70년간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과 한국은행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변화와 도전에 대비하는 계기로 삼았다. 동 책자는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의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중앙은행제도와 통화신용정책의 변천사를 압축적으로 기술하여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그림 III- 26. 「한국은행 70년사」



자료: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발달 등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수요자 친화적인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였다.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공동제작한 TV 다큐멘터리 「혼돈시대의 중앙은행」은 총 3부작에 걸쳐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 역사라는 비교적 무거운 주제를 알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홍보 및 교육콘텐츠로 활용하였다. 또한 웹툰 「함께 꿈꾸는 세상(작가: 유성연)」

을 유명 포털(네이버)에 연재하여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은행의 정책 수행 과정을 만화로 쉽게 풀어내어 한국은행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을 높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역사, 주요 정책·기능 등을 정리한 리플렛을 국내 주요 기관에 비치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창립 70주년 기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TV 다큐멘터리, 웹툰 등의 기념사업 콘텐츠를 함께 수록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은행의 역사, 화폐 변천사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한국은행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창립 70주년 기념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여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그림 III- 27. TV 다큐멘터리 「혼돈시대의 중앙은행」



자료: 한국은행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다양한 수단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림 III- 28. 창립 70주년 기념 홈페이지



자료: 한국은행

## 참고 III-6.

### 다양한 온라인 교육채널 확충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현장 경제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여 콘텐츠 개발, 화상 강의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채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들이 경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모션그래픽 등을 제작하여 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재하였다.

그림 III- 29. 동영상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1편 「돈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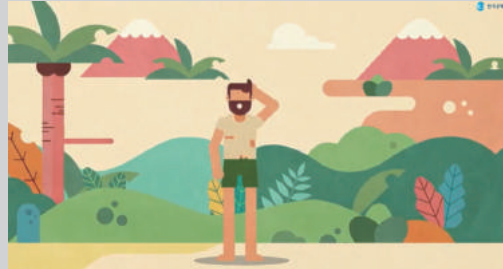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먼저 한국은행 발간 책자인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주요 내용 10편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금융시장, 통화정책 등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를 선정하여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교육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물가를 주제로 제작한 「세월 속에 숨겨진 물가의 비밀」에서는 자장면을 통해 본 구매력 변화, 가격과 물가의 차이 등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청소년 수준에 맞추어 설명하였다.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수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리, 환율 등 핵심 경제지표를 설명하는 카드뉴스 8편을 동영상으로 구성하였다. 2019년에 이어 문학 속에

숨겨진 경제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인 문학 속 경제 이야기 「로빈슨 크루소」, 「걸리버 이야기」 2편도 추가로 제작하였다.

그림 III- 30. 모션그래픽 「로빈슨 크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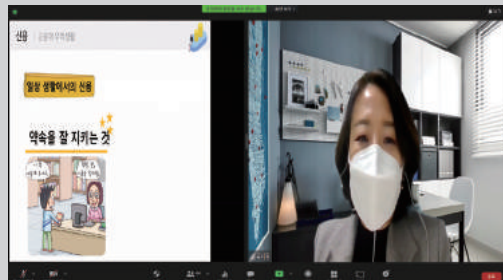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편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자와 소통하는 교육을 위해 실시간 화상 강의를 실시하였다. 「대학 전문강좌」 및 「교사직무연수」를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교육 콘텐츠 제작, 화상 강의 실시 등을 통해 비대면 상황에서도 대국민과 소통하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림 III- 31. 비대면 「동계 초등교사 직무연수」



자료: 한국은행

---

# IV

## 경영 상황

1. 조직 운영
2. 재무 현황

93

103

# 2020 경영 상황

## 조직 체계



### 디지털혁신실 신설

신기술 적용방안 연구,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디지털 인프라 확충



### 디지털화폐 연구조직 확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및 국제 협력



###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구축 조직 정비

운영조직의 전산정보국 이관

## 운영 방식



### 「비전 2030」 수립 추진

정책영역 확대 및 정책수단 확충,  
조사연구의 질적 고도화,  
디지털 혁신, 경영인사 혁신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대책반 구성,  
업무지속계획 수립, 재택근무 운영



### IT시스템 개선·확충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디지털워크스페이스 등 구축

## 재무 현황



자산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처분

## 1. 조직 운영

2020년 중 한국은행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직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혁신 및 IT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신설·개편하는 한편,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업무량 및 중요도가 감소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재정비하였다.

### 가. 조직 체계

#### 전행적 차원의 디지털 혁신 추진

최근 급격히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정책운영 및 내부경영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 7월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할 전담조직인 「디지털혁신실」을 신설하였다.

디지털혁신실은 전행적 차원의 업무추진 및 부서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기획협력국 담당 부총재보 직속으로 설치되었으며, 하부조직으로는 「혁신기획팀」, 「디지털신기술반」, 「데이터서비스팀」을 배치하였다. 디지털혁신실은 신기술(AI, 빅데이터 등)의 정책수행 및 내부경영에의 적용방안 연구,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전략 수립, 최신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조직 확충

한국은행은 민간 디지털화폐 확산 및 현금 수요 감소 등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관련 연구조직을 확충하였다. 미국, 유럽, 중국, 스웨덴 등 해외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CBDC 관련 연구 및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및 인력을 지원하였다.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 내 「디지털혁신연구반」을 폐지하는 대신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하고, 팀 내에 「기술반」을 설치하였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해외 중앙은행의 CBDC 관련 기술검토 사례를 참고하여 주요국들과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구축 관련 조직정비

한국은행은 1999년 구축된 회계·결제시스템의 기반기술이 사양화되고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2월 「차세대시스템개발단」을 기획협력국 소속으로 설치하였다. 동 시스템 구축작업이 2020년 2월부터 테스트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개발조직인 「차세대시스템개발단」을 운영조직인 전산정보국 소속으로 2020년 2월 이관한 후 조직을 재편하였다.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 신시스템이 202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향후 시스템 운영자 및 사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업무프로세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나. 조직 운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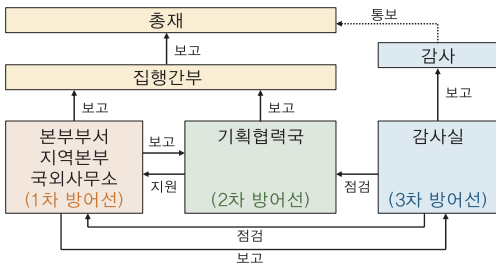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업무량 및 중요도가 감소한 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감축한 자원을 신규사업 추진 및 기능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인력운용 방식 및 수행 업무 점검 등을 통해 전산정보국 「개인정

보보호반»,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정보반」을 폐지하였으며, 발권국 「화폐수급지원반」을 「화폐수급시설개선반」으로 통계국 「빅데이터통계연구반」을 「통계연구반」으로 전환하였다.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3중 방어모형(3-lines of defense model)에 따라 운영리스크<sup>150)</sup>를 관리하고 있다.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각 부서에서는 부국장을 ‘운영리스크 관리자’로 지정하여 동 관리자의 통할 하에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2차 방어선으로 기획협력국 내에 운영리스크 및 업무연속성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전행적인 차원에서 관련 업무의 기획·조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사실은 3차 방어선으로서 내부 감사 등을 통해 1·2차 방어선의 리스크 관리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IV- 1.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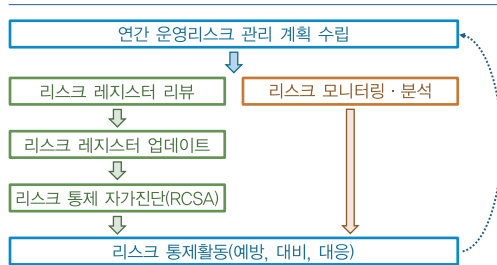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운영리스크 관리 업무는 「리스크 레지스터<sup>151)</sup>」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리스크 레지스터는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등을 포함한 리스트로 대내외 업무여건 변화, 행내외 발생 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다.

각 부서에서는 매년 리스크 레지스터 기반의 리스크 통제 자가진단(RCSA, Risk & Control Self-Assessment)을 실시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인식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협력국은 모니터링 및 행내외 발생 사건 분석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전 세계 중앙은행 등의 운영리스크 관리자 모임인 IORWG(International Operational Risk Working Group)<sup>152)</sup>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각국 중앙은행의 운영리스크 및 업무연속성 관리와 관련한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다.

**그림 IV- 2. 한국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흐름도**



자료: 한국은행

150) 부적절한 업무프로세스나 시스템, 직원관리 미흡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조직의 목표 달성이 저해되거나 재무적 손실, 평판 훼손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한다.

151) 리스크 관리와 감사 업무의 체계적인 연계 수행을 위해 2015년 도입한 리스크 레지스터는 리스크와 함께 관리 조직, 반부패지표 여부, 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및 영향에 대한 평가, 통제활동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52) 각 국 중앙은행, BIS 및 IMF 등 100여개 이상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2011년 12월에 가입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사이버공격, 자연재난, 감염병 확산 등 다양한 위협요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고 모의훈련 등을 통해 이를 수시로 보완하고 있다.

2020년 중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책반(반장: 부총재)」을 구성하고 행내 감염 차단 및 확진자 발생 시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다.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 정부 방역정책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점검 및 보완하였다. 업무지속계획에 따라 재택근무, 분산근무, 시차출퇴근제도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며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업무수행방식을 변경하였다.

#### 다.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 수립

한국은행은 2020년 6월 12일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하여,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을 수립하여 공표하였다.

한국은행을 둘러싼 대외여건을 보면 저성장·저물가, 코로나19 확산 등 전례 없는 위기 발생으로 중앙은행의 비상시적 정책수단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다. 국내외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으나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도 부족하여 정책수행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은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을 한국은행의 정책운영 및 내부경영 모두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디지털혁신 추진과 함께, 경영

인사 시스템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인 전문성, 조직 시너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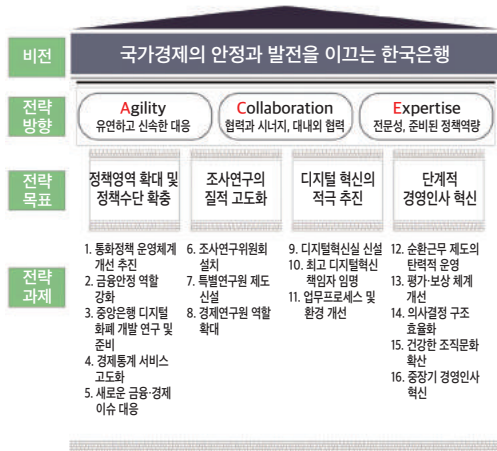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BOK 2030」은 향후 10년 시계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비전을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비전 달성을 위해 정책·연구 역량의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유연성(Agility), 조직 시너지(Collaboration), 전문성(Expertise)」을 전략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BOK 2030」은 핵심영역별(정책, 조사연구, 디지털 혁신, 경영인사) 4대 전략목표와 이를 구체화하는 16개 세부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영역을 확대하고 정책수단을 확충하며 새로운 금융경제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정책). 부서별·수직적 조사연구 관행에서 벗어나 진행적으로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협업하는 방식으로 심층적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정보통신기술·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조사연구 지원 등을 통해 조사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조사연구). 한편 한국은행 내 축적된 데이터를 통합운영하고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디지털 혁신), 평가·보상 체계를 포함한 근본적 변화를 위해 중장기 시계에서 경영인사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경영인사)하기로 하였다.

한국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BOK 2030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혁신실 신설 등 조직 개편, 제반 규정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림 IV-3. 「BOK 2030」 전략체계



자료: 한국은행

## 라. 교육훈련

### 연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한국은행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집합 연수 실시에 일부 제약이 불가피해지고 연수조직도 일부 축소됨에 따라 연수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2020년 연수운영계획을 마련하였다.

우선 지역본부 직원들의 주말 이동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합연수 대부분의 일정을 축소 조정(3~4일→2~3일)하는 대신 커리큘럼 중 교양과정을 최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연수 일정과 과정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였다. 참가직원들로 하여금 온라인으로 교육 콘텐츠를 미리 학습하도록 한 다음 단기간의 집합연수로 전환하는 단기집중과정(flipped learning)을 강화하였으며 일부 직무연수는 관심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강의(open class) 형태로 개설하였다.

또한 연수의 직무 연계성을 높이고 연수참가

직원들의 니즈(needs)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연수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하였다. 내부 자문기구인 「교육과정협의회」와 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연수 평가 및 수요 등을 반영하여 수요가 제한적인 해외 저명교수 초청 「고급 직무연수」, 「법경제학」 등의 과정을 폐지하고 고급수학과정은 「확률과정」, 「미분방정식」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하는 등 축소조정하였다. 한편 조직개발연수 중 내용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승진자과정과 역량강화과정을 연수 참가 부담 경감과 전체 연수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각 격년 실시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가능한 모든 과정에 사례학습(case study)과 실습을 포함하도록 연수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응한 연수운영

2020년 들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집합 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대부분의 연수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연수 일정 및 방식 변경, 철저한 방역 실시 등 제반 조치를 취해 가면서 비대면 연수 진행에 필요한 기자재 등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함으로써 제한된 여건에서나마 직원들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제고로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직무연수의 경우 연초 계획된 일정들을 연수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재조정하고 비대면 연수여건이 갖춰진 하반기부터는 대부분의 직무연수를 재택 온라인 연수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연수의 내용,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면 집합연수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 조직개발연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실시 시기를 조정하고 외부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일부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계획되었던 연수의 상당수가 불가피하게 취소됨에 따라 2020년 직무 및 조직개발 연수운영 실적은 연초 계획 대비 57%에 그쳤다.

국외업무연수의 경우 해외 출입국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연수 손실을 일부나마 보완하고자 하였다. CCBS(Centre for Central Banking Studies), Central Banking Training 등 주요 연수기관이 실시하는 한국은행 직무 관련 온라인 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국외업무연수 대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외 IMF-STI 등이 주관하는 Webinar 관련 다양한 정보도 시의성 있게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택 온라인 국외업무연수 기준 마련, 연수학점 부여, 필요 기자재 대여 등을 통해 직원들의 활발한 연수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한편 스마트러닝 시스템(직원용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동영상 플레이어를 개편하는 등 사용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응용 데이터 분석」, 「화폐금융론」 등의 신규 콘텐츠를 확충하는 한편 「엑셀을 이용한 통계기법의 이론과 응용」 등 노후화된 콘텐츠의 쇄신을 도모하였다.

### 조직역량 강화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조직개발연수는 조직역량, 관리 및 소통 능력 강화, 조직가치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였다. 중간관리자 이상 직원들의 언론 대응 관련 강의시간을 확대한 한편 「코칭 리더십」, 「임파

워먼트」 등의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 세대간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운영하였다.

아울러 신입 일반기능직원연수를 신설하여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속감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밖에 리더십 지식컨텐츠 학습 프로그램, 소통강화 이리닝연수 등 조직원들의 리더십과 통찰력 함양, 소통 강화 등을 위한 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퇴직예정자의 은퇴 후 생애설계와 사회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퇴직준비연수도 내실 있게 실시하였다.

### 마. 인력 운영

한국은행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사명감, 조직융화력 등 기본소양은 물론 전문지식 및 직무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운영 노력도 병행하였다.

2020년에는 신입 종합기획직원(G5) 55명을 포함해 모두 110명을 채용하여 2015년 이후 100명 이상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였다. 이는 최근 정년퇴직 등 중장기 인력수급 사정 변화를 감안한 데 주로 기인한다.

표 IV-1. 연도별 직원 채용 규모<sup>1)</sup>

채용구분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종합기획직원	70	64	70	59	59	55
일반사무직원	20	30	30	19	17	20
일반기능직원	5	7	21	38	39	24
기타	9	3	8	13	11	11
합계	104	104	129	129	126	110
남	54	50	69	95	53	53
여	50	54	60	34	73	57
(비중)	(48.1)	(51.9)	(46.5)	(26.4)	(57.9)	(51.8)

주: 1) 채용실시연도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성별, 출신학교 등을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면접 과정에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였다.

인력운용의 전문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다. 박사급 조사연구인력, CBDC 전문가, 기후변화 전문가 등 총 11명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였다. 또한 일반사무직원(C3) 채용 시에도 경력직원을 14명 선발함으로써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의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운용에 따른 지방인재 채용, 상업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을 지속한 데 이어 장애인에 대한 별도 전형과정을 운용함으로써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의 여성 관리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0년 말 4급 이상 여성 비중이 19.3%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IV-2. 한국은행 여성 관리자<sup>1)</sup> 인원

채용구분	(명, %)					
	2000	2005	2010	2018	2019	2020
여성관리자	35	76	90	210	230	251
비중 <sup>2)</sup>	3.6	7.1	8.2	16.4	17.8	19.3

주: 1) 종합기획직원 4급 이상 중 여성직원  
2) 종합기획직원 관리자 인원 중 여성 비중  
자료: 한국은행

## 바.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한국은행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청렴·반부패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직원들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강의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한국은행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대외활동 시 숙지해야 할 지침 및 신고 관련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한국은행 임직원 대외활동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직원들의 대외활동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월 첫 번째 영업일을 「청렴 및 청탁금지 강조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주제를 사내 인트라넷 및 외부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였다. 나아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반부패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주요 사업에 대한 대외적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2인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본부 및 지역본부 시설관리 용역 등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위임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였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청렴도 및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청렴한 중앙은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사. IT시스템 개선·확충

2020년 중 한국은행은 3년에 걸쳐 추진한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IT 기술의 발전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T시스템을 개선·확충하였다.

첫째, 2018년에 시작된 차세대 회계·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 초 개발을 완료하고 본부, 지역본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통합테스트 및 이행검증 단계를 거쳐 목표했던 10월 12일에 성공적으로 가동하였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진행적으로 시행된 재택근무 및 분산근무 지원을 위해 원격접속 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한국은행 및 국내외 기관과의 원활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IT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셋째, 업무정보의 체계적인 축적과 공유·협업을 촉진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업무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Digital Workspace를 구축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국, 전산정보국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연구 지원을 위해 2019년 구축한 조사연구플랫폼을 고도화하고 2020년 6월에

정식 가동하였다. 고도화 사업을 통해 통합 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다양한 데이터분석을 위해 고성능 분석 서버와 고급 분석·시각화 툴을 도입하는 한편,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혁신에 대응하여 기존 데이터분석 전담조직인 데이터분석팀을 디지털혁신실로 확대 개편하였다.

다섯째, 통계편제 절차 개선, 대국민 통계제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신경계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을 2020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새로운 경제통계시스템은 2년여에 걸쳐 구축될 예정이며, 2021년 중 1차 개발을 완료하고 계속하여 2차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섯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노후화된 서버 및 통신기기를 신규 기기로 대체하였으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위협분석기기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 아. 통합별관 건축 추진

한국은행은 국가중요시설인 본부 건물<sup>153)</sup>들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별관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1별관 철거, 통합별관(지상16층, 지하4층) 신축, 본관 및 2별관 리모델링이 포함된 프로젝트로 2019년 12월 5일에 공사가 착수되었다.

2020년은 기초공사가 진행된 한 해였다. 통합별관으로 흡수되는 1별관이 철거되었고 지하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 지하층 공사로 인해

153) 한국은행 본부 부지에는 구관(준공:1912년), 본관(1987년), 1별관(1964년), 2별관(1932년) 및 소공별관(1965년) 등 총 5개의 건물이 산재해 있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화폐박물관(사적 제280호)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진동이 적은 지하연속벽(Diaphragm Wall) 공법을 적용하여 지하벽체를 조성하였다. 2020년 말 현재 지상 1층 골조가 완성된 상황이고 지하로 흙을 파 내려가며 구조체를 조성하는 역타 공사(Top-down) 방식으로 지하층을 작업중이며 비교적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통합별관 건축품질을 제고 하기 위하여 기존 설계를 개선하였다. 정부 정책에 부응한 어린이집 확충, 업무 특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유사업무 수행부서 집중배치, 견고성을 강화하는 구조변경, 상징성과 활용성을 제고하는 통합로비 개선 등이다.

2021년에는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고 내외부 마감재 공사도 대부분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리스크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 통합별관 건축사업은 2022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그림 IV- 5.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현장(2021년 1월 현재)



자료: 한국은행

그림 IV-4. 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자료: 한국은행



## 참고 IV-1.

### 디지털혁신실 신설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10년 시계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BOK 2030을 수립하여 공표하였다. BOK 2030에서는 향후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도 한국은행이 정책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운영부터 내부경영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디지털 혁신의 적극적 추진을 전략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20년 7월 디지털 혁신 추진 전담조직으로 디지털혁신실을 신설하였다. 디지털혁신실은 BOK 2030 전략방향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업무 중심의 신속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역량 강화라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업무 중심의 혁신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연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표 IV- 3. 「BOK 2030」 전략방향과 디지털혁신실의 업무 추진 방향 간 관계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ag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혁신의 유연하고 신속한 추진</li> <li>디지털 혁신 관련 의사결정과 업무추진 방식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강화</li> <li>디지털 전략 추진에 있어 신속한 디지털 혁신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간 균형 추구</li> </ul>
협업과 시너지(collab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혁신의 행내 전파와 원활한 정착 도모</li> <li>협업과 소통을 통해 디지털 혁신 수요를 파악하여 디지털 혁신의 원활한 정착 및 업무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li> <li>행내 데이터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활용·공유 극대화</li> </ul>
전문성, 준비된 정책역량(expert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li> <li>데이터 및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역량 강화</li> <li>데이터 분석기반 및 분석역량 고도화</li> <li>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조사연구역량 및 무 효율성 제고</li> </ul>

자료: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은 혁신 조직으로서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디지털 혁신 주관 부서로서 디지털 혁신 전략의 기획 및 이행과정에서 부서 간 조율, 이행과정에서의 리스크 탐지 및 관리를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국 및 여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디지털 혁신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전담조직으로서 데이터 관련 협업 활성화, 데이터 활용·공유 확대 등을 목표로 중장기 데이터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데이터와 관련된 전행적 의사결정 및 협의 과정을 지원한다.

둘째, 혁신기획팀은 행내 데이터 자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 환경에 대비하는 데이터 거버넌스<sup>154)</sup> 체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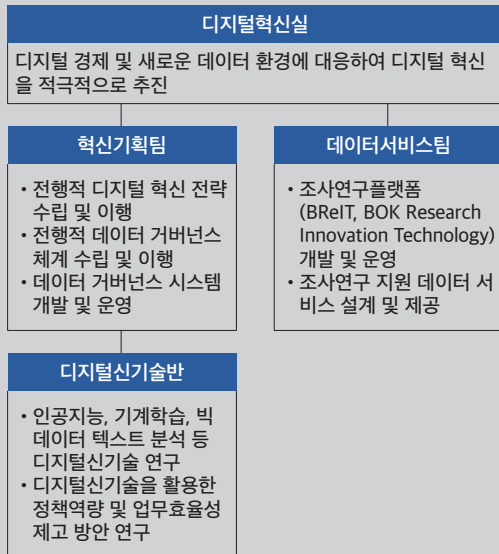
셋째, 데이터서비스팀은 행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조사연구플랫폼(BReIT, BOK Research Innovation Technology)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한다.

154) 데이터를 조직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조직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지정하는 동시에 데이터 정책과 표준절차를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과 표준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다. 특히 부서별 데이터 분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콘텐츠를 확충하고 보다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디지털신기술반은 사용자 부서의 업무 수요에 중점을 두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수행하고 그 성과를 행내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등을 경제성장 전망의 정도를 제고하고 금융경제의 잠재리스크를 포착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업무자동화 등 업무 전반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림 IV- 6. 디지털혁신실 조직도



## 2. 재무 현황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발권력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금융기관 및 정부에 대출하거나,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한다. 그러나 국외부문의 외화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시중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함과 동시에 외화자산을 매입·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은 외화증권 및 예치금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의 대부분은 화폐발행, 통화안정증권발행과 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손익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와 외화자산 운용수익률의 차이, 환율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자본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이 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법」 제99조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sup>155)</sup>하고, 잔여 이익 중 일부를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한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나머지 순이익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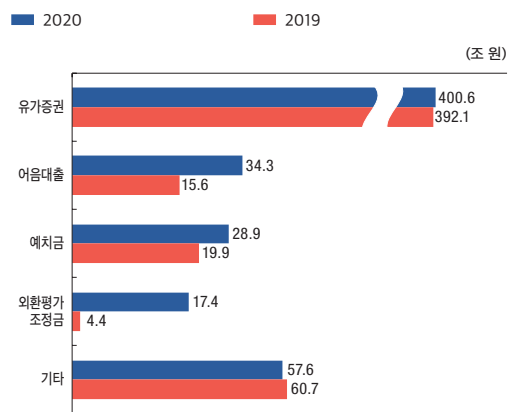
### 자산

2020년 말 총자산 규모는 538조 7,304억 원으로 2019년 말의 492조 5,748억 원보다 46조 1,556억 원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은행의 정책대응으로 국공채 매입이 늘어 유가증권 잔액이 증가한 데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및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

한 대출 증가로 어음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주요 항목을 보면 유가증권 잔액이 400조 6,480억 원으로 2019년 말에 비해 8조 5,881억 원 증가하였고, 어음대출과 예치금의 잔액은 각각 34조 2,723억 원, 28조 8,721억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18조 7,039억 원, 8조 9,741억 원 증가하였다. 또한 외환평가조정금도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12조 9,933억 원 증가하였다.

그림 IV- 7. 자산 현황<sup>1)</sup>(주요 항목) (기말 기준)



주: 1) 자산 총계는 2019년 말 493조 원에서 2020년 말 539조 원으로 46조 원 증가  
자료: 한국은행

### 부채 및 자본

2020년 말 부채 규모는 516조 5,591억 원으로 2019년 말의 474조 502억 원보다 42조 5,089억 원 증가하였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경제주체들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확대되면서 화폐발행이 늘어난 데다 유동성 조절을 위한 통화안정계정 및 환매조건부매각증권 규모가 증

155)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법정적립금 적립기준이 결산상 순이익금의 10%에서 30%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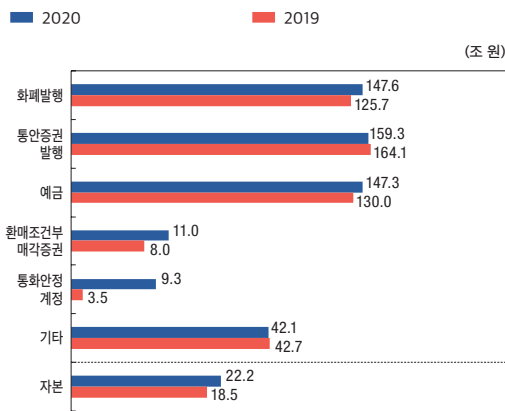
가한 데 기인한다.

주요 항목별로는 화폐발행과 예금,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의 잔액이 각각 147조 5,569억 원, 147조 3,459억 원, 11조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1조 8,580억 원, 17조 3,003억 원, 3조 원 증가하였다. 통화안정증권발행은 159조 2,570억 원으로 2019년 말에 비해 4조 8,053억 원 감소하였다.

2020년 말 자본 규모는 22조 1,713억 원으로 2019년 말의 18조 5,246억 원보다 3조 6,467억 원 증가하였다.

항목별로는 적립금이 1조 5,939억 원 증가하였고, 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이 2조 528억 원 증가하였다.

그림 IV- 8. 부채 및 자본 현황<sup>1)</sup>(주요 항목) (기말 기준)



주: 1) 부채 총계는 2019년 말 474조 원에서 2020년 말 517조 원으로 43조 원 증가

자료: 한국은행

## 손익

2020년 중 당기순이익은 7조 3,659억 원으로 2019년 중 5조 3,131억 원보다 2조 528억 원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금리 하락, 해외주가 상승 등으로 외화유가증권매매차익이 증가한 반

표 IV- 4. 손익 현황

(억 원)

과 목	2019(A)	2020(B)	증감(B-A)
총수익	164,288	198,654	34,366
영업수익	163,820	198,192	34,372
(유가증권이자)	(83,920)	(71,749)	(-12,171)
(유가증권매매익)	(58,274)	(98,978)	(40,704)
영업외수익	468	461	-7
총비용	90,716	96,764	6,048
영업비용	90,512	96,520	6,008
(통화안정증권이자)	(31,372)	(22,451)	(-8,921)
(유가증권매매손)	(24,431)	(33,728)	(9,297)
영업외비용	204	244	40
세전이익	73,572	101,890	28,318
법인세 등(-)	20,441	28,231	7,790
당기순이익	53,131	73,659	20,528

자료: 한국은행

면 기준금리 인하로 통화안정증권이자 등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영업수익은 유가증권이자가 1조 2,171억 원감소하였으나 유가증권매매익이 4조 704억 원증가함에 따라 2019년보다 3조 4,372억 원 증가한 19조 8,192억 원을 기록하였다.

영업비용은 통화안정증권이자가 8,921억 원 감소하였으나 유가증권매매손과 지급잡이자가 각각 9,297억 원, 7,126억 원 증가함에 따라 2019년보다 6,008억 원 증가한 9조 6,520억 원을 기록하였다.

## 당기순이익 처분

2020회계연도 당기순이익 7조 3,659억 원 중 2조 2,098억 원은 법정적립금으로, 341억 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각각 적립하였으며, 나머지 5조 1,220억 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였다.

# 2020년도 재무제표

표 IV- 5. 대차대조표 (제71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70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백만 원)

과 목	2020 말	2019 말
자 산		
I. 유동자산	517,448,550	471,954,912
1. 현금	-	-
2. 지금은	5,216,697	5,551,371
3. 특별인출권보유	3,667,368	3,881,477
4. 유가증권(주식 2)	400,648,018	392,059,859
가. 국채	25,939,881	16,723,089
나. 정부보증증권등	-	-
다. 외화증권	374,708,136	375,336,770
5. 예치금(주식 3)	28,872,071	19,897,967
가. 당좌예치금	22,145,299	16,911,309
나. 정기예치금	6,726,772	2,986,658
6. 당좌대출	-	-
7. 자금조정대출	-	-
8. 할인어음	-	-
9. 어음대출(주식 4)	34,272,315	15,568,425
10. 증권대출(주식 4)	-	59
11. 환매조건부매입증권(주식 5)	-	443,023
12. 정부대출금(주식 4)	213,000	313,000
13. 국제금융기구대출금(주식 4)	1,519,959	668,381
14. 외국환	65,309	72,238
15. 대리점	2,186,814	2,054,379
16. 분지점환	-	-
17. 기타자산	40,786,999	31,444,733
(외환평가조정금)	(17,379,820)	(4,386,530)
II. 비유동자산	21,281,839	20,619,849
1. 투자자산	20,676,073	20,102,520
가. 출자금(주식 6)	12,938,554	12,383,661
나. 출자증권	7,728,607	7,711,243
다. 전신전화사용권	48	48
라. 제가입권	8,864	7,568
2. 유형자산	530,585	511,460
3. 무형자산	75,182	5,869
자 산 총 계	538,730,389	492,574,761

과 목	2020 말	2019 말
부 채		
I. 유동부채	508,628,706	466,150,268
1. 화폐발행	147,556,869	125,698,873
2. 통화안정증권발행(주석 7)	159,256,957	164,062,268
3. 통화안정계정	9,250,000	3,500,000
4. 정부예금	6,213,551	3,722,048
5. 예금	147,345,917	130,045,640
가. 당좌예금	74,042,782	65,102,108
나. 결제전용예금	-	-
다. 자금조정예금	60,000	1,182,500
라. 별단예금	3,696,211	4,470,196
마. 외화예수금	69,546,924	59,290,836
바. 기타외화예금	-	-
6. 환매조건부매각증권(주석 8)	11,000,000	8,000,000
7. 특별인출권배분	3,767,790	3,849,613
8. 본지점환	-	-
9. 기타부채	24,237,622	27,271,826
(외환평가조정금)	(-)	(-)
II. 비유동부채	7,930,384	7,899,884
1. 차입금	-	-
2. 퇴직급여충당금	201,778	188,642
3. 출자증권발행	7,728,607	7,711,242
부 채 총 계	516,559,090	474,050,152
자 본		
I. 잉여금	22,171,299	18,524,609
1. 이익잉여금	22,171,299	18,524,609
가. 법정적립금	11,367,675	9,773,747
나. 임의적립금	3,437,768	3,437,768
다.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7,365,855	5,313,094
자 본 총 계	22,171,299	18,524,60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38,730,389	492,574,761

표 IV- 6. 손익계산서 (제7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70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백만 원)

과 목	2020	2019
I. 영업수익	19,819,233	16,381,991
1. 수입이자와 할인료	9,438,237	10,233,111
(1) 유가증권이자(주석 9)	7,174,936	8,391,961
(2) 예치금이자	94,424	258,616
(3) 당좌대출이자	107	4
(4) 할인어음할인료	-	-
(5) 어음대출이자	77,760	94,153
(6) 증권대출이자	32,770	4
(7) 자금조정대출이자	17	6
(8) 환매조건부매입증권이자	45,927	45,132
(9) 정부대출금이자	47,177	34,944
(10) 국제금융기구대출금이자	1,928	6,360
(11) 수입잡이자	1,963,191	1,401,931
2. 수입수수료	140,686	126,811
3. 유가증권매매익	9,897,804	5,827,352
4. 통화안정증권상환익	-	1,418
5. 외환매매익	342,506	193,299
6. 지금은익	-	-
II. 영업비용	9,651,962	9,051,201
1. 지급이자와 할인료	5,345,908	5,752,954
(1) 예금이자	1,177,922	1,227,000
(2) 통화안정계정이자	65,247	141,929
(3) 통화안정증권이자	2,245,058	3,137,165
(4)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주석 10)	98,083	199,882
(5) 차입금이자	-	-
(6) 지급잡이자	1,759,598	1,046,978
2. 지급수수료	165,341	182,331
3. 유가증권매매손	3,372,767	2,443,115
4. 통화안정증권상환손	114,691	62,155

과 목	2020	2019
5. 외환매매손	11,519	-
6. 지금은손	-	-
7. 국제금융기구출연금	31,704	24,688
8. 화폐제조비	111,446	99,308
9. 퇴직급여	35,326	29,994
10. 감가상각비	26,549	26,915
11. 무형자산상각비	4,842	4,831
12. 일반관리비	431,869	424,910
III. 영업이익	10,167,271	7,330,790
IV. 영업외수익	46,139	46,842
1. 자산처분익	10,401	1,947
2. 잡익	35,738	44,895
V. 영업외비용	24,447	20,439
1. 출연금	10,000	10,000
2. 자산처분손	13,390	9,541
3. 잡손	1,057	898
VI. 법인세등공제전순이익	10,188,964	7,357,192
VII. 법인세등	2,823,108	2,044,098
VIII. 당기순이익	7,365,855	5,313,094

표 IV- 7. 자본변동표 (제7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70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백만 원)

구 분	자본금	이익잉여금	합계
I. 2019년 1월 1일(전기초)	-	15,461,113	15,461,113
II. 정부세입 납부		-2,214,203	-2,214,203
III. 농어가기금 출연		-35,395	-35,395
IV. 당기순이익		5,313,094	5,313,094
V. 2019년 12월 31일(전기말)	-	18,524,609	18,524,609
VI. 2020년 1월 1일(당기초)	-	18,524,609	18,524,609
VII. 정부세입 납부		-3,685,294	-3,685,294
VIII. 농어가기금 출연		-33,872	-33,872
IX. 당기순이익		7,365,855	7,365,855
X. 2020년 12월 31일(당기말)	-	22,171,299	22,171,299

표 IV-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7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70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 2021년 2월 25일  
제70기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 2020년 2월 27일

(백만 원)

과 목	2020	2019	
I.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7,365,855	5,313,094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2. 당기순이익	7,365,855		5,313,094
II. 이익잉여금처분액		7,365,855	5,313,094
1. 법정적립금 적립	2,209,757		1,593,928
2. 임의적립금 적립	34,112		33,872
가. 농어가기금출연목적	(34,112)		(33,872)
나. 손실발생대비목적	(-)		(-)
3. 정부세입 납부	5,121,987		3,685,294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재무제표 주석

## 1.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가. 개요

재무제표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 정관」 제33조에 의거 제정된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됩니다.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는 중앙은행의 특성상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없으므로 작성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경우 이익금 처분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석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재무제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나. 자산·부채의 계상 및 평가기준

자산은 취득시점에 계상하고 부채는 부담시점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1) 유가증권

유가증권 중 채권은 상각후원가로, 주식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취득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채권에 대해 개별법을 적용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투자대상물에 대한 투자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다. 손익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계상하고 있습니다.

## 라. 외화환산기준 및 외환매매손익 인식기준

### (1) 외화환산기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및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환산 시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연계정인 외환평가조정금계정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외화표시 수익과 비용은 거래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2) 외환매매손익 인식기준

외환매매손익은 원화를 대가로 보유외환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도한 외환의 대응원화금액에서 동 외환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마. 환매조건부매매거래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증권을 담보로 한 자금의 대차거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로 증권을 매입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환매조건부매입증권계정에 계상하고, 환매조건부로 증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매각증권계정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바. 유형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1) 유형자산

유형자산 중 건물은 정액법을, 건물 이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을 각각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2) 무형자산

무형자산 중 개발비는 정액법을, 소프트웨어는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사.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종업원이 부담할 국민연금납입액의 일부를 은행이 대납하고 종업원 퇴직 시에 퇴직금에서 회수하는 국민연금전환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아. 법인세등

법인세등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와 동 법인세에 부가되는 법인 지방소득세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2. 유가증권

유가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20 말	2019 말
과목	종목		
국채	국고채권	25,939,881,384,189	16,723,089,441,763
정부보증증권 등	-	-	-
외화증권	외국정부채 등	374,708,136,406,076	375,336,769,632,006
합계		400,648,017,790,265	392,059,859,073,769

## 3. 예치금

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20 말	2019 말
과목	예치기관		
당좌예치금	국외금융기관	22,145,298,688,106	16,911,309,130,597
정기예치금	국외금융기관	6,726,772,026,721	2,986,657,966,724
합계		28,872,070,714,827	19,897,967,097,321

## 4. 대출금

대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20 말	2019 말
과 목	대여처		
어음대출	국내금융기관 등	34,272,315,000,000	15,568,425,000,000
정부대출금	기획재정부	213,000,000,000	313,000,000,000
국제금융기구대출금	IMF	1,519,959,119,142	668,380,632,403
증권대출	국내금융기관	-	59,003,440
합 계		36,005,274,119,142	16,549,864,635,843

## 5. 환매조건부매입증권

환매조건부매입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20 말	2019 말
과 목	예치기관		
원화환매조건부매입증권	-	-	-
외화환매조건부매입증권	국외금융기관	-	443,023,020,000
합 계		-	443,023,020,000

## 6. 출자금

출자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20 말	2019 말
과 목	출자대상		
국내출자금	한국수출입은행	1,165,000,000,000	1,165,000,00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645,000,000,000	645,000,000,000
	소계	1,810,000,000,000	1,810,000,000,000
국외출자금	국제금융기구	11,128,553,904,998	10,573,660,933,234
합 계		12,938,553,904,998	12,383,660,933,234

## 7. 통화안정증권발행

통화안정증권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20 말	2019 말
이표채	146,786,957,302,301	152,172,267,998,487
할인채	12,470,000,000,000	11,890,000,000,000
합계	159,256,957,302,301	164,062,267,998,487

## 8. 환매조건부매각증권

환매조건부매각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20 말	2019 말
과목	상대처		
원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	국내금융기관	11,000,000,000,000	8,000,000,000,000
외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	국외금융기관	-	-
합계		11,000,000,000,000	8,000,000,000,000

## 9. 유가증권이자

유가증권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20	2019
원화증권이자	455,327,562,843	429,806,158,714
외화증권이자	6,719,608,758,641	7,962,154,892,211
합계	7,174,936,321,484	8,391,961,050,925

## 10.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

구분	2020	2019
원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90,533,166,001	166,794,129,245
외화환매조건부매각증권이자	7,549,736,031	33,087,853,997
합계	98,082,902,032	199,881,983,242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국은행 총재 귀하

### 감사의견

우리는 한국은행(이하 “은행”)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은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은행의 재무제표는 은행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을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강조사항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은행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 주석 1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주석 1은 은행의 재무제표는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되며, 동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계관습을 적용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항

은행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한영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0년 2월 27일자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은행법 제8조 및 한국은행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회계규정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은행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은행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은행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불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반영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은행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베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삼익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 용 모



2021년 2월 23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은행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삼익회계법인은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회계 및 세무 관련 용역과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NEXIA International의 한국 회원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로구 우정국로 48(전차동) S&S 빌딩 12층  
전화: (02)397 6700 팩스: (02)730 9559 www.nexia.co.kr

---

# 부록

1. 한국은행 조직도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3. 경제일지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 1. 한국은행 조직도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 1)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강원, 인천, 제주, 경기, 경남, 강남본부 2)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제주, 경기본부 3) 목포, 전

스크팀, 대외협력팀, 조직관리팀, 예산회계팀
역경제팀
규팀
신기술반), 데이터서비스팀
팀(정보자료반), 커뮤니케이션운영팀(사료반), 뉴미디어팀, 화폐박물관팀
제교육운영팀
호팀, 품질관리팀, 전산운영부(경영시스템팀(IT지원반), 정책시스템팀), 전산관리부(주전산팀, 서버팀, 통신팀), 회계결제시스템부(총괄반), 결제시스템팀)
원반), 인사운영팀, 급여후생팀, 노사협력팀(열린상담반), 경리팀
영팀, 조달관리팀
영팀
영팀, 연수지원팀, 교수팀
석팀, 거시재정팀, 국제무역팀, 고용분석팀, 물가분석부(물가동향팀, 물가연구팀), 거시모형부(전망모형팀, 모형연구팀), 국제경제교육유럽경제팀, 아태경제팀, 중국경제팀)
구반), 통계조사팀, 통계정보팀(ECOS재구축반), 금융통계부(금융통계팀, 자금순환팀, 국제수지팀, 국외투자통계팀, 기업통계팀), 특총괄팀(분배국민소득반), 지출국민소득팀, 투입산출팀, 국민B/S팀, 물가통계팀)
리스크팀, 안정분석팀, 금융규제팀, 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 비은행분석팀), 금융안정연구부(금융안정연구팀, 금융제도연
전문은행반), 일반은행1팀, 일반은행2팀, 특수은행팀
획팀, 정책분석팀, 정책협력팀, 정책연구부(통화신용연구팀, 정책제도연구팀)
영팀, 자금시장팀, 금융시장연구팀, 자본시장부(채권시장팀, 주식시장팀)
제협력반), 결제연구팀, 결제운영팀(지급결제개선반), 결제업무팀, 결제감시부(결제안정팀, 결제리스크팀), 전자금융부(전자금융사팀, 디지털화폐연구팀(기술반))
획팀(화폐수급시설개선반), 화폐수급팀, 화폐관리1팀, 화폐관리2팀, 화폐연구팀
계팀, 외환시장팀, 국제금융부(자본이동분석팀, 국제금융연구팀), 외환업무부(외환심사팀, 외환건전성조사팀, 외환정보팀)
코푸르트, 동경, 런던, 북경(홍콩, 상해)
구반), 국제기구팀, 지역기구팀, 금융협력팀, 교류협력부(대외교류팀, 지식협력팀)
획팀, 리스크관리팀, 위탁1팀, 위탁2팀), 투자운용부(운용전략팀, 정부채1팀, 정부채2팀, 회사채팀, 자산유동화채팀), 운용지원부(시스템팀)
화연구실, 국제경제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미시제도연구실, 북한경제연구실
대전충남, 충북, 강원, 인천, 제주, 서울,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본부 ※ [ ]내는 부 수, ( )내는 팀 수, < >내는 연구실 수
총무팀 <sup>1)</sup> , 기획조사부(기획금융팀, 경제조사팀) <sup>2)</sup> , 기획조사팀 <sup>3)</sup> , 업무팀, 화폐관리팀 <sup>4)</sup>
력반), 경영관리감사팀, 정책현업감사팀, 외환국제감사팀, 조사통계감사팀, 전산정보감사팀





##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 차례

####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통화정책방향 (2020년 1월 17일)	123
◇ 통화정책방향 (2020년 2월 27일)	123
◇ 통화정책방향 (2020년 3월 16일)	124
◇ 통화정책방향 (2020년 4월 9일)	125
◇ 통화정책방향 (2020년 5월 28일)	125
◇ 통화정책방향 (2020년 7월 16일)	126
◇ 통화정책방향 (2020년 8월 27일)	127
◇ 통화정책방향 (2020년 10월 14일)	128
◇ 통화정책방향 (2020년 11월 26일)	129
◇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20년 12월 24일)	130

#### (2)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2020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2020년 1월 17일)	138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2020년 2월 27일)	138
◇ 「한국은행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2020년 3월 12일)	139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0년 3월 16일)	139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2020년 3월 16일)	139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2020년 3월 26일)	139
◇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2020년 3월 26일)	140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2020년 3월 26일)	140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2020년 4월 9일)	141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2020년 4월 9일)	141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2020년 4월 9일)	141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및 운용방안(2020년 4월 16일)	142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2020년 5월 14일)	143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2020년 6월 24일)	143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한도 및 조건 결정(2020년 7월 17일)	144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 실시(2020년 7월 17일)	145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2020년 7월 17일)	146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2020년 7월 30일)	146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2020년 9월 10일)	146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2020년 9월 10일)	146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개정(2020년 9월 10일)	147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2020년 9월 24일)	147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2020년 10월 29일)	147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조건 변경(2020년 12월 24일)	147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2회 대출 실시(2020년 12월 24일)	148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2020년 12월 24일)	149

### (3) 금융안정회의

◇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6월)」 (2020년 6월 24일)	150
◇ 「금융안정 상황점검」 (2020년 9월 24일)	151
◇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12월)」 (2020년 12월 24일)	152

##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 통화정책방향

(2020년 1월 17일, 제1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교역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하였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 폭 축소,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0%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여 금년 중 1% 내외로 높아지고, 근원인플

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 후 반등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분쟁, 주요국 경기,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20년 2월 27일, 제4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교역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주요국 국제금리와 주가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보호무

역주의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의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건설투자의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 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되는 움직임이 지속하였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2%대 초반 수준에서 지난 11월 전망치(2.3%)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전환, 석유류 가격 오름세 확대 등으로 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후반으로 상승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초반을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금년 중 1% 내외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서울 이외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무역분쟁, 주요국의 경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 상황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20년 3월 16일, 제6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 17일부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또한 그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20년 4월 9일, 제8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경기침체 우려,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국제금리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각국의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가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으며 수출도 소폭 감소하였다. 고용 상황은 2월까지의 취업자수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일시휴직자는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증가하였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큰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1% 수준으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에서 소폭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 확대, 수요측 압력 약화 등으로 낮아져 지난 2월 전망치(각각 1.0% 및 0.7%)를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영향받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큰 폭 상승하였다가 한·미 통화스왑 체결 이후 반락하였으며 장기시장은 1%대 초반에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3월 중순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20년 5월 28일, 제12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제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불안심리가 상당폭 완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대

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수출도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다.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악화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큰 폭 하회하는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되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0%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0%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상승압력 약화 등으로 금년 중 0%대 초반을,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안정,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축소되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주가는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

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20년 7월 16일, 제15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경기위축이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었으며, 국제금리는 소폭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민간소비가 경제활동 제약 완화,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 반등하였으나 수출 감소세와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진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였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하였다. 앞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소비와 수출의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5월 전

망치(-0.2%)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등으로 0% 내외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0%대 초반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지속,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0%대 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 등에 힘입어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전월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20년 8월 27일, 제19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경기위축이 완화되는 모습이 이어졌으나 그 속도는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 등으로 다소 둔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경기회복 기대가 유지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국제금리는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수출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민간소비의 개선 흐름이 약화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는 조정을 지속하였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회복 흐름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2%)를 상당폭 하회하는 -1%대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 확대,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등으로 0%대 초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으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으로 상승하였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지속,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0%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으며, 주가는 큰 폭 상승하였다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20년 10월 14일, 제22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이 이어졌으나 그 속도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다소 둔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변

화에 따라 주가, 금리 등 주요 가격변수가 상당폭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더딘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다. 수출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는 조정을 지속하였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1.3%)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1% 수준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지속,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낮아져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 받아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상당폭 등락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큰 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 ◇ 통화정책방향 (2020년 11월 26일, 제25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그 속도는 코로나19 재확산 지속의 영향 등으로 더딘 모습을 나타내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백신 개발 기대,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요국 주가와 국제금리가 상승하였으며,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개발 상황, 각국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으나, 설비투자가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었으며 수출은 개선 흐름을 지속하였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

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거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GDP성장률은 금년 중 -1%대 초반, 내년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공서비스가격의 큰 폭 하락 등으로 0%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에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다 점차 높아져 내년 중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경제지표 개선 등에 영향받아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20년 12월 24일, 제27차)

I.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대외 여건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나, 연간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세계경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전,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지속, 투자심리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 선진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회복세가 일시 약화되고 있으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지속할 전망

\*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의 불확실성, 낮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완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

○ 신흥국의 경우 중국이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신흥국은 코로나19의 영향 지속 등으로 개선세가 다소 더딜 가능성

○ 향후 세계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

— 백신 보급전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이동제한 조치, 백신의 안전성 검증 및 대량생산·접종 시기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

□ 한편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전년보다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나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2. 경제성장

◆ 국내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며 3%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

□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에 따른 불안요인이 잠재

○ 수출이 글로벌 경기 및 교역 회복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건설투자 부진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 가계 소득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전망

○ 향후 국내경제 성장세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성장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국내외 경기부양책 확대,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 등은 상방요인으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심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미·중 갈등 심화 등은 하방요인으로 잠재

□ 고용상황은 국내경기 회복과 함께 부진이 완화 되겠지만, 회복속도가 완만하고 부문별 회복 양상이 차별화될 가능성

### 3. 물 가

◆ 물가는 전년보다 높아진 1% 내외의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1% 내외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

○ 국내경기 개선, 전년 중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전·월세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높아지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목표수준(2%)을 하회할 전망

□ 향후 물가전망 경로에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회복세 및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 확대 등이 상방요인으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환율 하락 가능성 등이 하방요인으로 잠재

### 4. 금융·외환시장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위험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소지

○ 경기회복 기대,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지속 전망 등이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회복 지연, 취약기업 신용위험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상존

□ 한편 외화유동성 사정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 지속 등으로 대체로 양호할 전망

### 5. 금융안정

◆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대체로 원활하겠으나 자산가격 상승 및 부동산·고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확대,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 위험요인이 잠재

□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은 대체로 원활할 전망이나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문의 경우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

○ 가계대출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영향 등으로 증가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되겠지만 당분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면서 예년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

○ 기업대출은 기업의 예비적 자금 수요 둔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줄어들 전망

□ 금융시스템은 가계 및 기업 부채 누증,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취약성이 증가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다만 레버리지 확대 및 이에 기반한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이 위험요인으로 잠재

## II.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완화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
- ◆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성장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신용시장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결정
- ◆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
- ◆ 디지털 혁신 등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

### 1. 기준금리 운용

□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기조 유지

○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외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백신 상용화 시기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

—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높아지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지속 등으로 물가목표(2%)를 하회할 전망

○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완화적인 수준에서 운용할 것인지는 국내외 코로나19 전개 상황,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운용, 글로벌 교역여건 변화 등이 국내 거시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히 판단

□ **(금융안정에 유의)** 통화정책 운영시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에 한층 유의하면서 정부의 주택 및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

○ 이와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라 가격변수, 자본유출입 등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 상황이 위험선호성향 및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

## 2.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효과 제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 성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코로나19 이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부문과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한도 증액의 효과와 취약부문의 자금사정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향후 운용 방향을 모색

○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성과 분석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 상황 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

□ (대출담보제도의 효율적 운용)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담보위험 관리체계를 개선

○ 한시 운영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연장 여부,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및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한 담보가치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

## 3.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통화정책 운영체계 점검 및 개선) 통화정책 운영여건 변화,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 하되,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주요국 논의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계속 연구

\*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2018년 12월)시 목표수준을 2.0%로 유지하고 적용 기간은 특정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하기로 한 바 있음

○ 한국은행의 고용안정 역할 강화 요구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

○ 경기부진 심화시에 대비하여 금리 이외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검토

□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경제주체들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에서 통화정책 결정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강화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연 2회) 등을 통해 물가 상황 및 전망, 리스크 요인 등을 충실히 설명

○ 최근의 정책수행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수정\*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에 금융불균형 유의

필요성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 노력 명시 등  
(<붙임>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참조)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금융기관 자금  
수급사정, 회사채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  
며 재연장 여부를 검토(2021년 2월)

□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 강화) 포스  
트 코로나 시대 경제·산업구조, 환경·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연구·분석을 강화

○ 외환부문 안정을 위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과 긴밀한 커뮤니  
케이션을 유지하는 한편 과도한 실흘현상  
발생시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

○ 코로나 이후 비대면·디지털화 심화 등에 따라  
경제·산업구조에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분  
석을 강화하고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방안을  
연구

○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  
불안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  
(contingency plan)을 면밀히 점검·보완

○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환경·기후 변  
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 경제와 통화정책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

□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확충 노력 지  
속) 스위스 등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국 중앙은  
행과의 통화스왑계약 연장,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  
tion)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  
의 토대를 강화

#### 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장안  
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

\* ASEAN+3 공동 의장국(2021년) 중앙은행  
으로서 미 달러화 외 역내 통화 활용 등을  
추진

○ 국고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  
고 필요시 매입 시기·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  
는 방안을 검토

□ (유동성 조절수단 개선) 유동성 조절수단 개선을  
통해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현재 운용중인 신용시장 지원 조치는 지원효  
과와 자금증개 기능 회복 정도 등을 면밀히 점  
검하면서 계속 운용 여부를 결정

○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애로 및 단기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P  
매입 등 유동성 공급수단의 활용도 제고방안\*  
을 마련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한을  
6개월 연장(2021년 1월 13일 → 7월 13일)

\* RP매입 만기, 대상증권, 대상기관 확대 등

○ 채권시장 및 유동성조절 여건 변화 등에 대응

하여 통화안정증권 발행 개선방안\*, RP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등 단기유동성 조절수단의 활용 비중 확대 방안 등을 강구

\* 발행규모 조절, 필요시 3년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검토 등

□ **(지표금리 개선 노력 강화)**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의 공시 및 기존 지표금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

- 정부 및 시장참가자와 함께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의 공시 관련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 (콜금리 산출체계 개선)

## 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불균형 위험 완화 노력 강화)**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등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기업 신용의 부실 위험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분석
-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

— 금융안정 상황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 측정 및 평가 기법 등을 고도화

—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부문검사

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조기 파악

\* 가계부채 누증, 영세 자영업자 및 취약 중소기업 대출 증가, 한계기업 문제 등

- 핀테크 확산 등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속)** 국내외 금융안정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융안정 관련 현안 및 리스크에 적극 대응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BIS 및 IMF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

## 6.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하여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검토

- 주요국 중앙은행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와 도입 시장 단점을 분석하여 국내 구축 필요성을 검토



□ **(지급결제 안전성 확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하에서 지급결제인프라의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

○ 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금융결제망 참가,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법적 제도 도입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

○ 내·외부 전산망 분리 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사이버 위협 지속 등에 대응하여 인프라 운영 기관 및 참가기관의 IT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개선

□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

<참고>

###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 **(중기적 운영 시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 **(미래지향적 운영)**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인플레이

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신축적 운영)**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화신용정책 운영시 금융안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

○ **(금융시장 안정 노력)** 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금융불균형 유의)** 부채 누증 등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에 유의한다.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 (2)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 2020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2020년 1월 17일, 제1차)

#### 1. 대출금 한도, 상환기한 및 이율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출금 한도 및 상환기한

대출 구분	회계 별	대출금한도(억 원)	상환기한	기타
일시 대출금	통합계정	300,000	2021년 1월 20일	대출취급기한: 2020년 12월 31일(단, 양국관리특별회계의 경우 2019년 대출금중 미상환액을 한도에 포함하여 관리)
	양국관리특별회계	20,000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단, 2021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	2020년 12월 31일	
합계		400,000		

나.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율로 한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통화안정증권(91일물) 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대출형식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대출금 한도와 대출취급기한 내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 2. 부대조건

가.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구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양국관리특별회계의 기존 차입금이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위임사항 : 건별 대출의 실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한다.

4. 시행일자 : 2020년 1월 17일

###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2020년 2월 27일, 제4차)

□ 2020년 3월 9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현재의 25조 원에서 5조 원 증액한 30조 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10조 원에서 1조 원 증액한 11조 원으로 한다.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6.5조 원에서 1조 원 감액한 5.5조 원으로 한다.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 한도 유보분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현재의 0.1조 원에서 5조 원 증액한 5.1조 원으로 하되, 2021년 12월 1일부터는 한도 유보분 0.1조 원, 총 한도 25조 원으로 각각 환원한다.

### ◇ 「한국은행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20년 3월 12일, 제5차)

□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다음의 증권을 추가

-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
-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중소기업금융채권
-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 시행일자 : 2020년 4월 1일

###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2020년 3월 16일, 제6차)

□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조정하고자 함

□ 시행일자 : 2020년 3월 17일

###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20년 3월 16일, 제6차)

□ (대상증권 확대) 현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다음의 증권을 추가

○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제4조 제1항)

○ 다만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 (제4조 제2항)

□ (대상증권의 위험관리) 한국은행의 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 (제4조 제3항)
- 환매조건부로 신용위험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신용위험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제6조의2)

□ 시행일자 : 2020년 4월 1일

###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20년 3월 26일, 제7차)

□ (대상증권 확대) 현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다음의 증권을 추가

○ 전력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토지구획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제4조 제1항)

- 다만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 (제4조 제2항)

□ (대상증권의 위험관리) 한국은행의 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 (제4조 제3항)
- 추가 선정된 대상증권의 신용위험이 한국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제6조의2)

□ 시행일자 : 2020년 4월 1일

◇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 (2020년 3월 26일, 제7차)

□ 현재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이 아닌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7개 증권회사와 국고채전문딜러 4개 증권회사를 추가로 선정

환매조건부증권매매 대상기관 추가 선정(안)

		현행	추가 선정(안)
은행	국내은행 (13)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한국씨티, 산업, 한국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국내은행 (13)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한국씨티, 산업, 한국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외은지점 (4)	BNP파리바, JP모건, ING, 미즈호	외은지점 (4) BNP파리바, JP모건, ING, 미즈호
비은행	(5)	미래에셋대우, 삼성, 신영, NH투자, 한국증권금융	(16) 미래에셋대우, 삼성, 신영, NH투자, 한국증권금융, 신한금융투자, 현대차, KB, 하이투자, 키움, 한국투자, 유진투자, 교보, 대신, DB투자, 메리츠증권
계		22	33

주: 밀집친 기관은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중 7개 증권회사 및 국고채전문딜러 4개 증권회사

□ 유효기간 : 2020년 4월 1일 ~ 2020년 7월 31일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20년 3월 26일, 제7차)

□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다음의 공공기관 발행채권 및 은행채를 추가

- 중소기업투자보증공단이 발행한 채권
- 한국가스공사가 발행한 사채
-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한 사채
-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행한 사채
-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사채
-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한 사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행한 사채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사채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
- 「은행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채

□ 다만 대출 적격담보증권에서 금융기관의 자기발행증권은 제외

-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대출만을 명시함에 따라 신용대출이 불가

□ 대출 적격담보증권 인정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1년)로 설정(부칙)

□ 시행일자 : 2020년 4월 1일

###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20년 4월 9일, 제8차)

□ (RP매매 대상증권 확대) 현행 RP매매 대상증권에 다음의 증권을 추가

-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일부 RP매매 대상증권을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인정)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금공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인정

- 동 증권에 대해서는 RP매매 제한 조항을 미적용 (제4조 제2항)

□ (대상증권의 위험관리) 한국은행의 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 (제4조 제3항)

- 추가 선정된 대상증권의 신용위험이 한국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제6조의2)

□ 시행일자 : 2020년 4월 14일

###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 (2020년 4월 9일, 제8차)

□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정부 무보증)을 추가 (제4조제1항제8호가목)

- 동 채권의 대출 적격담보증권 인정 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 (부칙)

□ 한시적 대출 적격담보증권은 위험관리 등을 위해 채권의 종류에 따라 특수채 및 은행채로 그룹화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 시행일자 : 2020년 4월 14일

###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2020년 4월 9일, 제8차)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 포인트 인하하고 예정된 인상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 변경(안)

	현행	20.4월	20.8.1	21.8.1	22.8.1	23.8.1	24.8.1
변경 전	70%	70%	80%	90%	100%	100%	100%
변경 후	⇒	50%	50%	70%	80%	90%	100%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종) 및 은행채를 추가

- 다만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대

출만을 명시함에 따라 차액결제 불이행시 해당 기관에 대한 신용대출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담보증권에서 금융기관의 자기 발행증권은 제외

○ 신규로 추가되는 적격담보증권은 제2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신용위험이 내포된 특정 담보증권을 과도하게 납입하여 편중리스크가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적격담보증권을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담보그룹별 담보활용 비중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음

○ 적격담보증권 인정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설정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범위 변경(안)

변경 전	변경 후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 증채,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 증채,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추가)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 시행일자 : 2020년 4월 10일

○ 다만 적격담보증권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통위 의결 이후 2월의 범위 내에서 총재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및 운용방안 (2020년 4월 16일, 제9차)

#### 1. 대상기관\*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

○ (은행)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자금 조정대출 대상기관)

○ (증권) 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② RP매매 대상기관, ③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5개 및 한국증권금융

○ (보험)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

#### 2. 총 대출한도 : 10조 원\*

\*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 3. 제도 운용기간 : 시행일부 3개월

#### 4. 대출기간 : 6개월 이내

#### 5. 대출담보 : 일반기업(금융회사 및 공기업 제외) 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의 평가 등급 중 최저 등급 기준

\*\* 후순위채,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자회사 및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하여 상호연계위험이 있는 회사채는 제외

**6. 대출금리 : 통화안정증권(182일) 금리\*에 0.85% 포인트를 가산한 금리**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대출취급일 직전 5영업일 평균 금리를 적용

**7. 대출방식 : 대출 대상기관이 제공하는 적격 담보의 인정가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신청한 금액을 한국은행이 대출**

**8. 회수방식 : 만기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가능

**9. 이자수취 방법 : 만기시 후취**

**10. 시행일 : 2020년 5월 4일**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2020년 5월 14일, 제11차)**

□ 2020년 5월 18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현재의 30조 원에서 5조 원 증액한 35조 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도,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 한도 유보분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현재의 5.1조 원에서 5조 원 증액한 10.1조 원으로 하 되, 2021년 12월 1일부터는 한도 유보분 0.1조 원, 총 한도 25조 원으로 각각 환원한다.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2020년 6월 24일, 제14차)**

□ 차액결제업무 참가 요건으로 다음의 사항을 명시

○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확보

○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시 한국은행 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를 통해 결제유동성 공급이 가능

○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앞 자료제출이 가능하고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시 가능

○ 총재가 정하는 그 밖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차액결제 위탁기관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의 사항을 명시

○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확보

○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앞 자료제출이 가능하고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시 가능(단,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차액결제대행계약을 하는 차액결제위탁기관부터 적용)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으로서 한은금융망 가입 기준을 충족할 것



○ 총재가 정하는 그 밖의 기준을 충족할 것

○ 대출기간은 대출건별로 적용

□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결과 개선요청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술적인 경우 금통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 시행일자 : 2020년 6월 24일

###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한도 및 조건 결정(2020년 7월 17일, 제16차)

#### 5. 대출담보 : SPV 전체 자산

○ 한국은행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CP,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한국산업은행 수납관리예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

○ SPV는 대출실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제공

#### 1. 대출한도 : 총 8조 원 이내

○ SPV 신청에 따라 Capital call 방식으로 대출

#### 6. 대출금 회수 : 만기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가능

#### 2. 대출실행 시한 : SPV 설립(7월 14일) 이후 6개월

#### 7. 이자수취 : 3개월마다 후취

#### 3. 대출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는 통화안정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 대출실행일 직전 5영업일간의 산술평균 값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8. 부대조건

○ 한국은행의 SPV에 대한 대출은 특정기업 또는 부실기업 지원이 아니라 회사채·CP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SPV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동일 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를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한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판단

—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코로나19 사태 이전 기준)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 4. 대출기간 :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 SPV는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다음과 같은 노

력을 기울이고 운영과정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행과 향후 운영방향을 협의하여야 한다.

— 포트폴리오의 신용등급별 비중이 AA 등급(A1 등급 포함) 30% 이상, A 등급(A2 등급 포함) 55% 내외, BBB 등급 이하\*(A3 등급 포함) 15% 이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운용하되 SPV 설립 6개월 후 시점에서는 동 비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 2020년 4월 22일 이전 BBB등급 이상이었으나, 이후 BB등급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포함

○ SPV는 한국은행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회사채·CP 상환, 매각 등으로 SPV의 운용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한국은행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이라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 SPV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라 동 기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확인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SPV는 한국은행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SPV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SPV는 회사채·CP 발행기업의 원리금 연체, 회생절차 개시 등 업무 및 재산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 SPV는 한국은행이 개별 회사채·CP 및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9. 기타

○ 대출계약서 등의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 실시(2020년 7월 17일, 제16차)

1. 대출금액 : 1조 7,800억 원

2. 대출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는 통화안정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 대출실행일 직전 5영업일간의 산술평균 값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3. 대출기간 :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4. 대출담보 : SPV 전체 자산

○ 한국은행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CP, 한국은

행 당좌예금 및 한국산업은행 수납관리예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

능을 분리하여 신설되었다가 2015년 1월 한국산업은행에 재흡수

- SPV는 대출실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제공

□ 시행일자 : 2020년 7월 17일

### 5. 대출금 회수 : 만기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가능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종전 2020년 8월 3일에서 2020년 11월 3일로 3개월 연장

### 6. 이자수취 : 3개월마다 후취

### 7. 기타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결정」(금통위 의결)의 부대조건을 준용한다.
- SPV에 대한 대출취급일 및 대출금리 산정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 한국은행 총재는 본 대출의 실행후 그 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출 한도 및 금리, 적격 대출담보의 범위 등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방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 (2020년 7월 17일, 제16차)

###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 (2020년 9월 10일, 제20차)

□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 일부 변경

-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삭제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영리기업을 추가

□ 당좌예금거래약정 체결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총재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명시(제3조)

□ 결제전용예금 폐지를 반영하여 결제전용예금 관련 내용을 삭제(제1조 등)

□ 시행일자 :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반영하여 금통위 의결 이후 4월의 범위 내에서 총재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2020년 9월 10일, 제20차)

\* 2009년 10월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예금계좌 체계를 개편

(제4조 등)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 목표에 부합하도록 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갖출 것을 규정(제6조)

□ 시행일자 : 차세대 한은금융망이 차질없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참가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반영하여 금통위 의결 이후 4월의 범위 내에서 총재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개정 (2020년 9월 10일, 제20차)

□ 결제전용예금계좌 폐지에 따라 결제전용예금 관련 내용 삭제(제2조)

□ 시행일자 : 금통위 의결 후 4월의 범위내에서 총재가 정하는 날부터 시행

###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2020년 9월 24일, 제21차)

□ 2020년 10월 5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현재의 35조 원에서 8조 원 증액한 43조 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11조 원에서 2조 원 증액한 13조 원으로 한다.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중소기업대출 안정화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 한도 유보분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현재의 10.1조 원에서 6조 원 증액한 16.1조 원으로 하 되, 2022년 6월 1일부터는 0.1조 원으로 한다.

###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 연장 (2020년 10월 29일, 제23차)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종전 2020년 11월 3일에서 2021년 2월 3일로 3개월 연장

- 대상기관, 대출 한도 및 금리, 적격 대출담보의 범위 등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방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조건 변경(2020년 12월 24일, 제27차)

#### 1. 변경 내용

□ 한국은행의 대출실행 시한을 종전 SPV 설립\* 6개월 후(2021년 1월 13일)에서 SPV 설립 1년 후(2021년 7월 13일)로 6개월 연장

\* 2020년 7월 14일

□ 한국은행 대출 부대조건인 SPV 포트폴리오의 신용등급별 비중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 동 비중 준수 시점을 종전 SPV 설립 6개월후(2021년 1월 13일)에서 SPV 설립 1년후(2021년 7월 13일)로 변경

- AA등급(A1등급 포함): 30% 이상 → 25% 이상
- A등급(A2등급 포함): 55% 내외(변경 없음)

○ BBB등급 이하\*(A3등급 포함): 15% 이하 → 20% 이하

\* 2020년 4월 22일 이전 BBB등급 이상이었던  
으나, 이후 BB등급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포함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 대출실행일 직전 5영업일간의 산술평균  
값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2. 시행일

□ 2020년 12월 24일

## 3. 기타

□ 상기 변경 내용을 제외한 한국은행의 대출 한도,  
금리, 기간, 담보 및 여타 부대조건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결정」(2020년 7월 17일, 금통위 의결)

□ 시행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상기 변  
경 내용을 시행일부터 동일하게 적용

##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2회 대출 실시(2020년 12월 24일, 제27차)

1. 대출금액 : 1조 7,800억 원

2. 대출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  
를 가산한 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는  
통화안정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  
금리의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3. 대출기간 :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4. 대출담보 : SPV 전체 자산

○ 한국은행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CP, 한국은  
행 당좌예금 및 한국산업은행 수납관리예금  
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

○ SPV는 대출취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제공

5. 대출금 회수 : 만기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가능

6. 이자수취 : 3개월마다 후취

7. 기타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결정」(2020년 7월 17일, 금통위 의  
결) 및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  
출 조건 변경」(2020년 12월 24일, 금통위 의  
결)의 부대조건을 준용한다.

○ SPV에 대한 대출취급일 및 대출금리 산정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 한국은행 총재는 본 대출의 실행후 그 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20년 12월 24일, 제27차)

-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의결주기) 현재 3개월 인 분기별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의결주기를 6 개월로 변경

- 통화안정증권 발행한도 (제12조)

- 시행일자 : 2020년 12월 24일

### (3) 금융안정회의

#### ◇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6월), (2020년 6월 24일, 제14차)」

3월 이후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pandemic)으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경계감이 확산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다.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금융시장 불안은 대체로 진정되었으나,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불안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2월부터 빠르게 상승하면서 4월(22.3)에 위기단계(22)를 넘어섰다가 이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주의단계를 상회(17.2)하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은 가계의 지속적인 대출수요 증가,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의 자금 확보 노력 등으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더해 명목GDP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크게 높아졌다.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경기부진 등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기업신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황 악화 등으로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용공급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다만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채권 및 주식 시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장기시장금리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국내외 시장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용스프레드는 기업 실적악화,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의 우려가 증대되면서 3월 중순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주가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으로 주요국과 함께 급락하다가 국내외 정책대응 등에 힘입어 3월 하순 이후 빠르게 반등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규제강화, 실물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서울지역이 4월 들어 하락 전환한 반면 서울 이외 수도권은 개발호재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 축소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도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대부분의 업권에서 수익성이 저하되었다. 아직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금융기관 경영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대출의 잠재리스크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자금은 채권자금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주식자금이 대규모 유출되면서 1~5월 중 49억 달러의 순유출을 나타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은 코로나19 확산 대응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유동성 비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규제기준을 큰 폭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신용 및 시장 손실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하여야 한다. 대외지급능력 측면은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이 소폭 감소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그에 따른 유례없는 금융·실물 충격으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우리나라와 주요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 정책대응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 국내외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미·중 갈등 고조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어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금융기관의 복원력 약화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흥국 금융불안 전이 등으로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등과 협력하여 금융불안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 「금융안정 상황점검」 (2020년 9월 24일, 제21차)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안정지수는 4월 중(23.9) 위기 단계에 진입하였다가 5월 이후 주의단계(8~22)에 머물면서 점차 하락

하였다. 다만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등으로 향후 동 지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신용은 2019년 말 이후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신용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큰 폭 확대되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나 연체율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실적부진이 지속되면서 다소 악화되었다.

자산시장에서는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용경계감 증대로 크게 확대되었다가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최근 우량물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주가는 3월 중 급락 이후 빠르게 반등하여 전고점을 회복하였다. 주택가격은 상반기 중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등으로 8월 들어서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수익성은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예대금리차 축소 등으로 다소 저하되었다.

2020년 상반기 중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출되었으나, 7월 이후에는 채권자금의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자금 유출 규모는 축소되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살펴보면,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영향 장기화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부실이 늘어나면서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환보유액 및 순대외채권 규모, 한·미 통화스왑계약 연장(2020년 7월 30일) 등을 감안하면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2020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유동성의 자산시장 유입 등으로 금융·실물 괴리 우려가 커지는 등 중장기적으로 금융안정 측면의 잠재리스크는 다소 증대되었다.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외환부문의 지급능력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저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과 함께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민간부문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12월)」 (2020년 12월 24일, 제27차)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10월 이후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 기능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는 4월 위기단계에 일시 진입하였다가 하락세를 지속하여 11월에는 7.8(잠정)로 주의단계 임계치(8)를 소폭 하회하고

있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더욱이 명목GDP 성장률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가계신용은 주택관련대출,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났다. 아직까지는 가계대출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한편 기업신용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실적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어 향후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채권 및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었으나 주택시장은 가격상승압력이 높은 모습이다. 장기시장금리는 추경편성에 따른 수급부담,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주요국과 함께 상승하였고, 신용스프레드는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신용경계감이 완화되면서 축소되었다. 주가는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일시 둔화되었다가 11월 들어 수도권, 5대광역시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었다.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이 지속되면서 금융·실물 괴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익성이 대손비

용 증가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되고 수익성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현재 건전성 지표가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실제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은 2020년 중 주식자금이 순유출된 반면 채권자금은 순유입되었다. 주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규모 순유출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경제지표 등으로 10월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봉쇄 강화 등이 위험회피 심리 강화로 이어질 경우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은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큰 폭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은행의 경우 바젤Ⅲ 개편안 조기도입으로 상승하였으며, 비은행도 대체로 자본적정성 비율이 상승하였다. 대외지급능력은 외환보유액이 4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국내외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이 원활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외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지속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금융안정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 3. 경제일지

#### (1) 통화·금융·재정

- 1.17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25%) 유지
  
- 2.20 ▷ 정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주택가격 구간별로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열 지속 시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 2.27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1.25%) 유지
  
- 3.13 ▷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 한도 확대 시행
  -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 동일 기간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 3.16 ▷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50bp 하향 조정(1.25% → 0.75%)
  
- 4.9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75%) 유지
  
- 5.20 ▷ 정부,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마련
  -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 사채 매입기구 설립
  - 10조 원 규모로 운영하되 필요 시 20조 원까지 확대하며, 우량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
  -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하며, 발행 기업들이 시장 조달 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하여

## 금리 설정

- 5.28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bp 하향 조정(0.75% → 0.50%)
- 6.17 ▷ 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 경기·인천·대전·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서울 송파·강남구 등 주요 개발 호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및 2차 안전진단시 현장조사 의무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만 분양신청 허용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및 종부세 공제 폐지
- 6.29 ▷ 금융위원회,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 승인  
○ 2020년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5개 은행 및 8개 은행지회사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 조기 시행
- 7.16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50%) 유지
- 8.27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50%) 유지
- 9.1 ▷ 기획재정부,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발표  
○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 서민·자영업자 지원, 소득수준별 세부담 적정화 등 포용성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 과세기반 확대, 납세자 권리 보호 등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10.5 ▷ 정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마련  
○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종합 고려하는 방식 도입, 재정준칙 한도 초과시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 의무화  
○ 심각한 경제위기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 면제, 경기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 1%p 완화 등 보완장치 마련

- '25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준칙 운용

10.14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50%) 유지

10.16

▷ 금융위원회·법무부,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확정

- 이자 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하여 24% → 20%로 인하
- 시행령 개정을 통해 21년 하반기부터 시행,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병행

11.26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50%) 유지

12.17

▷ 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발표

-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및 경제·방역 간 균형 도모,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 투자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구축·확산
-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 지역투자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 소상공인·기업 경영 지원
-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 벤처·창업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혁신
-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재정·공공·노동 등 부문별 구조혁신
-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코로나시대 격차 해소, 국민안전·삶의 질 개선

## (2) 무역·외환

- 3.19 ▷ 한국은행, 미 연준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 글로벌 달러자금시장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600억 규모, 계약기간 최소 6개월의 양자간 통화스왑 체결
- 3.26 ▷ 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확정
-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25% 상향조정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 한시적 경감 및 현행 80%인 외화 LCR을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는 방안 추진
- 4.8 ▷ 정부,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 무역금융 추가 지원, 코로나19 유망상품 수출 확대 등 수출 애로 해소
  - 핵심품목 확대·상시관리 및 다변화·규제완화 등 공급망 재편 대응
  - 민간부담금 축소, 인건비 지원 확대 등 최대 2.2조 원 규모 지원
- 6.30 ▷ 정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미 달러화 자금 공급
  - 유동성 및 안정성이 높은 미국 국채로 대상 증권을 한정하며, 국내 외환스왑시장 수급 상황 및 금융회사의 대상 증권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 규모 결정
- 11.13 ▷ 정부, 「무역 디지털 전환대책」 발표
- 3대 공공 B2B 플랫폼의 기능 통합, 글로벌화 촉진 등 한국형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글로벌화 유망기업 발굴, 수출초보기업 집중 육성, 글로벌 스타트업 창출 등 디지털 수출기업화 추진
  - 디지털 무역지원시스템 고도화, 비대면·디지털 활용 인프라 확충 등 수출지원체계 개편

### (3) 산업·고용 및 기타

- 3.18 ▷ 정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 발표
- (항공업)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 즉시 시행, 항공기 정류료 3개월간 전액 면제, 운항 중단 공항의 상업시설 임대료 전액 면제,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 (해운업)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2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 100% 감면
- 4.1 ▷ 정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 발표
- (관광업)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상향 조정, 대·중견기업의 임대료 20% 신규 감면
  - (영화업)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 감면, 코로나19 상황 진정시 홍보캠페인 지원
  - (통신·방송업)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4,2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일감확대를 위해 상반기 5G 통신망 투자 금액을 4조 원으로 확대
- 4.9 ▷ 정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 발표
- (부담금, 점용료 등 비용경감) 교통유발부담금 2020년도 부과분 30% 경감, 민간사업자의 2020년도 도로·하천 점용료 25% 감면
  - (스포츠 산업 지원방안) 운전자금 특별융자 300억 원 추가 지원, 영세 스포츠업체의 역량 강화 지원
  - (농수산 분야 지원방안) 농번기 농업인력 공급 지원, 공공부문 화훼 수요 발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지원
- 4.22 ▷ 정부,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발표
- (고용안정 특별대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구직급여 규모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비우량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지원 규모 확대
- 5.14 ▷ 정부,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방안」 발표
- (방역·예방 단계) AI·빅데이터 활용 감염병 예측 모형 개발, 감염병 연구데이터 DB의 구축·활용, 핵심 방역장비의 국산화 추진
  - (진단·검사 분야) 연구기관의 인력·장비 제공, 중소·벤처 진단키트 생산업체 지원

- (백신·치료 단계) 치료제·백신 R&D 및 임상 지원 확대, 백신공정 개발서비스 지원
- (방역체계) 감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소 설립 추진, 한국형 감염병 진단기법의 국제표준 제정 추진

5.20

▷ 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방안」 마련

- 국민경제, 고용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중심으로 산업은행법 시행령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선정
- 운영자금 대출, 주식연계증권 인수 등의 방식을 이용하며 기금채권 발행으로 재원 조달
-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규모 유지, 정상화 이익 공유, 주주·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조건
-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민간은행과의 협업체계 구축

5.28

▷ 정부,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 발표

- (자동차 부품 산업) 5,000억 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보증 신설, 2020년도 관·부가세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공공부문의 업무용 차량 조기구매 및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규모 확대
- (중형 조선산업)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교체, 원양어선 및 해경함정 등의 연내 조기발주 추진
- (섬유·의류 산업) 공공부문 섬유·의류 구매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 지원
- (스포츠 산업) 스포츠 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용자 추가 확대,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비대면 스포츠 코칭 지원

6.11

▷ 정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 발표

- 투자애로 해소, 철저한 집행관리 등을 통해 민간(25조 원)·민자(15.2조 원)·공공(60.5조 원)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집행·발굴 가속화
- 벤처자금 공급 확대, 인프라·R&D 지원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
- 규제외 합리적 개선, 진입규제 및 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현장밀착형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채용인프라 확충 및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등의 민간부분 신규 채용 촉진



- 6.19 ▷ 정부,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발표
-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저신용으로 금융접근에 제약이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조 원의 운영자금대출을 공급
  - 기간산업안정기금, 민간은행, 정책금융기관이 대출 위험을 분담하고 협력업체 또한 후 순위 인수 등의 위험분담 및 고용유지 노력
  - 신규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인정
- 7.14 ▷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디지털 뉴딜)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경제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그린 뉴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경제 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
  - (안전망 강화)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실업 불안 및 소득 격차 완화
- 11.19 ▷ 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비대면 규제 개선)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검증 시 조기 제도개선 지원, 모바일 전자 고지 확대, 디지털 신원인증 등 생활편의 규제 개선
  - (비대면 혁신기업 육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K-비대면 기술 표준화, 수출지원체계 디지털화
  - 포용적 비대면 생태계 조성) 디지털 분야 갑을문제·소비자 분쟁 해소, 플랫폼 경제 독과점 규율 등 공정경쟁 확립
- 12.7 ▷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조기 감축 유도
  - 기존 혁신 생태계를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맞게 점검·보완하고 저탄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식·육성하는 체계 구축
  - 재정제도 개선 및 녹색금융 활성화, 기술개발 확충, 국제협력 등을 통해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및 효과적 탄소감축 이행 지원
- 12.23 ▷ 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 고용보험 적용 확대, 사각지대 해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

##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집필자	
<b>I. 한국은행 개요</b>		
1. 연혁 및 설립목적	통화정책국	김효손
2. 조직		
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실	정성환
나. 집행간부 및 감사	비서실	한승혁
다. 부서조직 및 소관업무	기획협력국	천재정
<b>II. 경제 동향</b>		
1. 실물경제		
가. 세계경제	조사국	박병걸
나. 국내경제	조사국	임준혁, 이나윤, 이군건, 황수빈, 유민정, 김윤경
	지역협력실	구병수
2. 금융·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국제국	한재찬
나. 국내금융시장	금융시장국	이은지
	국제국	김대석
<b>III. 업무 현황</b>		
1. 중기전략	기획협력국	김현희
2. 통화신용정책		
가. 물가안정목표	조사국	이지원
	통화정책국	배정민
나. 기준금리	통화정책국	배정민
다. 여수신	통화정책국	이은국
	금융결제국	송윤정
라. 공개시장운영	금융시장국	윤태영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통화정책국	배정민
	금융통화위원회실	정성환
	커뮤니케이션국	정유미
3. 금융안정		
가. 거시건전성 분석·평가	금융안정국	조항서, 김민서
나. 외환시장 안정조치	국제국	한재찬
다.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국제협력국	안성희
4. 발권		
가. 화폐 발행	발권국	이태검
나. 화폐 유통	발권국	육지훈
다. 대외 협력	발권국	육지훈

##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 집필자

5. 지급결제		
가. 한은금융망 운영	금융결제국	정혜림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금융결제국	정혜림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금융결제국	정혜림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금융결제국	정혜림
6. 외환 및 국제협력		
가. 외국환	국제국	한재찬, 김대석, 조지은
나. 외화자산 운용 업무	외자운용원	남석원
다. 국제협력	국제협력국	안성희
7. 조사통계		
가. 조사연구	조사국	이용대
	경제연구원	조유정
	지역협력실	이재원
나. 통계	경제통계국	이혜민
8. 국고 및 증권		
가. 국고	국고증권실	조영화
나. 증권	국고증권실	신성욱
다. 기금관리	국고증권실	신성욱
9. 대외 커뮤니케이션		
가. 국민과의 소통 확대	커뮤니케이션국	정유미, 장윤경, 이준호
	기획협력국	김광룡
나. 대국민 경제교육 활동 강화	경제교육실	서하나

## IV. 경영 상황

1. 조직 운영		
가. 조직 체계	기획협력국	천재정
나. 조직 운영방식	기획협력국	천재정, 윤세진, 이영호
다.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 수립	기획협력국	김현희
라. 교육훈련	인재개발원	신영석
마. 인력 운영	인사경영국	조주연
바.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인사경영국	하지원
사. IT시스템 개선·확충	전산정보국	김은정
아. 통합별관 건축 추진	별관건축본부	유철중
2. 재무 현황	기획협력국	배문선

## 부록

1. 한국은행 조직도	기획협력국	천재정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금융통화위원회실	정성환
3. 경제일지	조사국	임준혁, 이나윤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커뮤니케이션국	정유미

## 보고서 작성총괄

커뮤니케이션국 정홍순, 한상우, 정유미

---

## 2020 연차보고서

발행인	이주열
감 수	임지원
편집인	김영태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www.bok.or.kr
발행일	2021년 3월 31일
제 작	(주)제일프린테크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조사·연구 > 주요 보고서 > 연차보고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전화 02-759-4649,  
이메일 [publicinfo@bok.or.kr](mailto:publicinfo@bok.or.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SSN 1975-4922

